


성남 옛 이야기



한춘섭 · 윤종준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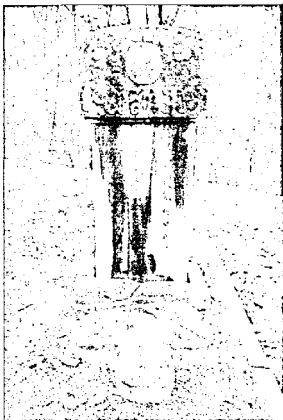
城南文化院




성남옛 이야기



한춘섭 · 윤종준 편저



城南文化院

머리글

구비문화를 통한 삶의 기쁨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국문학자)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문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口碑) 전승의 문화였다. 그러한 구전문학은 문자가 만들어져 글이 쓰여지고 책으로 나오는 세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되는데, 언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과 음악으로 표현되는 등의 예술로 승화된 형태가 지니는 매력은 없지 않다.

옛날 이야기를 대개 ‘설화(說話)’라 하고, 이것을 크게 신화·전설·민담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설화에는 민족적 정서를 품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다시 문자로 정리되어 소설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 연극의 대본으로 되거나 음악의 창작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고 문학적 형태를 취한 것이 곧, 설화문학이다. 전설은 반드시 신격(神格)을 주체로 하는 것만은 아니며, 인간과 그 행위를 주체로 하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주체가 되는 사물에 따라 지명전설(地名傳說)·성명전설(姓名傳說) 등으로 분류되고, 암석·수목·산천 등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민담에는 신화의 신성성과 위엄성 및 전설의 신빙성과 역사성이 희박한 반면에, 흥미 위주로 된 일종의 옛 이야기이다. 서양에서는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서양 문학 최초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BC 8C경에 구전으로 성립

되고, BC 6C경에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이 작품들이 지닌 감동은 단순히 오래 되었다는 사실 하나에만 경탄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토록 오래 된 작품이 짜임새 있는 구조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대설화가 문자로 정착된 것은 고려 때부터로 볼 수 있으며, '단군(檀君)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비롯한 수많은 신화·전설이 수록된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설화의 보물창고라 할 만한 것이다. 일연(一然)은 《삼국유사》를 쓰면서 세상에서 믿이지지 않을 기이(奇異)한 일들을 적으면서 "3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으랴. 이 기이편(奇異篇)을 이 책 첫머리에 실는 것은 그 뜻이 실로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성남은 37년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전통이 잊혀져 가고 있다. 그 중에 옛 이야기들은 원주민들의 이합집산과 도시 속으로의 흡수로 인해 이야기의 전승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의 잊혀져 가는 실정이다. 옛 이야기를 정리하고 기록해서 전승하는 것은 우리들이 설화에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과 문화적 영감들을 되살려 내는 일이라 하겠다. 성남의 설화 가운데 북정동의 <복우물과 금베튼> 이야기, <이집 선생과 친구 최원도와의 우정>, <낙송정 우물>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김약시, 김운탁 등의 이야기는 금광동의 유래나 여수동의 유래를 알게 해 주는 근거자료가 된다.

아무쪼록, 이 책 속에 소개되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최초 이야기 모음집을 통해 순박한 향토문화의 향수와 현대인 삶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연구와 전승의 실마리가 농경문화 시대의 선조들이 누려 왔던 삶의 교훈성의 깊이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머리글/구비분화를 통한 삶의 기쁨 · 한춘실 ... 6

- 12 ... 600년 이어오는 우정, 이집(李集) 선생과 최원도
- 16 ... 이인의 표상, 강정일당(姜靜一堂)
- 19 ... 한(恨) 서린 망정대의 조건(趙翊)
- 25 ... 남이흥(南以興) 장군의 애국충절
- 27 ... 윤치장(尹致章) 의병장
- 29 ... 비슬의 뜻을 버린 이통(李通)
- 30 ... 이윤덕(李潤德) 장군의 무용담
- 32 ... 무술이 뛰어났던 이함(李函)
- 34 ... 활쏘기의 병인, 이효백(李孝伯)
- 36 ... 일에만 열중한 송맹경(宋孟瓌)
- 37 ... 임금이 내려준 명품 선물
- 39 ... 임진왜란 해전 승리의 공신, 한효순(韓孝純)
- 41 ...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 이경류(李慶流)
- 43 ... 선조 임금에게 비웃을 바친 권징(權徵)
- 46 ... 세조 임금과 이극감(李克堪)
- 48 ... 탄천전투에서 전사한 최진립(崔震立)
- 50 ... 청계당과 벽암대사
- 53 ... 김취(金萃)의 용기
- 55 ... 조종도(趙宗道)의 대장부 기개
- 59 ... 강숙회(姜叔淮)가 불상을 훔친 도둑을 잡다
- 61 ... 권득기(權得己)가 비슬을 하지 않은 이유
- 64 ... 구징(具徵)의 부덕

- 66 … 동생을 저극히 아낀 남윤협(南允協)
- 68 … 기이한 사람, 이근(李謹)
- 72 … 우풍헌과 남한산성
- 74 … 정직한 임실현감
- 76 … 창백리 이명태(李秉泰)
- 78 … 세조 때의 과거시험
- 80 … 태종우의 내력
- 82 … 대중 임금과 사돈이 된 남경문(南景文)
- 83 … 남유용(南有容)이 비단 도포를 입고 다닌 이유는?
- 85 … 남공철(南公楨)의 과거(科擧) 급제 꿈
- 88 … 실수로 어머니를 죽게 한 사람 이야기
- 90 … 암구렁이와 총각
- 92 … 천마와 병자호란
- 94 … 청태종의 매부 양고리를 쏘아 죽이다
- 95 … 인조의 꿈에 적의 침입을 알린 온조대왕
- 96 … 노협(魯協)이 만난 무인
- 98 … 경안교의 돌다리
- 99 … 낙송정의 두 얼굴
- 102 … 서훈남(徐欣男)의 공로
- 104 … 광주(廣州)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 105 … 조선 최고의 가문, 광주(廣州)이씨
- 107 … 광주이씨 시조 설화
- 109 … 호송산(狐訟山) 전설
- 111 … 명선공주와 명혜공주

Contents

- 113 ... 사라져 버린 우리 고장의 역사기록
115 ... 이름을 고친 사람들
117 ... 송언신(宋言愼)의 이남 이야기
118 ... 남효원(南孝元) 피살 사건
119 ... 소금장수가 백상루를 유람한 이야기
121 ... 신준미 집에서의 술자리
122 ... 예수교에 대한 정조 임금의 생각
123 ... 옛날에도 다이어트를 한 사람
124 ... 원경하(元景夏)의 천신(天神)문답
126 ... 의심을 하면 병이 된다
127 ... 이륙(李陸)의 《청파극담》
129 ... 은혜 깊은 두꺼비
132 ... 삼천병마골(三千兵馬谷)
133 ... 도촌동의 유래
135 ... 성남 도촌동 느티나무
136 ... 하대원동 회화나무와 윤탁연(尹卓然)
137 ... 김약시(金若時)와 부전어동
140 ... 여수동 마을 이름의 유래와 김윤탁(金允灌)
141 ... 금광동의 특산물이었던 금광초(金光草)
143 ... 노장군과 물줄기
146 ... 복우물과 금배불
150 ... 성부산(星浮山)의 유래
152 ... 울동 '활터거리' 그 유래
153 ... 단천 이지직(李之直) 묘의 풍수지리

- 154 ... 서울 안암동의 유래와 한계회(韓繼禧)
- 157 ... 임꺽정(林巨正)과 다래냉쿨
- 159 ... 진터 번의 전설
- 161 ... 이경민(李景閔) 묘비 거북 받침의 내력
- 163 ... 이곤(李坤) 묘비에 새겨진 삼죽오
- 164 ... 야탑동 상희공원 이야기
- 167 ... 궁내동 샐터 이야기
- 168 ... 금단선사와 소년
- 170 ... 율동 서근배미(서근바미)
- 171 ... 이매동과 해매기골의 유래
- 174 ... 판교원을 지은 조운홀(趙云化)
- 176 ... 화랑모계 · 화랑보 · 화랑보들 · 화랑보개울
- 177 ... 열녀, 도미(都彌) 부인
- 179 ... 김약(金鎔) 형제의 효행
- 180 ...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닭고기를 먹여준 효자, 권수(權授)
- 181 ... 홍수원(洪睟元)의 효행
- 182 ... 열녀 남원 윤씨
- 184 ... 이로(李潞)의 효행
- 185 ... 효자정의 가을 잉어
- 187 ... 세상에 이런 일이

후기/따스한 인정을 품은 도시 성남의 옛 이야기 · 윤종준 ... 192

600년 이어오는 우정 이집(李集) 선생과 최원도

광주(廣州)를 본관으로 하는 광주이씨(廣州李氏)의 중시조 이집(李集)은 이자성의 7세손인 당(唐)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5형제가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아전 계급이었던 광주이씨 가문을 일조에 혁신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문장이 뛰어나고 절개가 높은 선비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이집에 대한 옛 기록들을 요약해 보면, 고려 충숙왕 14년(1327)에 태어나 어릴 때의 이름은 원령(元齡)이고 호는 둔촌(遁村)이다. 문경공 안보(安輔)에게 글을 배웠으며, 충목왕 3년(1347)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최원도는 이집과 과거 동기생으로 영천최씨이며, 호는 천곡(泉谷)이다. 이집은 진작에 요승 신돈의 화를 피하여 그를 찾아왔다. 이집은 개경의 용수산 아래 살면서 학문지절이 뛰어난 폭넓은 교유를 하고 있었는데, 신돈의 독재를 비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집은 무엇보다도 70이 가까운 아버지에게 미칠 화를 염려하여 기

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낮에는 숨고 밤에 산길을 택해가며 멀고도 험한 야행천리로 영천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이집 부자가 가까스로 영천에 당도한 그 날은 마침 최원도의 생일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집이 아버지를 바깥채 뒷마루에 내려놓고 한숨 돌리는데 최원도가 나왔다. 이리하여 둔촌과 천곡 두 친구는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천곡의 태도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반가와 할 줄만 알았던 천곡이 둔촌을 보자 크게 화를 내면서,

“망하러거든 혼자나 망할 일이지 어찌하여 나까지 망치려고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복을 안아다 주지는 못할망정 화는 신고 오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소리치며 당장에 내모는 것이었다.

물 한 그릇 달라는 청마저도 기절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천곡은 둔촌이 떠나자 둔촌이 앉았던 바깥채 뒷마루마저 뜯어내어 불태워 버렸다. 잔치 손님들이 그 연유를 묻자 역적이 앉았던 자리는 태워야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둔촌은 이런 박대를 받고 떠나면서도 천곡의 깊은 마음을 짐작했다. 천곡의 박대가 진심이 아니라 포박령이 내려진 친구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대한 수밖엔 없을 것이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한 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둔촌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산 속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과연 천곡은 날이 어둡자 둔촌을 찾아 나섰다.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었으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급히 둔촌이 간 쪽을 탐색하여 쉽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두 지기지우는 서로 끌어안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천곡은 둔촌을 집으로 데려가 다락방에 숨겼다.

이렇게 둔촌의 피신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것이 4년간이나 계속되었다. 둔촌 부자를 다락방에 숨긴 뒤 천곡은 그것을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자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식욕이 왕성해졌다고 속여 밥을 큰 그릇에 고봉으로 담고 반찬도 많이 가져오게 하여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그러다가 이 광경이 심부름하는 여종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큰일이었다. 천곡은 당황하여 여종을 불렀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두 집안이 별문지화를 당한다는 것을 간곡히 설명한 뒤 함구를 당부했다.

그러자 일의 중대성을 알게 된 여종은 상전을 안심시키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결하고 말았다. 이 여종의 이름은 '제비'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문으로 된 기록에는 연아(燕娥)로 되어 있다. 그 뒤 영천에 수색이 시작되어 신돈의 부하가 천곡의 집에 들이닥쳤으나 물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둔촌을 내치는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 등으로 무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또 큰일이 일어났다. 둔촌이 영천으로 피한 그 다음 해인 공민왕 18년(1369)에 아버지 당(唐)이 별세한 것이다. 아무 준비가 없었음은 물론 장례도 몰래 치러야 할 입장이어서 그 어려움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천곡은 자신의 수의를 내어다가 예에 어긋남이 없이 염빈을 하고 그의 어머니 묘 아래 장사지냈다. 영천의 나현에 있는 세칭 '광주이씨 시조공묘'가 바로 그 묘인 것이다.

이런 연유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력 10월 10일이 되면 나현에서는 양가가 같은 날에 묘제를 지내고 서로 상대방의 조상에게도 잔을 올리고 참배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때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충비 연아(제비)의 묘에도 양가가 모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리고 광주이씨 대종회에서는 천곡의 모부인 묘에 상석을 기증하였고, 1985년에 이를 다시 개수하는 등 양가의 우의가 오늘날의 후손에게도 감동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 현종 10년(1669)에 사림에서 “둔촌의 학문과 지절은 삼은(三隱)과 함께 일컬을 만하다” 하여 광주의 암사 강변(현재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1)에 구암서원(龜巖書院)을 세웠으나 고종 8년(1871)에 서원철폐령에 의해 헐리고 지금은 그 터였음을 알리는 비석과 주춧돌만 남았고, 강동구청에서 구암정(龜巖亭) 정자를 지어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둔촌동은 둔촌의 호를 딴 지명인데, 지금은 서울시로 편입되었지만 옛 광주 땅인 이 지역 일대가 광주이씨의 세거지로 둔촌동 이후에 크게 부각되었으며, 자손들의 학문과 관계 진출이 또한赫赫하여 광주이씨는 조선시대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다.

여인의 표상, 강정일당(姜靜一堂)

***** 강정일당(1772~1832)은 조선 후기의 여류문인. 본관은 진주(晉州), 초명 지덕(至德), 정일당(靜一堂)은 당호이다.

어릴 적 이름은 지덕(至德)으로, “여기 지극한 덕을 갖춘 사람이 있으니 네게 부탁한다”는 어머니의 태몽에서 따온 것이다. 어릴 적부터 성품이 정정단일(貞靜端一)하고 회로애락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며, 문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려 놀기를 삼가 조심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보였고, 허약한 체질이긴 하였지만 누구보다도 뛰어난 여공(女工) 솜씨를 지녀서 모든 어른들로부터 “천인(天人)과 같은 아이로구나!” 하는 칭찬의 말을 자주 들으며 성장하였다.

부모가 병이 들면 옷도 벗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약과 음식에 정성을 다하였고, 어머니의 바느질과 길쌈을 밤새워 도왔다. 여덟 살 때부터 《시경》, 《예기》 등에 나오는 경전 구절을 배웠다. 여자에게 학문을 가르치지 않던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예외적인 만큼 문학적 소양과 재덕을 겸비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정신적 스승인 아버지를 열 일곱에 여윈 정일당은 몸이 상할 만큼 슬퍼하며 3년상을 치렀지만, 바

느질과 배짜기로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일에 헌신하는 등 효심이 깊었다고 한다.

정일당은 20살 때, 6살 연하의 충주 선비 탄재(坦齋) 윤광연(尹光演 : 1778~1838)에게 출가한다. 그의 어머니 친안전씨는 전여충(全汝忠)의 딸로 아호를 지일당(只一堂)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시문(詩文)으로 며느리 강정일당과 화답이 될 만큼 여류문사의 자질이 뛰어난 훌륭한 집안이었지만, 가정형편은 아주 곤궁했다. 그래서 정일당은 가난한 친정에 계속 머물다가 3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이 가난하여 바느질로 생계를 이으면서도 남편을 도와 함께 공부하였다.

이후 18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정일당은 더욱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며 온갖 굶은일을 감당하게 된다. 게다가 5남 4녀라는 자녀를 모두 어린 나이에 잃는 참척(慘劫)의 슬픔을 당하고 양자를 둔다. 그러나 정일당은 의연했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자기 분수에 정해져 있으니 근심할 바가 못 됩니다. 다만 근심되는 것은 자기 도리를 스스로 다할 수 없는 데 있으니 무엇을 원망하며 허물하겠습니까?"라며 슬픔을 극복했다니, 보통 여자와는 다른 도학자적 면모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후 정일당은 남편의 공부를 독려하며 집안을 혼자 이끄는 한편 자신의 공부에도 매진한다.

정일당은 남편의 학문에 대한 점점과 채근도 자주 했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조언해 달라"는 남편의 부탁 때문이기도 했다. 남편 윤광연도 정일당의 조언을 반발 없이 수용했으니 그 역시 당시의 보통 남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던 듯하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외에도 공부 중 의문이 들거나 견해가 다를 때면 척독(尺牘)을 주고받았는데, 이를 보면 정일당은 선현의 생각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주체

적 시각으로 해석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된다.

과친에 살던 이느 해 흉년이 들어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가계(家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치산(治産)에도 힘써, 말년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에 서울로 이사하여 남대문 밖의 약현(藥峴 : 지금의 중구 중립동)에 살 때에는 남편의 호를 따서 지은 탄원(坦園)이라 병명한 정원이 딸린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청계산 동쪽 넓은 임야를 선조들의 위토로 사서 3대 조상의 묘소를 새로 옮겨 단장하기도 하였다. 또 형제와 친척들의 혼례와 상례를 대신 치러주기도 하였다.

현재,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 관리되는 수정구 금토동(金土洞) 산자락 묘역 전체가 모두 정일당이 생존시에 마련한 선영(先塋)으로 자신의 묘소도 이곳에 있으며 여성으로는 드물게 추모 사당도 가지고 있다.

정일당은 서화에도 능하여 홍의영(洪儀泳), 권복인(權復仁), 황운조(黃運祚) 등의 필법을 이어받았으며 특히 해서(楷書)를 잘 썼다. 사람들이 그의 남편에게 글을 청하면 대신 지어주는 일이 많았다. 정일당이 죽은 후 남편 윤광연은 “이제 공부하다 의심나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 허물은 누가 타일러줄 것인가?”라며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아내의 ‘유고문집’을 펴내었으니, 그 또한 범상한 일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게 탄생한 ‘정일당유고’에는 시 38수, 명 5편, 서 10편, 기 3편과 묘지명, 행장 등 정일당이 생전에 추구하고 쓴 글들이 오롯이 실려 있다.

언젠가 이직보(李直輔)가 정일당의 시 한 수를 보고 매우 칭찬하였는데, 이 소문을 들은 이후로는 자신의 저술을 일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저서로는 《정일당유고》 1책이 있다.

한(恨) 서린 망경대의 조견(趙狷)

1

***** 조운(趙胤)은 고려 말엽의 문신으로서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공신의 한 사람인 조준(趙浚)의 아우이다. 일찍이 형인 조준이 혁명에 가담하려는 것을 알고 눈물로써 말렸으나 형은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뒤 벼슬을 내렸지만 받지를 않았다. 그리고서 이름인 윤(胤)자는 견(犬)자가 들어간 견(狷)으로 고쳤으며 자를 종견(從犬)이라 스스로 불렀다.

“나라를 잃고도 죽지 못하는 개와 같은 것이며, 또한 옛 주인을 잊지 못하는 충실한 개와 같다”는 뜻이다.

그 후에 산 속으로 깊숙이 숨어서 멀리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경을 바라보며 소리 내어 통곡하며 지냈다. 조견이 광주군 연주면에 있는 칭계산 봉우리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지으며 송도를 바라보았다 해서 그 봉우리를 망경대(望京臺)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 태조가 그의 충절을 높이 여겨 옛 벼의 예를 갖추고 직접 산으로 그를 찾아갔으나 태조를 만나서도 질 한 번 하지 않고 말하기조

차 부끄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도 태조는 조건을 가없이 여겨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라.”하고, 석실을 지어서 거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운은 태조의 그와 같은 호의를 물리치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도망하여 양주(楊州)에 있는 송산(松山)으로 숨어 버렸다.

서하(西河) 임규(任奎)가 찬한 송산공 유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의 초휘는 윤(胤)이고, 여조(麗朝)의 거경(巨卿)인 정숙공(貞肅公 : 仁規)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공부에 힘썼고, 예의를 잘 지켰으며, 포은 정공(圃隱 鄭公) 몽주(夢周)와 더불어 친히 사귀었다. 장성함에 이르러 포은이 추천한 바 되어 화관(華貫) 벼슬을 하고 왕께서 글을 읽을 때 출입하여 지신사(知申事)란 벼슬에 이르렀다. 고려 말에 정치가 혼란하여 나라 일이 날로 이지러울 때에 공의 형님 준(俊)이 난을 일으킨 뜻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고 일찍이 눈물을 머금고 일러 가로되, “우리는 나라에서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흥하고 망하는 것을 국가와 같이 할 것이요, 또한 달가(達可=정몽주의 호)는 국가의 주석(柱石)이니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달가의 생각과 다른 길을 구한다면 이는 곧 국사(國事)를 방해하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재촉하는 일이라” 하며 그 언사가 심히 격절(激切)하니, 형님 준이 그 지조(志操)가 굳고 굳어 가히 앗을 수 없음을 알고 조정에 의논하여 공으로 하여금 영남에 출안(出按)케 하였다. 공께서 임을 마치고 조정에 돌아오니 조정의 의논이 모두 가로되, 일국이 병이 나서 이를 물리쳐야 하겠는데 이제 윤은 일을 다 마치지 않고 총총히 돌아온 것이라 이르고 또 다시 공으로 하여금 출안케 하니 이후로는 공이 내직에 있지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께

서는 영남루에 다시 올라 우국시(憂國詩)만 홀로 읊었다. 그러던 중 고리조의 운명이 다하였으므로 공이 황황히 두류산(頭流山)으로 온기하니 태조가 그 재질을 가석히 여겨 호조진서(戶曹典書)에 명하고 글로써 부르니 공께서 이를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고 답하여 가로되, “송산에서 고사리름 캐 먹는 것이 소원이요, 성인(聖人-임금)의 신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고, 이름을 건(狔), 자를 종건(從犬)으로 고치니, 이는 나라는 망하였는데 구차히 목숨만 살아있으니 개와 같고 또한 개도 주인을 연모하고 의리를 좇는다는 데서 취한 것이다. 두류산으로부터 청계산(淸溪山)으로 옮기니 이곳은 정숙공이 마음 편히 정양하던 곳으로 영당(影堂)을 모신 곳이다. 여기 와서는 때로 높은 봉우리에 올라 탄식도 하고 혹은 맑게 흐르는 물음 바라보며 통곡하고 때로는 구름 한 줄기가 송악(松岳)으로부터 청계에 연해 뻗치니, 이는 공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하늘이 감동한 바라 하여 사람들이 그 산봉우리를 망경대(望京臺)라 칭하고 그 후에 ‘망경대가(望京臺歌)’가 세상에 전하여 불려졌다.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어느 날 준(浚)과 더불어 수십 기의 말 탄 사람을 데리고 청계에 행차하여 봉영당(奉影堂)에 이르러 공과 만나기를 청하니, 공은 서편 방에 누운 채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끝내 명 받을 기색이 없으니 준께서 이불을 이루만지머 가로되, “나와 서로 보지 못한 지가 수년 인데 형제간의 그리운 정이 매우 섭섭하고 안타깝지 않은가” 하니 공께서 이불 속에서 답하여 가로되, “나라가 깨지고 집안이 망하였으니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습니다” 하니 준이 가로되, “군명(君名)이 이미 훈축(勳軸)에 들었으니 어찌 무군(無君)이라 하시고!” 하므로, 공께서 답왈, “훈축 명하(名下)에 시명을 누가 하였습니까?” 하니 준께서 슬퍼하시며 잠시 후 또 다시 “내 어찌 너의 절조(節操)를 더럽히겠느냐. 우리 형제 여섯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서로 의지할 사람은 나와 지네뿐인데 내 목전에서 자네가 화를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있겠는가? 자네가 견(狷)자로 개명한 것을 듣고 여러 공신들이 공훈을 집행함에 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가히 알리리다” 하고, 인하여 태조께 나가 고하되, “신의 아우의 성격이 굳고 좁아 한 번 먹은 마음은 변치 않으니 막무가내입니다” 하였다. 태조 가로되, “나를 아니 보고자 함은 우리 조정에 신하로시의 일을 아니할 의사이나 나로 더불어 전에 친구로시의 사궐이 있으니 주빈지례로 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니 죽이 명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이불을 걸고 손을 잡고 나오니 태조가 준을 보고 명하여 앉은자리에서 후면으로 피하게 하였다. 이는 아우와는 주빈의 격으로 형과는 군신의 격으로 서로 보는 것이 예외상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태조가 공과 더불어 서로 읍하고 마주앉아 가로되,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이 어찌 백성의 복이 아니 되리요” 하니 공께서 눈을 쓰고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북면(北面)하여, “어조(麗朝)의 신하로 여조를 섬기던 기억을 하십니까?” 하고 전의 일을 말하면서 그 말투가 분손하였다. 태조가 웃으면서 그를 용서하고 크게 탄식하며 가로되, “조건의 지조가 금석과 같이 굳으니 가히 앗을 수 없다.” 하고 말을 물고 내려오며 가로되, “청계 일대를 조건을 위하여 봉지로 내리고 그 사이에 석실(石室)을 지어 그 정질을 숭표(崇表)하라” 하였다. 지금 원동동에 있는 석축이 곧 그 유지이다. 공께서 이 석실은 새로 된 왕의 명으로 지은 것이니 구신(舊臣)이 살바 아니라 하고 즉시 양주 송산(楊州 松山)으로 옮기고 혹 가다가 송도에 들르면 선죽교(善竹橋)며 만월대(滿月臺)의 터를 돌아다니며 성곽이 퇴락한 것을 보고 탄식하고 비장히 여기며 한숨을 쉬고 나라가 망한 한탄에 발을 굴러 땅을 치고 흐느껴 운며 참을 수 없어 돌아가니 남은 백성이 보는 자가 모두 슬피하였다. 공이 송산(松山)이라 스스로 호를 지은 뜻은 ‘소나무는 마르지 않고 사시 푸르며, 산은 제자리를 옮길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

이고, 고리의 서울 송악(松岳)을 잊지 않는다는 절조(節操)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공이 자손에게, “조선조에는 벼슬을 하지 말고 여조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훈계를 남기고, 또한 “내가 죽은 뒤에 묘비에 고려안렴사(高麗按廉使)라 새기고 조선개국공신호(朝鮮開國功臣號)는 새기지 말 것”을 명하고, 또 다시 두 아드님 이름을 석산(石山)과 철산(鐵山)으로 개명하니 이는 곧 굳은 절개의 의미를 가르친 것이다. 공이 서거하며 세종(世宗) 임금이 그 부음을 듣고 심히 애통해 하며 둔촌근록(遁村近麓)에 장례하라 명을 내렸다. 모든 자제들이 유명(遺命)을 공이 지키지 못하고 조선조에서 내린 벼슬 이름을 새겨 벼슬 세웠더니 그 날 밤에 뇌성벽력이 나서 그 벼슬 부셨는데 조선에서 내린 벼슬 이름 있는 데까지만 부러져 비리고 조공지묘(趙公之墓)란 네 글자만 남아 있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현재는 公之墓 세 글자만 남아 있다).

공이 고려 왕실이 장차 망할 것을 짐작하고 개연히 일어나 회복할 의지를 품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니 수백 명이 앓을 만한 넓은 석굴이 있어 공이 잠시 그 굴 옆에서 쉬었더니 약간 어두워질 무렵 한 짐승 밭 형상을 한 사람이 호랑이와 표범과 사슴과 노루 등 수백 마리를 앞에 뚫고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는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여조가 망하는 것을 가히 구하기 어렵도다” 하고 통곡하며 돌아왔다.

공이 지신사(知申事)의 직부로 계속하여 영남에 갔다. 조정에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조선(朝鮮)이 천명(天命)을 받았으니 공의 나이 42세 때였다. 통곡하며 두류산에 피해 숨었다가 광주 땅 청계산에 옮겨 살았으니 그곳은 삼세영정(三世影幀)을 걸어 모신 봉영루(奉影樓)가 있고 그 누 옆에 정숙공이 임금을 축원하던 전이 있으며, 절 뒤에 공이 송경을 바라보던 망경대(望京臺)가 있다. 태조가 친히 나와 석실을 짓도록 명하였던 터가

지금에도 원통동(圓通洞)에 남아 있다」하였다.

조건의 역사가 남은 곳은 청계산 상봉의 망경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의 묘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사당,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정절사(旌節祠),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마을에 송산사(松山祠)가 있다. 조건과 이백유(李白由)는 동서지간이다. 그래서 이백유와 조건은 여수동에 고이 잠들었는지 모른다.

남이흥(南以興) 장군의 애국충절

1

충장공 남이흥의 자는 사호(士豪)인데, 임인년에 무과에 올랐다.

정묘호란 때 안주성에서 전사하면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나로 하여금 마음대로 군사를 훈련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강한 적을 만나 죽는 것이 진실로 내 일이지만, 이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 충성을 애처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남이흥 장군의 아버지 또한 충신이다. 아버지 남유(南瑜)는 무과에 올라 나주(羅州) 목사가 되었다. 정유년(1597) 난리에, 이순신과 함께 누선(樓船)을 타고 왜적을 쫓아 대승하였으나, 탄환에 맞아 죽었다. 충장공이 분연히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 글만 읽어서 무엇하랴" 하고, 마침내 활쏘기를 배웠다.

어릴 때 기상이 보통 아이들과 달라, 장난치고 놀 때에 혼자 높은 곳에 앉아서 여러 아이들을 좌우로 지휘하고, 조금이라도 영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주었다. 공의 외사촌 형 되는 두세 아이가 우물가에 모여

서 놀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서 빠지려 하였다. 공이 급히 그 소매를 잡고 두 발을 우물 돌에 버티고, 큰 소리를 지르니 집안 사람들이 놀라서 구하았는데, 여러 아이들은 곁에 있으면서 웃으며 보고 있기만 할 뿐이었다. 외조부 판서 유공(柳公)이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가 다른 날 위태한 것을 건지는 좋은 재목이 될 것이다” 하였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 공의 아버지가 좋은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직 달리는 것에 길이나 있지 않았었다. 공이 매일 밤중에 타고 달렸더니, 말먹이는 하인이 말렸다. 이에 공은 말하기를, “마땅히 전쟁터에서 쓰일 것이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웃더니 여름에 왜적이 들어오자 그 아버지가 임진강 싸움에서 그 말 덕분에 죽음을 면하였다.

안주(安州)에 있을 때 중국 사람으로서 와서 사는 자들이 수천 호였는데, 공이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니, 중국인들이 사랑하며 두려워하였는데, 아이들이 울면 반드시, “남영감”이라고 하여 그치게 하였다. 항복해 온 왜인 백여 명이 역시 안주에 있어 오랫동안 공의 은혜를 입었고, 그들이 또 이관의 심복이었는데, 몰래 서로 단속하기를, “우리 남영감은 다치지 않도록 하자” 하였다.

공의 주량은 아주 대단하였고, 친손과 외손이 60여 명이었다. 공은 천성이 호걸스럽고 준수하며, 국량이 넓고 용모가 풍후하여, 바라보면 웅장한 모양이 있었다.”

1) 연려설기술 제29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윤치장(尹致章) 의병장

21

***** 윤치장(1876~1971) 의병장의 본관은 남원이고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재욱(在燾), 금토리(金土里) 94번지에서 출생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과천, 대왕, 낙생, 언주 일대의 의병 360여 명(혹은 70여 명)을 규합하여 이 지방의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12월경(음) 광주군 목동(墨洞)에 주둔한 일본 기병대와 교전하였다.

1908년 2월에는 중군장 오사과(吳司果) 외 2명으로 하여금 광주군 언주면(彦州面 : 현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승호(朴勝浩)에게서 군사금 1백 원을 거두고 그를 의병에 입대케 하였다. 또한 그에게 40원을 주어 경성에 가서 탄약을 구입해 오도록 명하고 허위, 이강년 등과 합세하여 경성 공격을 준비하면서 현 미아리 고개 부근에서 은신하던 중, 동년 10월 11일 당시 의형제로까지 지내던 모씨가 왜놈과 결탁하여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왜경에게 체포되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윤치장 의병장이 용의주도하게 일본군을 공격하여 그들을 매우 난처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총독부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 중, 일본 국왕 즉위의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일본국 공주 출생의 특사로 15년으로 감형되어 거의 만기를 채우다가, 1923년 다시 왕자 출생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출감 이후 광복이 되기까지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독립운동에만 전념하였고, 사망 후 정부에서는 그 공훈을 기리어 1983년에는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그는 8세 때 한문 시당에 입학한 후 19세가 되기까지 한문의 전과를 수료하였는데, 문자를 터득함에도 남들보다 항상 앞서서 끝내는 비범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면서도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젊었을 때에는 답장을 훌쩍 뛰어 넘기도 하였고 80세 무렵에도 쌀 한 가마니를 지고 다녔다고 전한다. 그가 남긴 '계자제시(誠子弟詩)'에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부지런히 살 것을 훈계하고 있어 그의 올곧은 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묘소는 금토동에 있다.

벼슬의 뜻을 버린 이통(李通)

15

***** 이통(1556~1620)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천구(天衢)이다. 1614년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피살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가족을 데리고 광릉(廣陵 : 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마을에 숨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다.

청빈한 생활의 고통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건만 그는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자제들을 훈계하길 “너희들은 혹시라도 벼슬길에 뜻을 두지 말라” 하였다. 낡은 것에 황소를 타고 들밭을 노닐기도 하고, 거문고를 타거나 시가를 읊는 등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다. 일찍이 월사이정구, 서호 홍식 등은 글과 술로써 맺은 친구들로 그들은 자주 찾아왔으나 그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그가 말하길 “우리 친분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비의 발자취가 재상의 문턱에 가까이 함은 좋지 못하다” 하니 사람들이 공경하고 탄복하였다.

사후 여러 차례 증직을 받아 영의정에 추증되고, 덕풍군(德豊君)에 봉해졌다. 묘소는 현재 수정구 고등동 산 37-1에 있다.



이윤덕(李潤德) 장군의 무용담

***** 명종 임금의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술을 사열할 때의 이야기이다.

무술 사열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오려고 말에 올라 두어 걸음쯤 갔을 때 말이 갑자기 놀라 미친 듯이 날뛰어 말을 이끌던 사람들이 모두 넘어지며 고삐를 놓쳐 버렸다. 수십 걸음쯤을 가다가 임금의 몸이 가운데 거의 떨어지려고 하였는데 선전관(宣傳官) 이윤덕(李潤德, 1529~1611)이 말을 막아서고 한담(韓談)과 조수흥(趙守興) 등이 임금의 몸을 안아 내렸다.

임금이 길 왼쪽에 머물면서 의관(醫官 : 의사)에게 병하여 맥을 짚어 보고 약을 바치게 하였다. 안현(安瑗) 등이 분안하니, 별 상치는 없다고 답하였다. 드디어 연(輦 : 임금이 타는 가마)을 타고 돈의문(敦義門)을 거쳐 환궁하였다.

이때에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위아래가 모두 경황이 없었다. 임금이 길에 그대로 나앉았는데도 한참 뒤에야 비로소 장막을 치고 일산(햇빛을 가리는 큰 양산)을 폈으며, 주위의 잡인들이 임금 가까이까지

이르러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潛邸, 임금이 되기 전에 살던 집) 때부터 말을 사랑하였고, 또 말의 좋고 나쁨을 알았다. 행차할 때마다 질주하듯이 물기를 좋아하여 어기(御駕)를 호종하는 문무(文武) 관원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야 할 정도였다. 신하들이 그 잘못을 말하였는데도 고치지 못하였다.²⁾

이윤덕 장군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득부(得夫). 상호군(上護軍) 이수훤(李秀萱)의 아들이며, 증승지(贈承旨) 윤희정(尹懷貞)의 사위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전라도 병사를 지냈으며, 1564년(명종 9) 함경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이어 경상도와 평안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 관서부원수(關西副元帥) 등을 지냈으며, 1594년(선조 27)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이르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둔촌 사당 앞쪽에 있는데, 비석의 머리 부분 양쪽으로 용의 머리를 새긴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둔촌 이집 묘역과 함께 경기도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었다.

2) 명종 14년 기미(1539, 가경 38) 9월 3일(신미)

무술이 뛰어났던 이함(李菡)

이함(李菡, 1470~1534)은 조선 전기의 무신, 본관 덕수(德水), 자는 자실(子實), 시호 해풍군(海豊君), 풍성군 이의번(李宜蕃)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맹스럽고 활쏘기에 능하였으며 20세에 무재(武才)로 뽑혀서 궁중을 수비하는 장교가 되었다.

1524년(중종 19) 북쪽의 오랑캐들이 여연(閔延) 등 세 고을에 들어와 살고 부락이 번창하니 그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출정하였다. 그러나 적들이 군사를 매복시켜 그를 포위하고 공격함으로 집전하여 싸울 때, 그는 적 3인을 쏘아 말에서 떨어뜨리고, 넷째 말을 쏘려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쏘지 못하고 말을 돌려 피하다 적이 뒤에서 칼로 그를 쳐서 귀뒤를 다쳤다. 이어 급하게 포위망을 뚫고 빠져 나오는데 큰 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 말에 채찍을 가해서 뛰어 넘어 왔으나 적이 이곳에 이르러 이를 넘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오히려 적 세 사람을 사로잡아 왔고, 몸도 두어 군대 상처를 입고도 쇠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이때 그는 육십(耳順)의 나이에 다가온 시점이었다. 그

럼에도 그렇게 싸운 모습에 뛰어난 재주라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탄복하였다.

1534년(중종 29) 순천부사 재임 중 병으로 향년 65세에 죽으니 임금이 예조좌랑 김기(金璣)를 보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때 제문에 이르길 “그대의 당당한 재질과 험결차고 용맹스런 바탕은 일찍이 궁술과 마술을 익혀서 사람들이 그 무략(武略)을 받들었다. 나라가 한 때 불운을 만나서 임금을 새로 세우는 데 부익한 공적이 있었음은 산하를 두고 맹서한 것이어서 그 이름이 충훈부에 올랐도다. 무릇 오래도록 장수를 하였으며 영안(永安)하고 순박한 복을 누리도다” 하였다.

이함은 불천지위(不遷之位 : 큰 공훈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의 명을 받았다. 고등동(등자리) 산 13번지에 묘소가 있다.



활쏘기의 명인, 이효백(李孝伯)

신종군 이효백(李孝伯, 1433~1487)은 활쏘기의 명인이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 희삼(希參), 시호 공간공(恭簡公).

궁술(弓術)이 비상하여 1459년(세조 5) 임금이 직접 참가한 모화관(慕華館)의 시사(試射)에서 모두 30발의 화살 중 29발을 과녁에 명중시킨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세조의 특명으로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그 뒤 정의대부(正議大夫 : 종2품 종친계)에 오르고 1467년(세조 13) 신종군(新宗君)에 봉하여졌다. 같은 해에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키자 세조가 친정(親征)을 떠날 때 선봉장으로 내정되었다.

이듬해에는 부과에 급제하여 품계를 더하였다. 종친(宗親)은 진례에 따라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세조가 그해부터 특별히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예종이 즉위한 후에는 임금의 명으로 착호갑사(捉虎甲士)와 검사복을 거느리고 광주 일대의 호랑이 사냥을 나가기도 했다. 아우 효숙(孝叔), 효성(孝誠), 효창(孝昌)과 함께 4형제가 모두 활을 잘 쏘았다.

이효백은 풍수지리에도 밝았는데 현재 그의 묘자리는 자신이 직접 정한 곳이라 한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갯에 달린 옥관자가 떨어져 없어졌는데 훗날 그가 죽은 후 묘자리를 쓰려고 할 때 그 옥관자가 나왔다고 한다.



일에만 열중한 송맹경(宋孟璟)

※※※※※ 명종 2년(1547) 8월 21일, 의주 목사 송맹경(宋孟璟)의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임금에게 아들의 벼슬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평소 공직에 몰두한 송맹경이 의주 목사로 나가게 되어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어머니 광주이씨(李氏)가 건의하여 스스로 노병(老病)임을 말하고 맹경을 체직시켜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임금은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정순봉이 의논드리기를, “의주(義州)는 곧 서방(西方)의 중요한 곳으로서 적의 방어를 맡길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 그 어머니의 진정(陳情)에 따라 나라의 서문(西門)을 방어하는 책임자를 갑자기 바꾼다면, 관방(關防)할 일이 매우 많은데 책임자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있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정순봉의 의견에 따라 송맹경의 어머니는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³⁾

3) <명종실록> 1547년 8월 21일

임금이 내려준 명품 선물

***** 이경석(李景奭, 1595~1671) 선생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 상보(尙輔), 호 백헌(白軒), 쌍계(雙溪),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 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알성문과(謁聖文科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한 뒤 실시한 문과)에 급제한 이후로 현종 때까지 3대에 걸쳐 50년 가까이 임금을 모시면서 병자호란 등의 국난 극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1641년(인조 19)에는 청나라에 불모로 가 있던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이사(貳師)가 되어 김상헌(金相憲)과 함께 척화신(斥和臣)으로 심양(瀋陽)에 잡혀가 1년간 봉황성(鳳凰城)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현지에서 청나라와의 어려운 외교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러나 이듬해 엄금하던 명나라 선박이 선천(宣川)에 들어온 일이 청나라에 알려지자, 그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라는 청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서북지역으로 돌아왔으나, 조선의 관련 사실을 두둔하느라 청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영부조용(永不調用 : 영구히 등용되지 못함)의 조건으로 귀국해, 3년 동안 벼슬에서 물러났다.

1646년(인조 24)에 효종의 북벌계획이 이언표(李彦標) 등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져 또 사문사건(査問事件)이 일어나게 되었다. 청나라의 사문사는 남별궁(南別宮)에서 영의정 이경석과 정승, 판서 및 양사(사헌부, 사간원)의 충신 등을 모두 세워놓고 북벌계획의 진말을 조사, 죄를 다스리고자 해 조정은 큰 위기를 맞았다.

이에 이경석은 끝까지 국왕을 비호하고 기타 관련자들까지 두둔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국왕과 조정의 위급을 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 사신들로부터 '대국을 기만한 죄'로 몰려 극형에 처하게 되었으나, 효종의 구명운동으로 간신히 목숨만은 부지하여,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위리안치(圍籬安置 : 가시 울타리 속에 갇힘)되고, 다시 영부조용의 명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1년 남짓 광주(廣州)의 판교(板橋)와 석문(石門)에서 은거하였다.

그러다가 1653년(효종 4)에 겨우 풀려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며, 1659년(현종 즉위년)에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된 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668년(현종 9)에는 신하로서는 최고의 영예로 임금으로부터의 존경과 신임의 표시인 제장(几杖)을 받았다. 이때 임금은 지팡이와 의자를 내려 주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지팡이와 의자, 그리고 잔치를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보물 제930호로 지정되었다.

묘소는 청계산의 서남쪽 구릉인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51, 속칭 대감능골에 있으며 경기도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 해전 승리의 공신, 한효순(韓孝純)

한효순(韓孝純, 1453~1621)의 본관은 청주,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이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순식간에 왜군들이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공격을 해 왔다. 한효순이 경상좌감사가 된 후로는 항상 자주색 도포를 입고 나각(羅角)을 울리며 감사의 위엄을 성대하게 배풀어서, 각 고을에 주둔한 왜적이 성에 올라 가리키며 바라보아도 효순은 태연히 겁내는 기색이 없었다. 이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한(漢)나라 관리의 위의(威儀)를 다시 보겠구나” 하였으며, 이 때문에 도로가 비로소 통하였다.

함창당교(咸昌唐橋)에 있던 왜적이 좌·우도(左右道)의 요해지를 점령하고 그 세력이 심히 성하였기 때문에 효순은 안동에 나가 주둔하고 병사 박진(朴晉), 우후(虞侯) 권응수(權應銖), 밀양부사 이수일(李守一) 및 의병장 정대임(鄭大任) 등은 모두 안동과 예천 등지에 모이는 한편 효순이 이수일을 대장으로 삼아 만호(萬戶) 민정홍(閔廷鴻) 등을 거느리고 용궁(龍宮)을 지키게 하였다. 또 안동부사 우복룡(禹伏龍)을

도지휘사(都指揮使)로 삼아 예천에 진을 치고 정예군사 2천 명을 뽑아 응수(應銖)에게 주어 기회를 틈타 밤에 습격하게 하고, 스스로 십여 고을을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의성(義城)·안덕(安德) 등지에 주둔하여 인동(仁洞)에 있는 왜적을 엿보았다. 병신년에 김록(金玔)을 대신하여 부찰사(副察使)가 되었다.

1596년(선조 29) 12월에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장계에 의하여, 효순이 명을 받아 해군의 일을 전적으로 관할하고, 삼도 수군(三道水軍)의 격군(格軍 : 뱃사공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과 군량을 주야로 조발(調發)해서 보내는 동시에 병선과 기계를 급히 수선하게 하여 이순신이 적을 방어하는 일을 도왔다.⁴⁾

한효순은 《신기비결(神器秘訣)》을 저술하였는데, 대포에서 조총(鳥銃)·천자총(天子銃) 등에 이르는 각종 화기의 제작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연장 및 화약·약선(藥線)·탄환 등과 화기 취급상 주의할 점 등이 수록되었다. 또한 화기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도 방법을 모른다면 전쟁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한효순의 묘소는 서현동에 있다.

4) 연려실기술(燕巖室記述) 제주 왕해군 고사본말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이경류(李慶流)

7

*****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조선 땅 천지를 노략질하면서 다닐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왜군들이 수내동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수내동 마을 한구석에는 상주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이경류(1564~1592) 선생의 무덤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말을 타고 이 무덤을 지날 때면 꼭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왜군들은 이런 예의도 모르고 그냥 선생의 무덤 앞을 지나치려 하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말의 발이 땅에 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채찍질하고 말을 끌어 봐도 말발굽은 땅에 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이에 화가 난 왜군들은 마침내 자신이 타고 온 말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 죽게 하였다.

그런데 전쟁 중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말이 없으면 그 군대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말을 모두 죽였으니 일본 군사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군은 패망하고 임진왜란

은 우리 조선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이처럼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사건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중앙공원 안에는 이경류 선생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는 선생의 죽음을 알린 애마의 무덤이 있다.

이경류 선생의 본관은 한산(韓山), 호는 반금(伴琴), 자는 장원(長源)이다. 이색(李穡)의 9대손이며, 종묘서령(宗廟署令)을 지낸 이지숙(李之菽)의 손자, 평난공신(平難功臣) 의간공(懿簡公) 이증(李增)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상주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상주판관 권길(權吉)과 함께 전사하였다. 사후 홍문관 부제학에 추증되었고, 상주의 충신지사단(忠臣義士壇)에 제향되었다. 1727년(영조 3) 충신정려비가 세워졌는데, 비문은 이재(李縉)가, 행장(行狀)은 이집(李集)이 지었다.

애초에 이경류 선생은 문관으로서 직접 전투에 참전해야 하는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었기에 장수들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아도 누가 비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왜군과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선조 임금에게 비웃을 바친 권징(權徵)

1

***** 임오년(1582)·계미년(1583) 사이에 동요(童謠)가 있기를, “나라를 어지럽게 할 자는 동인이요, 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서인이다” 하였는데, 이는 다만 동이(東夷)와 서융(西戎)으로만 알고 근심하였더니, 근래에 시사(時事)를 보니, 동인이 정권을 잡아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서인은 정권을 잡아 나라를 욱되게 하였다.《속잡록》

1592년 임진왜란이 나기 전 해의 민간(民間)에, “경기감사 우장직령(京畿監司雨裝直領)”이라는 동요가 있었는데, 임진년에 이르러 임금이 서쪽으로 파친(播遷=임금이 피난 가는 것)할 때에, 창황(蒼黃)하게 비를 무릅쓰고 떠났기 때문에 우비를 갖출 겨를이 없었다. 사현(沙峴)을 넘었을 때는 비가 더욱 심하였는데, 경기감사 권징(權徵)이 따라와 우비와 직령을 올려서 임금이 비로소 입고 행차하였으니, 동요가 이때 이르러서 과연 징험했다고 한다.

임금이 돈의문(敦義門)을 나와 사현(沙峴)에 이르자, 동방이 차차 밝았다. 돌아보니 성안에 불이 일어나서 연기와 불길의 이미 공중에 솟구쳤다. 이는 난민이 먼저 장례원(掌隸院)과 형조(刑曹)를 불태웠으니

거기에는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문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내탕고에 들어가서 금과 비단을 다투어 가져가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을 태워서 하나도 남김이 없었으니 역대의 보물이며 문무루(文武樓)에 간직한 서적이며 춘추관(春秋館)에 있던 각종 실록(各朝實錄)과 다른 창고에 간직했던 역사기록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다 잿더미가 되었다.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조존세(趙存世)·박징현(朴鼎賢)·임취정(任就正)·김신어(金善餘) 등이 또한 본관(本館)에 있던 사초(史草)를 불태우고 성을 넘어 도망하였다. 난민이 또 왕자 임해군(臨海君)·전병조판서 홍여순의 집에 불을 질렀다. 사현을 넘어 석교(石橋)에 이르자 비가 더욱 심한데 일행이 바빠 서쪽으로 향하여 달아나면서 질서가 없었으며 서로 부르짖었다.

임금이 벽제(碧蹄)에 이르자 모두 젖어서 갈 수가 없었을 지경이었고, 혜음령(惠陰嶺)을 지나자 큰 비가 물 퍼붓듯 하였다. 궁인들은 모두 약한 말을 타고 푸르고 흰 물건들로 머리와 닳을 가리고 울부짖으며 따라갔다. 마산역(馬山驛)을 지나자 어떤 사람이 발두렁에 있다가 대가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나라에서 우리를 버리고 가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꼬” 하였다. 《재조번방지(再造蕃邦志)》

선조 임금에게 비웃을 전해 준 경기감사 권징(1538~1598)의 묘소가 수정구 금토동에 있다.

이보다 앞서 의주에서는 옛날부터 서로 전해 내려오는 동요가 있기를, “막좌리들이 강물에 다 떨어지면 백마(白馬) 장군이 마이산(馬耳山)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른바, 막좌리들이란 곳은 바로 의주 서쪽 성 밖에 있는 땅인데, 성 안 사람들이 여기다가 농사짓는 곳으로 인산보(麟山堡)와 직접 연결하였으며, 마이산(馬耳山)은 통군정(統軍亭)

과 마주 보고 있으니 중국 지경이다.

이 무렵 압록강(鴨綠江)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와서 큰 들을 다 깎아 먹고 의순관(義順館) 문 앞이 도구(渡口)가 되었는데, 중국 명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강을 건너와서 원조함에 미쳐서 그가 타고 온 말이 곧 흰 말이었으니, 그 동요의 말대로 되었다. 《재조변방지》⁵⁾

5) 연려실기술 별집 제15권 천문전고(天文典故) 동요(童謠)

세조 임금과 이극감(李克堪)

세조 7년(1461) 7월 25일,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보고, 목장을 설치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호조참판(戶曹參判) 이극감(李克堪, 1427~1465)에게 농담으로 이르기를, “경은 파리를 잡을 힘이 있는가?” 하니, 이극감이 대답하기를, “신이 진실로 힘은 없으나, 국가의 큰 일을 능히 해 낼 수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상긋이 웃고 곧 이극감으로 도진무(都鎭撫)·사옹제조(司饗提調)를 삼았다.

이극감은 사람됨이 살이 많고 힘이 없으며 몸이 솟아나고 술개의 어깨인데, 임금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극감이 서연(書筵)이 되어 일찍이 세자(世子)에게 도덕(道德)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어깨 솟은 것만 전했을 뿐이다”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제조(提調)를 제수하며 말하기를, “소반과 밥그릇을 듣게 하여, 그 어깨를 펴려고 한다” 하였다.⁶⁾

6) 세조 7년(1461) 7월 25일

사용제조(司饗提調)란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사용원(司饗院) 소속의 벼슬아치로 4명의 제조가 있었다.

이극감은 둔촌 이집의 증손자요 탄천 이지직의 손자, 증 영의정 이인손의 차남이다. 세조가 세자의 스승을 맡기며, “경은 세자의 스승이라 내가 믿고 중시하는 바이다”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7 탄천전투에서 전사한 최진립(崔震立)

***** 최진립의 자는 사건(士建)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계종(繼宗)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갑오년에 문과에 올라,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이 되었으며, 벼슬이 공조참판·경기수사(京畿水使)에 이르렀다. 69세 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탄천에서 싸우다 순국하였다. 병조판서로 추증되었고, 시호는 정무(貞武)이며, 정려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해에 공주 영장(公州營將)이 되었다. 그 후 두 달 만에 남한산성이 포위되었는데,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군사를 거느리고 근왕(勤王)하면서, 공의 나이가 많은 것을 민망히 여겨 황박(黃玊)으로 대신하게 하니, 공이 강개하여 말하기를,

“내가 늙어서 장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능히 갈 수는 있소” 하고,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니, 좌우에서 감동하였다. 험천(險川)에서 패전하였는데, 공이 곳곳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활을 쏘니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화살이 다 되자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 없다. 나는 여기서 한 치도 떠

나지 않고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자리를 표시하여 두라” 하였다. 일이 평정된 후에 여러 아들이 그곳에서 공의 시체를 찾았는데, 화살이 온몸에 맞아 고슴도치와 같았으나, 얼굴은 살아 있는 것 같았다.⁷⁾

협천(險川)은 곧 탄천의 상류인데, 분당과 용인의 경계지역 일대이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고, 전사자의 시신이 들판을 덮어 말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최진립의 후손들이 오늘날 경주 최부자 집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병자호란 때, 광주의 쌍령리에서도 우리 군사가 많이 전사했는데, 훗날 역대 임금들은 신하를 보내 협천과 쌍령리에서 전사한 이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고, 때로는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지어 보내기도 했다. 쌍령리의 정충묘(精忠廟)는 현재까지도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협천에는 기우제단*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기우제단(祈雨祭壇) : 숲 안, 역말 주민들이 가뭄 때에 기우제급 지내던 곳으로 영랑산 정상에 있다.

7) 연리실기술, 인조조 고서본당

7 청계당과 벽암대사

***** 청계당은 벽암대사 김각성(金覺性, 1574~1660)의 공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남한산성 내에 건립되었던 사당(祠堂)이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풍마우세(風摩雨洗) 되어 지금은 그 자취도 알 길 없고 전설만 남아있다.

벽암은 선조(宣祖) 7년에 출생하여 현종(顯宗) 1년 세상을 뜬 조선시대의 명승(名僧)으로 임진왜란 때는 스승과 더불어 승병(僧兵)으로 해전에 참전하였고, 그 뒤 광해군(光海君)의 부름을 받아 봉은사(奉恩寺)의 주지가 되었으며,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스승이 타계한 뒤에는 그 자리를 물려받아 지리산에 법당을 세우고 불교도의 종사(宗師)가 되었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또 다시 의승병(義僧兵) 3천명을 모집하여 항마군(降魔軍)이라 이름하고 분전하였다. 호란이 끝난 뒤에는 지리산에서 후진양성에 주력하였다.

각설하고, 남한산성에 그의 사당이 세워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벽암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가에 귀의하지 않으면 단명할 운명

이라 하여 14세에 금강산에 입산, 명승(名僧)의 문하에서 불도와 무술을 연마하였다. 그리고 광해군 때 무과(武科)에 응시하였는데 과거장에서 그는 당시 조선의 실정을 염담하기 위하여 잠입해 있던 청(淸)나라의 장수 용골대(龍骨大)와 최종까지 겨루어 장원급제하고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제수 받았다.

그러나 점점 비뚤어지는 광해군의 폭정에 실망하여 벼슬을 내놓고 다시 금강산에 입산하였다. 그리하여 수도생활을 하던 중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고 어느 날 꿈 속에서 벽암은 부처님의 원몽(願夢)을 보게 되었는데, 이 땅에 머지않아 괴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사직을 구하도록 성벽을 쌓으라는 것이었다. 그 싸움이란 곧 병자호란에 대한 예언이었다.

잠깐 놀라 잠에서 깨어난 벽암은 그 길로 산을 내려와 인조를 배알하고 머지않아 북쪽에서 오랑캐의 무리가 우리나라에 쳐내려올 테니 팔도의 성곽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을 고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인조의 하명으로 남한산성 축조현장에 와서 전국의 승군을 이끌고 3년 만에 성을 쌓아 완성시켰다. 이에 조정에서는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岡教圓照國一都大禪師)의 직함과 의발(衣鉢)을 하사하여 그 공을 치하하였다.

마침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벽암은 의승(義僧)을 모집하여 분연히 일어섰다. 그런데 부평(浮評)벌에서 적병과 크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의 일이다.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진황이 불리하게 되자 벽암은 단신으로 적진에 나아가 양군의 대장끼리 승부를 겨루자고 외쳤다. 이때 군졸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난 적장은 다름 아닌 용골대였다. 두 사람은 용골대의 제안으로 다음날 싸우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 보니 적장 용골대는 지난날 벽암이 과거장에

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그 보답으로 오늘은 이만 물리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나가 버리고 약속한 싸움터에는 없었다. 그 후에도 벽암은 도처에서 적병을 물리쳤으나, 전세가 날로 불리해져 인조 임금의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자 그 길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러한 대사(大師)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세 사람들이 청계당(淸溪堂)을 지었다는 것이다.

***** 김취는 성남에 광산김씨의 터전을 닦은 고려 말의 은둔 선비 김약시(金若時)의 아들이다. 과거에 합격하여 1426년(세종 9) 지상원군사(知祥原郡事)가 되었다.

이때 경상도 성주(星州) 고을은 아전들이 세력을 부리고 백성들이 사나워서 관청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자 그 고을을 장차 폐기하려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 고을을 제대로 다스릴 사람을 구하기가 꼭 힘들었다. 그러나 임금이 특명으로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고을을 맡을 만한 사람을 뽑게 하였는데 그는 18세의 나이로 거기에 뽑혔다.

왕이 김취가 너무 어린 것을 보고는, “그 고을은 본래 다스리기 어렵기로 인켄어진 고을인데 너는 가서 어떠한 정치로 다스리겠느냐?”고 묻자, 그는 “수령은 형벌을 마음대로 못하므로 아무리 나쁜 큰 죄를 지은 죄수일지라도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한 후 처리하자면 시간이 지체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틈에 간교한 피를 부리게 되므로 그들을 놓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저에게 전하께서 생살권(生殺權 : 살리고 죽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고 대답하자 왕이 특별히 허락하였다.

그는 부임한 지 7일 만에 포악한 사람 7명 가량을 죽이니 온 고을이 이때부터 수령을 두려워하고 한 달이 채 못 되어 진압되었다. 아전을 다스릴 때에는 흠을 구워 만든 도기로 갓끈을 만들어 매도록 하여 아전들로 하여금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하니 이때부터 관리들이 복종하고 감히 우러러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질서가 이때부터 분명해지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러나 그의 명은 매우 짧아서 나이 26세에 요절하였다.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금광동(金光洞, 신구대학 자리)에 있었는데 후에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로 이장하였다.⁸⁾

8) 성남인문지

조종도(趙宗道)의 대장부 기개

1

***** 중 이조판서(吏曹判書) 조종도(1537~ ?)의 자는 백유(伯由)요,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어머니 강씨(姜氏)는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묘소가 있는 대사성(大司成) 강로(姜老)의 손녀이다.

7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고, 10세에는 은군자(隱君子) 정두(鄭斗) 선생에게 배웠는데, 선생은 매우 뛰어난고 훌륭한데 숨어 살아 세상에서 아는 이가 없었다. 공은 남보다 훨씬 총명하여 경사(經史)나 제자(諸子)를 한 번만 읽으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 22세(1559)에 처음 안기도찰방(安奇道察訪) 벼슬에 임명되었다. 이때에 일본이 현소(玄蘇)를 보내왔다. 현소는 시(詩)로 우리를 시험하여 업신여기는 일이 많았으나 공이 지은 시를 볼 때는 꼭 두 번 절하고 읽었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장례원 사평(掌隸院司評)을 거쳐 곧 양지현감(陽智縣監)이 되었는데 수의(繡衣=암행어사)가, 공이 정치를 잘 한다고 위에 아뢰자, 임금이 표리(表裏=옷의 겉감과 안감)를 하사하여 장려하였다. 뒤에 여러 번 벼슬에 기용되었는데, 나아가기도 하고 나아가지 않기도 하였다. 1587년(선조 20)에 금구현령(金溝縣令)이 되었는데, 주인을 배반한 중

이 이웃 읍(邑)에 위탁하자 와서 송사한 일이 있었는데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힘으로 믿어부치려 하였다. 공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당장에 결정하여 그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자 인심이 크게 복종하였다.

1589년(선조 22)에 읍(邑)에서 정여립(鄭汝立)의 반란 사건을 아뢰던 일이 있었는데, 옥사에 억울한 일이 많았다.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 공은 속으로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벗기 주고 곧 옥사를 파하였다. 뒤에 공도 연좌(連坐)되어 최수우(崔守愚) 선생과 같이 체포되어 옥에 갇혀 기율을 지냈는데, 최수우는 옥졸(獄卒)을 종 다루듯 호령하며 꾸짖었고, 공은 태연하게 떠들고 웃자, 옥중(獄中)에서, “최사축(崔司畜)의 호령과 조금구(趙金溝)의 웃음에 갇힌 신세임을 모두 잊었다” 하였다. 최수우는 마침내 옥중에서 여위어 죽었고 공은 풀려났는데, 최수우의 말만 나오면 문득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 왜란이 일어나자 여러 군(郡)이 소문만 듣고도 미리 겁내어 달아나고 흩어지니, 적(賊)은 승세를 타고 전진하였다. 공이 서울에 갔다가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남쪽으로 돌아오다가 정언(正言) 이흥상(李興相)을 만나 개연(慨然)히 적을 토벌할 일을 말하고, 같이 죽을 것을 약속하였다. 함양(咸陽)에 이르러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 공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군현(郡縣)에 격문(檄文)을 전하고, 곧 군사를 일으키니, 김공이 공에게 의령(宜寧)을 임시로 맡게 하였다. 의령에 당도하자, 광재우(郭再祐) 장군이 이미 의령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므로 공은 바로 광공에게 의령을 맡으라고 미루어 주고, 다시 김공을 만나러 돌아오는데 길에서 들으니, “양경(兩京, 한양·평양)을 지키지 못하여 거가(車駕)가 벌써 중강(重江, 대동강/大同江·청천강/淸川江)을 지났으니 나라는 망했다” 하므로, 강에 이르러 스스로 몸을 던져 죽으려 하였다.

그러자 김공이 말하기를, “안 된다. 뜯소문은 믿을 수 없으며, 또 헛되이 죽는 것은 무익하다” 하니, 공이 그렇게 여겼다. 이때 임금이 용만(龍巖, 평안북도 의주)에 거동하여 의병을 일으킨 공으로 공(公)에게 장악원 첨정 벼슬을 상으로 내렸다다가 단성현감(丹城縣監)으로 바꾸었다. 마침 큰 난리를 당한 때라서 국내에 큰 기근이 들자, 공은 창고를 열어 구제하고 부족하면 사재를 털어 뒤를 대었다. 그 해에 김공이 순찰사가 되었는데, 전염병에 걸려 군중(軍中)에서 죽자, 공이 그 초상을 치렀다.

다음 해에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갔다. 뒤에 안주목사(安州牧使)와 청풍군수에 임명되었으나 병 때문에 부임하지 않았다. 1596년(선조 29)에 함양 군수가 되었는데 정유년(1597, 선조 30)에 적이 다시 군사를 크게 일으켜 서쪽으로 향하니, 공이 체찰사에게 글을 올려 한고을의 군민(軍民)을 전부 붙여 주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청하여, 드디어 관내의 군민을 거느리고 험한 곳에서 웅거하여 지켰다. 조금 뒤에 황석(黃石) 산성을 지키라는 명이 있자, 공이 곧 안음현감(安陰縣監) 곽준(郭遵) 공과 의논하여 성루(城壘)를 완전히 수리하였다. 얼마 뒤 공이 함양에서 갈려 가게 되자, 모두 말하기를, “성을 지키기는 위태롭고 또 관리로서의 직책도 없으니, 떠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내 벌써 목숨 걸고 지키겠노라고 빗과 약속했고, 적은 이미 급하니 의리상 떠날 수 없다” 하니, 함양의 자제들이 처음에는 흩어져 가려고 하다가 공의 의로움을 듣고는 그를 따랐다. 주장(主將) 백사림(白士霖)이 말하기를, “성이 험하니 적은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 하더니, 적이 성에 입막해서는 백사림이 밤에 성을 헐고 몰래 도망가 결국 성이 함락되었다. 공이 곽공과 북향 재배하고 죽으니, 8월 18일이며 나이는 61세였다.

부인 이씨(李氏)는 참찬(參贊) 이준민(李俊民)의 딸이다. 공은 일이 잘되지 않을 것을 알고 죽기를 맹세하며 처자에게 성에서 나갈 것을 명하였으나 이씨는 말하기를, “노첩(老妾)도 따라 죽겠습니다. 의리상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아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조씨(趙氏)로 하여금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절개를 지켜 죽었으며, 각씨 집안 온 식구가 다 죽었다.

이 일을 아뢰자 임금이 예로써 제사를 지내 주고, 처음에는 공에게 사복시 첨정을 증직하였다가 뒤에 여러 번 올려 이조판서를 증직하여 충신(忠臣)임을 표(表)하였고, 고향 사람들은 충현사(忠賢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처음에는 황석(黃石)의 아래에 장사 지냈다가 무술년(1598, 선조 31)에 진주(晉州)의 소남(召南)으로 옮겨 장사 지냈다.

공은 지극한 성품과 높은 행실이 있어, 부모를 섬기되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만큼 부모를 생각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친척에게 어질게 하고 친구를 사귀는 데 충직하였으며, 고금(古金)의 치란(治亂)과 인물의 장단을 서로 논의할 때면 말투가 엄정(嚴正)하여 남을 권면할 만하였다. 세상에 도가 날로 더러워짐을 보고는 마시고 취하며 웃고 즐기면서 스스로 회화하여 자신의 호를 대소현(大笑軒)이라 하였다. 뜻이 커서 사사로이 생산하는 것이 없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았다. 일찍이 상국(相國) 유성룡(柳成龍)이 말하기를, “백유(伯由)는 겉보기엔 방탕한 것 같으나, 안으로 지킴은 견고하고 확실하여 열장부(烈丈夫)의 위풍(威風)이 있다” 하였다.⁹⁾

9) 기인 별집(記人別集) 제19권 구묘문(丘墓文)

강숙회(姜叔淮)가 불상을 훔친 도둑을 잡다

10

***** 조선 성종 18년(1487)의 일이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금은 불상(金銀佛像)을 비밀리에 금강산(金剛山)의 사자암(獅子庵)에 두고 금 50여 냥과 은 5, 6백 냥을 썼는데, 근일에 내관(內官)을 보내어 살펴보니 불상이 다 없어지고 다만, 그 옥대(玉臺)가 풀숲 사이에 버려져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전일에 복천사(福泉寺)에서 부처를 훔친 것을 고한 자가 반드시 이 일을 알 듯 하니, 의금부(義禁府)의 관원을 시켜 가서 체포하게 하고, 경력(經歷) 강숙회(姜叔淮)를 진산(珍山)에 보내어 고한 사람 윤미(胤未)를 잡아 도사(都事) 안해(安該)와 함께 진도(珍島)에 가서 그 무리인 박은손(朴恩孫)을 체포하게 하고, 또 도사 윤여림(尹汝霖)을 시켜 적승(賊僧) 지경(知景)을 체포하도록 하라” 하였다.¹⁰⁾

강숙회 · 윤여림 · 안해가 윤미 · 박은손 · 소근동(小斤洞) · 중 지경

10)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9월 11일(정미)

(知罔)을 잡아 왔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잡아 온 지경이라는 자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를 나는 지경이 아니고 지경의 쌍둥이 형제인 파회(波回)다” 하니, 어떻게 국문(鞫問)하여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에 묶어 와서 전부터 이는 자를 시켜 보게 하라” 하였다.¹¹⁾

불상 도둑을 체포한 강숙희의 묘가 복정동에 있다.

11)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9월 24일(경신)

권득기(權得己)가 벼슬을 하지 않은 이유

***** 신조가 승하하니, 약물중독으로 돌아갔다고 소문이 떠돌았다. 유의(儒醫) 성협(成浹)이 입시하였다가 나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임금의 몸이 이상하게도 검푸르니 바깥소문이 헛말이 아니다”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포저(浦濟) 조익(趙翼)·만회(晩晦) 권득기(權得己) 같은 이가 끝내 광해조에 벼슬하지 않은 것은 대개 이 때문인 것이다.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원두표(元斗杓)와 이해(李澣)가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광해군이 선조를 시역(弒逆)했다고 성토했다고 이해의 조카 의길(義吉)이 그 글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그러나 끝내 소를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박세채(朴世采)가 원두표에게 물으니 원두표가 답하기를, “처음 장유가 지은 왕대비의 교서 외에 또 언문으로 된 교서가 있어 광해의 죄상을 주위 모았는데, 작은 사실이라도 다 들추어냈으나 약밥에 중독되었다는 말은 없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은 큰일이니, 당시 비록 그러한 소문이 있었으나 지금 언문 교지를 가지고 보더라도 경솔히

들추기는 어렵다' 하여 그만둔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조익은 통유문(通諭文)에 이 한 가지 조목을 매우 분명히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¹²⁾

이의길이 올리려고 했던 복수를 청하는 소의 대략에, “폐인이 세자가 된 것은 처음에 아예 언지 못할 것을 얻었던 것인데, 오랜 뒤에 선왕이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이 날로 심해져 속으로 흉악한 생각을 몰래 품었습니다. 선왕이 만년에 이르러는 더욱 짐승 같은 자에게 큰 자리를 맡길 수 없음을 알고 세자를 바꾸려는 뜻이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간인(奸人)들이 그 틈을 엿보아 이간질하였습니다. 선왕의 오랜 병환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였는데, 잠깐 사이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으니,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밥에 대한 말이 항간에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선왕이 위독할 때, 의원 성협이 명을 받고 들어가 진찰해 보니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빗갈과 증후가 《무원록(無冤錄)》 〈중독조(中毒條)〉에 있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협이 물러나 친한 사람들에게 말하니, 사류(士類)로써 이 말을 들은 이는 벼슬을 버리고 갈 뜻이 있어 국문(國門)에 들어가는 것을 수치로 아는 자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계축년의 옥사는 이침이 꾸민 일인데, 소위 서양갑(徐羊甲)의 격문(檄文)이란 것도 이침 등이 꾸며서 만든 것입니다. 첫머리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이침이 폐인의 흉악한 역모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 격문에 어찌 모르고 썼겠습니까. 당시 죽음을 당한 궁인이나 내

12) 《남계집(南溪集)》

시 중에는 죽을 때 거리낌없이 말을 하여 시역의 사실을 언급한 자도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문이 비록 분명하지 않다 하여도 또한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 들으니 고문을 받던 어떤 자가 꼭 할 말이 있다며 이미 말을 꺼내었지만 그 입을 쳐서 말을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장형(張衡)의 입을 막아서 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후의 사실이 양광(楊廣)과 매우 비슷하고 사실의 증거가 더욱 분명합니다” 하였다.¹³⁾

권득기의 묘와 사당이 분당구 금곡동에 있다.

13) 《양곡집(亮谷集)》

구징(具徵)의 무덤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보이는 광주군 서부면(廣州郡 西部面=하남시 감일동)에 능안(陵內)이라는 곳이 있다.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옛날 백제시대(百濟時代)에는 왕릉이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선(朝鮮) 중종(中宗)시대의 공신인 구징의 큰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서려 있다고 한다.

연산군(燕山君)을 폐위시키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일이다. 반정공신 구징(具徵)이 하루 아침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왕명을 받은 영의정 성희안(成希顔)은 8도의 수령방백에게 구징을 찾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속리산(俗離山) 법주사(法住寺)에 은거하고 있는 구징을 찾아내어 중종 앞에 데려왔다.

숨어 지낸 사연을 물어 본즉, 지난날의 대궐 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몸으로 연산군의 음행과 학정을 보다 못하여 이 나라의 사직과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반정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선대왕을 모시던 신하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 :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음)이니 통촉하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이에 감동한 중중 임금은 더욱 조정에서 일해 주기를 바랐으나 구정은 끝내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시골 노인들과 어울려 책을 읽으며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던 중 을묘사화(乙卯土禍)가 일어났다. 여기에서 화를 입게 된 이랑(吏郎) 구수복(具壽福)이 구정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먼 친척뻘이요, 옛날 조정에서 남달리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구정은 구수복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 나라에서 찾고 있는 죄인을 숨기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구수복은 죄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중중은 조금도 구정의 죄를 문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나이 7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자 생전의 공로를 표창하고 특별히 예장(禮葬)을 치리 주었다는 것이다.

동생을 지극히 아낀 남윤협(南允協)

실학자인 순암 안정복의 친구인 남혁(南赫)의 큰아들 윤협(允協)은 여섯 살 아래인 동생 윤성(允性)을 어린 아이 돌보듯 했다. 윤성은 약골이라 병에 잘 걸렸는데, 1773년(영조 49)에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윤협은 밤낮 없이 간호하면서 백방으로 치료하였으며, 심지어는 동생의 똥을 맛보았고 쓰디쓴 약물을 먼저 맛보면서 마시도록 권하기까지 하여 병이 나을 수 있었다. 그 뒤에 또 뱃머리에 종기(腫氣)가 나 종기의 독이 아주 심했는데, 형이 입으로 종기를 빨아 그 독을 제거하여 종기 역시 얼마 뒤에 나왔다.

1781년(정조 5)에는 동생이 파리해지는 병에 걸려 광주(廣州)에 있는 처가(妻家)에 누워 있었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듣고는 호남(湖南) 땅에서 의원을 찾아낸 다음 서울로 돌아와 약을 지어 가지고 와서 먹였다. 그 때는 엄동설한 겨울이었는데, 몇 천 리 길을 걸어갔다 오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들 혀를 끌끌 차면서 칭찬하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동생인 윤협이 머리가 흔들리면서 현기증이 나는 병을 앓으면 형은 반드시 밤을 새워가면서 문질러 주어 통증을 그치게 했다.

또 동생이 출입할 경우에는 형이 반드시 함께 갔는데, 험한 곳을 지날 때에는 넘어질까 걱정하고, 물을 건널 적에는 안아서 건네주었으며, 전사(店舍)에 도착해서는 앉고 눕는 것을 부촉해 주었고, 사나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일언일동(一言一動)과 기거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것이 없었다. 동생이 산사(山寺)로 나가 머물러 있으면 길 떠나기 전에 훈계하거나 소식을 묻는 편지를 보내면서 매번 병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라고 신신당부하였으며, 형이 혹 출타할 할 경우에 훈계를 남기는 것도 역시 그러하였다.

남윤협이 1785년(정조 9)에 병에 걸려 2월 29일에 죽으니, 나이가 겨우 44세였다.¹⁴⁾

14) 순암선생문집 제7권 행경(行狀)

기이한 사람, 이근(李謹)

***** 조선시대 한음 이덕형의 고향 사람 중에 이근(李謹)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덕형(李德潤)의 문집 《죽창한화(竹窓閑話)》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근(李謹)은 대대로 문벌이 좋은 집안이다. 처음 날 때 몸뚱이 하나가 겨우 면목(面目)을 갖추었을 뿐으로 털이 온 몸을 덮어 마치 돼지 새끼와도 같았다. 부모들이 놀라고 괴상히 여겨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포대기에 싸서 동산 가운데 나무 밑에 두었더니, 어린애의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 떼가 모여들었다. 부모는 이를 불쌍히 여겨 다시 거두어 길렀는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키가 석자를 넘지 못하고 머리털이 땅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한 자나 되었다. 걸음걸이는 휘청휘청하고 손발에도 모두 털투성이어서 참으로 난장이 중에도 난장이였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근 자신도 자기가 병자인 줄을 알고 사람만 보면 문득 숨고 문밖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 글을 배우는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서 책을 덮고서도 줄줄 외

어, 경전(經傳)이나 사기(史記)에 정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글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 가장 능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고 휘파람을 잘 불었으니 대개 그의 천성이 그러했던 것이다. 문족(門族)인 장계(長溪) 황정욱(黃廷域)이 기이하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보았다. 처음에는 몹시 해피하게 여겨 입으로 불려 시를 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다. 그는 운자를 내기가 무섭게 바로 시를 짓는데 그 대구(對句)가 몹시 아름답다웠다. 장계는 크게 칭찬하기를, “이런 기이한 재주가 있는데 타고난 형상이 남과 다르니,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니라?” 하고, 드디어 그의 부모에게 권하여 장가들이게 했다.

임진왜란 때 이근은 광주(廣州)에 있는 선산 근처로 피난했다. 거기에서 졸지에 여러 왜적을 만났다. 왜적들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괴상한 짐승이라 생각하고 우뚝 서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고 난 뒤에 잡아 가지고 서로 웃고 놀리더니 기화(奇貨)라고 여겨 마주 들고 그들의 추장에게 갔다. 왜추(倭酋)도 역시 놀라고 괴상히 여겨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혹은 맥을 짓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여 우는가, 먹는가를 시험했다. 그러나 이근은 본래 뜻이 굳고 용기가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왜추는 더욱 이상하게 여겼다. 어떤 늙은 왜인 하나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저 물건을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편전(片筵)을 쓰는 것들이다” 하니, 모든 왜인들이 모두 분이나서 칼을 빼어 베리 하자, 왜추는 힘써 말리고 밤이면 죽롱(竹籠: 대나무로 새장처럼 만든 것)에 넣어서 도망기는 것을 막았다. 또 점치는 중을 살리다가 그를 두고 짐을 치라고 했다. 이때 왜승(倭僧)이 옥 산통(算筒)을 던져서 쾌를 지어 말하기를, “사로잡은 것은 꿈도 아니요, 범도 아니며, 이것은 바로 문왕(文王)이 여상(呂尚)을 얻을 징조이니, 어찌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했다. 왜추는 크게 기뻐하여 조심하여 더욱 정성껏 대접하였다.

왜추가 진을 친 곳은 바로 한강 제천정(濟川亭)이었다. 이때는 마침 7월 보름이어서 달빛이 대낮과 같았고 강의 물결은 마치 마전한 배처럼 잔잔했다. 밤 기운은 쓸쓸하고 벌레 소리는 짹짹거리는데 가을 소리는 사방에서 일어났다. 이근은 홀로 앉아 잠이 들지 않아 백 가지 생각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므로 죽롱 속에서 길게 휘파람을 부니 그 소리가 치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모든 왜병들은 놀라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왜추도 이 소리를 듣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라 떠나온 생각을 이기지 못해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셨다. 그러자 비로소 죽롱을 열고 이근을 내놓으면서도 말하기를, “무슨 괴물이 이렇게 기이한 재주가 있느냐! 저번에 신승(神僧)이 짐친 것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하였다. 이근은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나면서는 이 세상의 이상한 물건이 되었고 죽어서는 적에게 잡히기는 혼이 되겠으니, 사람이 이 지경이 되어 만 가지 일에 무엇을 관계하겠는가. 지금의 방법으로는 내가 요행히 이곳을 벗어나서 혼자 계신 어머니를 뵈는 것 뿐이다’ 고 여겼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말하며 웃어대니, 왜추가 술을 주면서 마시라고 권했다. 이근은 주량도 또한 커서 병을 기울여 마음껏 마시고 술이 취하자 길게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초사(楚辭)인데, 온 진중의 모든 왜병들이 모두 감동해서 울었다.

노래가 끝나자 이근은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좌우로 돌면서 머리를 흔들고 눈망울을 굴리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등 백 가지 모양을 다하니, 모든 왜인들도 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춤이 끝나자 이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 놓아 슬피 우니, 이것을 본 자들도 모두 울었다. 왜추는 물기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했

다. 이근은 붓과 종이를 달라고 해서 써서 보이기를, “80세가 되신 늙은 어머니와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우는 것이오” 하니, 왜추도 이 말을 듣고 가엾게 여기며 감탄했다. 그리고 그의 필적을 보더니 혀를 차면서 칭찬하기를 마지않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물건이 몹시 귀이하고 이상하더니 이제 그가 하는 짓을 보니 또한 심상치가 않다. 이 물건을 만일 진중에 둔다면 반드시 요망스런 일이 생겨서 도리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잡아 두어봐야 유익할 것이 없고 죽이자니 차마 그럴 수도 없으니 차라리 놓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모든 왜병들도 그 말이 옳다고 했다. 그래서 왜추는 이근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네 소원대로 해 주겠다” 했다.

그러나 이근은 왜추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말하기를, “지금 길이 막혔으니 내가 가고 싶지만 어디로 가겠소? 이 진중에 있게 해 주시오” 하니, 왜추는, “하여튼 말해 보라” 하므로 이근은, “강화(江華)로 가고 싶소” 하니, 왜추는 진중에 잡혀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 4, 5명을 불러 내어 조그만 배 한 척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 주면서 강화로 보내주었다. 강화에 와서 들으니, 그의 외사촌 박경신(朴慶新)이 해주목사(海州牧使)가 되었다고 하므로 이근은 바로 해주로 찾아갔다. 이근의 어머니는 목사의 삼촌 숙모이기 때문에 해주 관사에 와 있었다. 그래서 모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¹⁵⁾

15) 관성(貫成) 이덕형(李德馨) 지, 죽장한화(竹窓閑話)

7 우풍헌과 남한산성

***** 우풍헌은 세상을 주름잡을 능력과 재주를 지녔지만 숨기고 살았다. 그러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고, 청나라 왕이 송파(松坡) 언덕에 올라 남한산성을 공격할 계책을 꾸미고 있을 때, 우풍헌이 남한산성에 가서 군사를 빌려 오랑캐 군사들을 섬멸하려고 떠났다.

우풍헌이 송파 앞을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니, 청나라 왕이 자기 장수 용골대에게 묻기를, “이런 놈이 감히 겁도 없이 내 군진 앞을 저렇게 당당하게 지나가느냐? 당장 잡아오라” 하고 호령했다.

이에 용골대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조선의 우풍헌인데, 우리 금나라에서는 당할 장수가 없는 신출귀문의 재주를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금나라 왕은 우풍헌을 정중하게 모셔오라 했다. 용골대가 우풍헌에게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 우풍헌은 남한산성에 가서 군사를 빌려 호병을 섬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같이 가기를 거부했다.

용골대가 할 수 없이 돌아가 금나라 왕에게 보고하기를, “우풍헌이 만약에 군사를 빌리면 우리들은 당하지 못하고 모두 멸망하지만, 그러나 조선에서는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니, 아마 군사를 빌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금나라 왕은 용골대에게, “우풍헌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초빙해 오도록 하라. 내가 설득해 장수로 삼겠다” 고 말했다. 우풍헌이 남한 산성에 들어가 군사를 빌려 달라 하니, 대신들이 모두 허황된 말을 한 다면서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풍헌은 울분을 머금고 성을 떠나 다시 송파 앞을 지나는데, 용골대가 와서 자기 임금이 초빙한다고 말하고 같이 가자고 했다. 우풍헌이 거절하다 할 수 없이 같이 가서 금나라 임금을 만났다.

우풍헌이 “내 군사를 빌렸으면 너희 오랑캐 군사는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될 텐데, 조선에서 인재를 알아주지 않으니 원통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금나라 왕은 조선에서 초목과 같이 썩지 말고 금나라에서 함께 부귀를 누리는 것이 어떠냐고 설득했다.

그러나 우풍헌은 거절하고 나오는데, 몇 걸음 나서니 곧 사라지고 없었다.¹⁶⁾

16) 편저자 미상, 《개암만부(溪鴨漫錄)》

정직한 임실현감

***** 임실현감 정씨(鄭氏)는 젊었을 때, 광주(廣州) 경안(慶安)에서 농사를 지었다. 어느 날 하루는 아침 일찍 큰 길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건장한 사람이 말을 달려 지나가면서 보자기를 떨어뜨리고 갔다. 정씨는 그 보자기를 주워서 흙 속에 묻어 두었는데, 얼마 후 보자기 주인이 와서는 보자기를 못 보았느냐고 물었다.

정씨는 처음에 못 보았다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어느 대감님 덕의 종인데, 주인의 집 판 돈으로 받은 은 5백 냥을 말에 싣고 가다가 술에 취해 떨어뜨렸으니, 찾아 주면 그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씨는 그 보자기 모양 설명을 듣고 확인한 다음에, 흙 속에서 꺼내 주었다.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절반을 주기에 사양하면서 욕심이 있었으면 다 갖지 이렇게 돌려주겠느냐면서 갖고 가라고 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이 사람은 울면서, 사실은 자기가 도적이던데 말과 은을 훔쳤다고 말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당신은 이렇게 착한데, 나는 왜 강도에 살인을 저지르는 못된 사람이나?" 고 한탄을 했다.

그리고는 곧 보자기를 풀어 은을 훔쳐 버리고, 자기의 집에서 비단

을 꺼내 찢어버린 다음, 말을 쫓아 보내고는 종이 되어 받들겠다고 했다. 정씨는 “가난하고 집이 비좁아 종을 부릴 형편이 못되니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거절했다.

이 사람은 집 근처에 방을 하나 마련해 주면 혼자 살면서 돕겠다고 하면서 기어이 따라왔다. 그래서 정씨가 집 앞 빈집에 거처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신을 삼아 팔아 정직하게 살면서, 인생 동안 떠나지 않았다.¹⁷⁾

17) 계서잡록

76 청백리 이병태(李秉泰)

***** 영조 9년(1733) 5월 20일, 전 부제학 이병태(李秉泰, 1688~1733)가 세상을 떠났다. 이병태는 청렴결백함이 뛰어나고 몹시 가난하 먼서도 스스로 굳게 지조(志操)를 지켜 조금도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헤어진 옷과 담박한 음식으로 지냈고 지방의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도 역시 집에 있을 때와 같았으며 숙수(菽水)를 이어대지 못하였는데도 그의 지조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으로 여겼는데 본 천성(天性)이 그랬던 것이다.

문학(文學)과 인망(人望)이 같은 동류보다 뛰어났으나 정미년 이후로 뜻을 굽혀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다가 영남(嶺南) 고을에 한 번 쫓겨나 수토(水土)에 익숙하지 못하여 마침내 이로써 죽게 되었으니 애석하다.

뒤에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살아서는 청백(清白)한 지조가 있었고 죽어서는 시체를 염(殮)할 기구가 없었으며 또 늙은 어미가 기아(飢餓)를 면치 못한다'고 아뢰어 고(故) 감사(監司) 한지(韓祉)의 전례에 따라 그 어미를 주휼(賙恤)할 것을 청하자, 임금에 애석하게 여기며 한

참 있다가 구휼(救恤)하는 은전(恩典)을 베풀고 증직(贈職)하며 장례를 치르게 하라 명하였다.

이병태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 유안(幼安), 호 동산(東山), 시호는 문청(文淸), 묘소는 수내동 산 1-2 중앙공원 내에 있다.

관직에 있을 때나 관직을 떠나서나 항상 강직 결백하고 검소한 생활을 신조로 삼았으므로, 사후 장례비용이 없어 감사 한지(韓社)가 왕에게 아뢰어 장례를 치르도록 부의를 내리기도 하였으며, 1745년(영조 21) 1월 18일 실록에는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영조에게 아뢰기를 “이병태(李秉泰)는 청백(淸白)함이 남보다 지나치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지금 분당구 수내동(葢內洞)의 동 명칭은 청백리인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이 일대에 숲을 가꾸어서 붙은 지명이라고도 한다.

세조 때의 과거시험

***** 조선 세조 임금의 조카인 단종 임금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었는데, 임금 자리에 있는 동안 과거적인 인재 등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임금의 가까운 친척들과, 관직 품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과거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 중에 당상관이면서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금토동 일대에서 살았던 권반(權攀, 1419~1472)이다. 권반의 형이 권남(權孳)이고 아버지는 권제(權躋)이다.

옛날에는 부과가 없었다. 태종(太宗) 연간에 비로소 문무과(文武科)를 보게 되어 1등 3인에게 조개(阜蓋 : 검은색의 수레 포장)를 특별히 하사하였고, 세조(世祖) 때에 이르러 문과는 조개를 하사하고 무과는 기(旗)를 하사하니, 무반(武班)들이 좋아하지 아니하여 곧 제도를 없앴다.

예전의 제도에, 관직의 품계가 3품인 지는 문과에 응시하지 않고 6

품인 자는 진사시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세조 때에 당상관으로서 과거에 응시한 자는 화산(花山) 권반(權攀)이고, 종친(宗親)의 극품(極品)으로서 과거에 응시한 자는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이고, 부마(駙馬 : 임금의 사위)의 극품으로서 과거에 응시한 자는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이다.¹⁸⁾

그리고 석운동에 성남시 향토유적 제8호의 주인공인 신종군 이효백은 종친이었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는데도 특별히 과거 응시를 허락 받았고 병조참판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8) 이유원, 임하필기 제24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무과(武科)

7 태종우의 내력

***** 태종(太宗) 18년의 일이다. 농사를 생업의 제일로 생각하던 당시, 유례없는 오랜 가뭄이 계속되어 백성들은 하늘을 우러러 비가 내리기를 빌었지만 온 천지를 태울 듯한 피약별만 계속될 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이에 별의별 유언비어가 나돌아 민심을 소란케 하더니 날로 더욱 흉흉해져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하늘을 원망했고 거칠어진 그들의 동요가 구중궁궐에까지 미치기 시작하여 마침내 태종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태종도 각 고을 관찰사들을 불러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을 꾸짖었으나 오랜 가뭄으로 곡식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괴질까지 번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제생원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료 구제와 빈민 구제를 명하는 한편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 비를 갈구하였으나 끝내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태종은 “짐이 부덕하여 하늘이 내 소원을 물리치심이니라” 한탄하며 침식을 멀리하다가 마침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기우제를 친히 주재하던 왕이 이에 이르자 온 조정이 술렁대기 시작했으나 비는 내리

지 않고 괴질은 더욱 만연해서 거리거리에서 곡성이 그치지 않았다.

이 같은 기막힌 천재지변에 노심초사하여 생사지경을 헤매던 태종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자기를 꾸짖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내 일 날이 밝는 즉시 궁전 뒤뜰에 장작을 높이 쌓도록 하여라. 과인이 부덕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샀거늘 내 스스로 제단의 제물이 되어 백성을 구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에 중전 및 중신들은 아연신색했으나 지엄한 왕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 태종이 올라앉은 장작더미에 영의정이 통곡하며 불을 지폈다.

바삭 마른 나무는 삼시간에 타올랐고 신하와 궁녀는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온 백성들도 합장하며 왕의 과감한 제민정신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불길은 점점 높아져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맑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붉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무서우리 만큼 억센 폭우가 쏟아졌다.

사납던 불길은 꺼지고 태종이 무사해지자 백성들은 어진 왕을 찬양하기에 바빴다.

그 후부터 5월 초열흘에 오는 비를 ‘태종우’ 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 전설로 인해서 가뭄이 심할 때면 많은 사람이 모여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태종 임금과 사돈이 된 남경문(南景文)

태종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딸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다. 그러나 국가에 별일이 없을 때에 시집보내고 싶어 4, 5품 이하의 사족(士族) 집안에서 이미 의랑(議郎) 남경문(南景文)의 아들을 택하였다. 대체로 부마로 삼는 자는 가난하고 찬한 것을 문체 삼을 것이 없다.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손은 교만하고 사치하는 습성이 있을 경우 실패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그래서 내가 관직이 낮은 자의 자손을 취하려 한 것이다. 이 아이가 비록 의정(議政=南在)의 손자이기는 하나, 의정이 이미 늙었고 그의 아버도 일찍 세상을 뜬 데다 홀어미 아래에서 자랐으니, 단정하고 교만하지 않았다” 하였다.¹⁹⁾

태종의 사위가 된 사람은 바로 남경문의 3남인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이다. 이후로 남이 장군, 영의정 남구만, 국무총리 남덕우, 국어학자 남광우 박사 등 정승이 4명, 대제학 6명, 판서가 26명이나 배출된 문중이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묘소가 있는데, 이 묘 때문에 터널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19) 국조보감 제4권 태종조 2, 15년(을미, 1415)

남유용(南有容)이 비단 도포를 입고 다닌 이유는?

○ 뇌연(雷淵)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은 금릉 남공천의 아버지이다. 정조 임금의 이럴 때 스승으로 임명되어 세 살 때부터 부름에 앉혀 놓고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조 임금은 오래도록 그 은택을 잊지 아니하였다.

영조 임금이 호피(虎皮)를 원손(훗날 정조 임금)의 사부 남유용(南有容)에게 내려주었다. 임금이 원손을 불러 대답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남유용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으니, 남유용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영조가 기뻐 이르기를, “네가 여섯 살에 이미 임금 앞에서는 신하를 이름으로 지칭하는 예를 아는구나” 하고, 이어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외우도록 하였는데, 한 글자도 잘못 외우는 것이 없었다.

영조 임금이 이르기를, “읽는 소리가 쟁쟁하여 금석(金石)과 같다” 하고, 남유용에게 이르기를, “원손의 덕성이 점차 자라나 진보하고 있으니, 이는 종묘사직의 다행이다. 이는 경의 덕분이다” 하고, 마침내 호랑이 가죽을 내려주며 이르기를, “지금 내려주는 것은 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종묘사직을 위하는 것이다” 하고, 이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²⁰⁾

남유용은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항상 비단 도포를 입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좋은 책은 매양 표상금(縹緗錦)으로 표장을 하는 것이니, 나는 장차 나의 글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진(晉)나라의 학릉(郝隆)이 햇볕에 배물 드러내 놓은 채, ‘햇속의 책을 말린다’ 고 한 고사와 같은 뜻이다.²¹⁾

20) 국조보감 제64권 영조조 8 '영조 33년(정축, 1757)

21) 임하필기 제35권 벽려신지(辟蕪新志)

남공철(南公轍)의 과거(科擧) 급제 꿈

기

*****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그 부인(夫人)이 잠을 자다가 뜰 안에서 시신(屍身)을 거두어 후원(後園)에다가 장사 지내는 꿈을 꾸고서 매우 좋지 않게 여기고는 공에게 그 일을 말하자, 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정시(庭試)에 장원(壯元)이 될 것이오” 하였다.

대체로 시(屍)는 시(試)와 음(音)이 같고 장(葬)은 장(壯)과 음이 같고 원(園)은 원(元)과 음이 같기 때문이었다.

박탄재(朴坦齋)는 과거 급제자를 소리쳐 알리는 자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은 꿈을 꾸고서 매우 의아하게 여겼는데, 실제로 그가 과거에 급제하던 날에 그의 당숙(堂叔)이 병조(兵曹)의 낭관(郎官)으로서 대궐 안에 있다가 근장군사(近仗軍士)를 발송(發送)할 때에 이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²²⁾

탄재는 박기수(朴綺壽)의 호이다. 그에게는 일찍이 만형이 있었는데

22) 임하필기 제27권 춘명일사(春明逸史)

겨우 10세를 넘기고 요절하였다.

하루는 작은 까치 한 마리가 왕고(王考)인 목사공(牧使公)의 집 처마에 날아와 자더니 날을 정해 둔 듯이 일정하게 찾아왔으며 때로는 밤상 앞에 날아 내리오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면 밥을 던져 주어 먹이곤 하였다.

목사공이 이임(移任)하게 되면 까치가 반드시 그 임소에 먼저 이르곤 하였는데,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어린애의 혼령이라고 말하면서 매우 불쌍히 여겼다. 능주(綾州)에 도임하였을 때 까치가 느닷없이 상두(床頭)에서 죽었으므로 온 집안 사람들이 슬프게 여기고서 선산(先山)에 묻어 주었다. 능주는 곧 공이 맨 마지막으로 받은 임지였다.

남공철은 본관이 의령(宜寧)으로, 정조(正祖)의 세손(世孫) 시절 스승이었으며 대제학을 지낸 남유용(南有容)의 아들이다. 1792년 전시(殿試) 급제 후 규장각 직각,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는 등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순조 때 더욱 현달하여 대제학, 우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당대의 문장가로 평판이 높았으며 문집으로 《금릉집(金陵集)》 등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연암을 비롯하여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등과 교분이 있었다.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풍고(楓阜) 김조순(金祖淳) 공과 담소하던 차에 우연히 금릉 남공철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었는데, 자하가 말하기를, “관상법에, ‘옥 같은 얼굴빛에 금성(金聲) 같은 목소리를 갖춘 데다 글씨의 필획이 분명하면서도 예스러운 기풍을 띠고 있을 경우라면, 지위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이는 상수(上壽)를 누리다’ 고 하였으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금릉이 정승에 오르고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데에 이르니, 신위의 선견지명에 대하여 여러 번 감탄하였다. 내(이유원)가 젊었을 때 금릉을 뵈었는데, 해맑은 얼굴에 촌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신선 같았다.²³⁾

23) 임하빈기 제31권 순일편(旬一編) '자하가 남금릉(南金陵)을 알아본 일'

실수로 어머니를 죽게 한 사람 이야기

***** 조선 숙종 임금이 즉위하던 해(1674)의 이야기이다.

광주(廣州) 백성 이상신(李尙信)이 자기 집 뒤뜰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는데, 그때 마침 자기 어머니가 울타리 안에 앉아 있었다. 상신이 활을 당겨 쏘려고 하는 참에 손에 낀 깍지가 빗겨지면서 잘못하여 화살이 시위를 떠나 자기 어머니 등과 허리 사이에 꽂혔다.

그리하여 3일 만에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상신이 장례를 마치고는 관에 나와 자수하면서 육사(戮死)를 받겠다고 자청하여 본부에서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사실임을 밝혀냈고 상신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 변을 당한 후 누차 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겨우겨우 구출하여 관가에 가서 죄를 받으라 했다고 하였다.

이 사건이 형조에 내려져 대신들의 의견 진술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영의정 허적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상신의 어미가 죽게 된 것이 상신의 잘못 나간 화살에 맞아서 그리 된 것이니 그렇다면 상신으로서는 단 하루도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즉시 자결이라도 하여 그 망극한 심정을 조금

이나마 풀었어야 했습니다. 처음 목을 매달았을 때 비록 자기 아버지에 의해 구조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미련하고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알 만한 일입니다. 자손이 부모를 과실로 죽게 만든 자는 곤장 1백 대에 3천리 먼 곳으로 유배하는 정해진 법이 있어, 일정한 법조문이 없어 다른 비슷한 예에 준하여 형량을 정하는 범죄와는 경우가 다르므로 국가에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해당 법조문을 두고 달리 죄를 가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여, 임금 이 그 논의대로 시행하도록 명했다.²⁴⁾

24) 국조보감 제41권 숙종조 1 즉위년(갑인, 1674)



암구렁이와 총각

- 임경업 장군의 출생 이야기

***** 남한산성의 서문인 우익문(右翼門)을 나서서 서산능선에 오르면 큰 부딪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부딪에 얽힌 전설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백 년 전 한양에서 흠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던 한 청년이 광주(廣州)에 있는 친척집에 식량을 얻으러 갔다.

그러나 미처 남한산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은 지물고, 거기다가 소나기까지 퍼부어 청년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그 때 멀리 이듬 속에서 깜박이는 불빛이 보였다. 청년은 떨 듯이 반가워서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한편으로는 괴이하고 두려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 그의 형편으로는 그 불빛이 구세주나 다름 바 없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불빛은 외딴 초가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청년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집안의 동정을 살펴본 후 주인을 불렀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온 주인은 묘령의 아리따운 처녀가 아닌가?

청년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하였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으나 이미 그는 처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발길을 돌릴 수

가 없었다. 그 처녀가 산적의 딸이라도 좋고, 천년 묵은 구미호(九尾狐 : 꼬리가 아홉인 여우)라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무에에 혼린 듯 처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처녀가 차려 내온 진수성찬의 지녀를 먹었다. 그리고 그 날 밤 처녀와 함께 뜨거운 정을 나누었다.

처녀는 자기가 산 속에서 혼자 살게 된 것이나 청년이 길을 잃고 산 속을 헤매게 된 것이 모두가 옥황상제(玉皇上帝)의 뜻이며 두 사람의 만남도 옥황상제가 점지해 준 인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튿날 날이 밝자 청년에게 급히 떠나기를 재촉했다. 청년은 하는 수 없이 처녀와 이별하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도저히 처녀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도중에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처녀는 인간이 아니라 5백년이나 묵은 암구렁이라는 산신령의 목소리가 쨍쨍 울려오는 것이었다. 그래도 청년은 기어이 처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처녀의 초가집은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고목이 서 있고 그 곁에서 머리를 풀이헤 친 처녀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비로소 처녀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산신령의 말대로 자기는 5백년 묵은 암구렁이의 화신인데 이제는 청년의 힘을 입어 승천하게 되었다며 자기가 승천한 뒤 비늘 세 개가 떨어질 것이니 그 비늘이 떨어진 자리에 장차 청년의 묘를 쓰라고 하였다. 그러면 자손 중에 유명한 장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말을 마치자 처녀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과연 비늘 세 개가 떨어졌는데 비늘이 떨어지자 매화나무로 변하였다.

그 후 청년은 장가를 들어 다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죽을 때 처녀의 말대로 유언을 하였다. 가족들은 그의 유언대로 그 매화(梅花) 나무 자리에 묘를 썼는데 정말 자손 중에 유명한 장군이 나왔으니 그가 바로 임경업(林慶業) 장군이라는 것이다.

천마와 병자호란

***** 1636년 병자호란(인조 14년) 때 청태종(淸太宗)의 침략군에게 쫓긴 인조 임금 때의 일이다.

병자호란이 터지자 왕은 영의정 김류를 비롯한 척화파(斥和派)와 최명길(崔鳴吉) 등의 주화파(主和派)가 서로 언쟁을 벌이자 급기야 일부 장졸들만 남기고 강화(江華)로 파천(播遷)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인조는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척화파와 주화파가 서로의 이견만 고집하고 언쟁만 일삼는데 매우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말 못하는 어승마를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모두들 기이한 생각에만 정신을 들리고 이승마를 움직일 방안은 찾지 못했다. 아무리 군졸이 고삐를 나꿔 채고 재촉해 보아도 말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리만 지를 뿐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 군졸이 빈갈아 가면서 말을 움직여 보았으나 막무가내로 요지부동이라 야단법석이었는데 이 위급한 순간에 한양(漢陽)에서는 또 급보가 전해졌다. 오랑캐들이 남한산성을 향해 물민듯이 쳐들어오

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진퇴유곡(進退維谷)의 다급한 순간을 맞이하자 신하들은 한층 더 말을 재촉하였으나 말은 꼼짝하지 않는 터이라 기이한 생각에 착잡하였다.

그러나 이때 인조는 “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고, 나를 남한산성에 머물게 하려는 징조이니 그리 알고 신하들은 나의 명에 따르도록 하라”고 하명하였다. 그러나 한참 후에 말은 신기하게도 스스로 말머리를 돌려 단숨에 옥좌(玉座)가 있는 전각까지 달려가더니 몸을 낮추어 임금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신하들은 더욱 기이하게 여겼고 결국 강화도의 파천은 중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뒷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때 청태종은 인조가 강화도로 파천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무술이 뛰어난 장수와 군사들을 길목 요소에 매복시켜 조선왕을 사로잡으려 했었다는 것이다.

비록 45일 만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으나, 그래도 말 때문에 파천 도중에 사로잡히는 더 큰 치욕을 면했다는 것은 실로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은 당시 인조가 탔던 이승마를 천마(天馬)라고 불렀다. 지금도 이 전설은 구전되어 오고 있다.

7 청태종의 매부 양고리를 쏘아 죽이다

..... 청나라 임금이 날마다 한봉에 올라 성 안을 굽어보았는데, 왕이 능히 쏘아 맞출 사람을 모집했더니 연양(延陽) 이시백의 군관 하나가 응모했는데 나이는 20세 미만이었다. 통아세전(筒兒細箭)*을 청하여 금빛 갑옷을 입은 자를 쏘아 넘어뜨리니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청나라 임금이 죽었다고 하였다. 뒤에 들으니 청나라 임금의 매부인 양고리(楊古利)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후하게 상을 주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청나라 사람이 명의(名醫)를 청해 왔기에 이후성을 보냈는데, 청나라 임금이 제 누이의 병을 봐달라고 하였다. 그 여자는 온몸이 부어 방안에 누워 있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남편이 남한 산성에서 죽었기 때문에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효능이 강한 약을 썼더니 금방 나았는데, 이 사람이 곧 연양군 이시백의 군관이 쏘아 죽인 자의 아내라 한다. 군관의 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동이(筒兒): 환파 화살은 꽃아 등에 메고 다니는 봉

*세전(細箭): 화살의 일종

인조의 꿈에 적의 침입을 알린 온조대왕

21

왕이 야심토록 독전(督戰)하느라 심히 곤하여 앓은 채 지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적이 운계(雲梯: 사다리)를 타고 북성을 오르는데 어찌서 막지 않는가?" 하므로, 인조 임금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이 성의 주인인 온조왕이다" 라고 하여 왕이 놀라 깨어 즉시 정탐하게 하였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아서 끓는 물을 부어 물리치고 잡아 죽인 자가 많았다. 뒤에 환도하자 충청도 직산에 있던 온조왕의 사당을 남한산성 안으로 옮기고 봄가을로 제사지내게 하였으며 축문에 어휘(御諱)를 쓰고 향폐(香幣)도 예조에서 보내왔다.

남한산성의 승렬전(崇烈殿)이 바로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이다.²⁵⁾

25) 중정 남한지

노협(魯協)이 만난 무인

노협(魯協)은 광주의 선비인데 남한산 아래 살았다. 병자호란 이전에 노협이 길에서 한 무인(武人)을 만났더니, 그 무인이 노협을 불러 성 아래 바위 위에 앉아서 역리(易理)를 설명하는데 모두 전에 듣지 못하던 말이었다.

이에 노협과 함께 성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다가 큰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칠닝쿨로 재어보고는 노협에게 말하기를 “성이 비록 함락되더라도 몰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노협이 집에 데리고 오려 했으나 듣지 않고 표연(飄然)히 가 버렸고 한다.

일설에는 노협(魯協)이 아니고 노협(虛協)이며, 벼슬이 동래부사였다 하고 무인은 곧 박진구(朴震龜)라고 한다.

박진구가 김류의 군관이었을 때 한 번은 나무로 만든 거북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쓰면 일면(一面)은 당해낼 만하다”고 하였으나 김류가 께이하다고 하여 불리쳤는데, 진(震)은 목(木)에 속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 말했던 것이라 한다.

남한에 이르러 친한 사람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이 성이 수년 후면 봉천지역(奉川之厄)을 당하겠지만 나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을해년(1693)에 박진구는 죽었고, 벼슬은 선전관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⁰⁾

20) 중정남한지

경안교의 돌다리

고려의 김방경이 대마도를 정벌하러 할 때 경안교(慶安橋)를 축조하고 돌로 홍예(虹蜺 : 무지개 모양의 아치)를 만들었는데, 뒤에 점점 기울게 되자 무너지는 대로 보수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완전히 없어졌다.

세상에 전하기를 다리 아래 못 가운데 처음에 독룡(毒龍)이 살고 있어서 다리를 놓으려 할 때마다 비바람을 일으켜 준공할 수 없었는데, 회암(會庵)에서 온 신승(神僧)이 물 속에 들어가 용과 한참 동안을 싸웠다. 피가 물 위로 떠오르더니 중은 돌아가고 다리가 드디어 완공되어 이 공적을 비석에 새겨 다리 옆에 세웠는데 역시 오랜 세월이 흘러 망가지고 없다고 한다.²⁷⁾

경안교는 조선시대까지도 있었는데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가 도망가면서 50~60여 명이 경안교에서 쉬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조 임금이 이 다리를 건너 여주의 효종대왕릉을 참배하였다.

27) 중정남한지

낙송정의 두 얼굴

1

***** 낙송정은 남한산성의 서장대(西將臺) 아래쪽에 있는 우물이다. 이 우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한산성 일대의 주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광주군 서부면(西部面=현재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에 도부자라는 사람이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두 아들은 성격이 아주 대조적이어서 큰아들은 몹시 공부하기를 싫어했으며 심술이 많았고, 둘째 아들은 몸이 허약했으나 마음씨가 착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도부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도부자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과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평소에 아우를 미워하고 시기해 오던 형은 그 때부터 동생을 구박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유 없이 매질을 하고, 끼니를 굶기며, 날마다 해가 저물도록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게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생은 밤이되면 몰래 공부를 하였고, 조금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은 마침내 동생을 죽일 궁리까지 하였다.

주박의 주모에게 건달꾼 한 사람을 구한 다음 그 사나이를 많은 돈으로 매수하였다. 즉 그의 음모는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가면 그 때 사나이가 미행하여 죽이게 하였던 것이다. 같은 핏줄을 나눈 형의 이런 무서운 음모를 알 턱이 없는 동생은 평소와 같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깊은 산 속에서 그는 사나이에게 붙잡혔다.

위기의 순간! 그러나 그 순간 사나이의 마음이 달라졌다. 사나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착한 동생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모든 자초지종을 동생에게 얘기하고, 얼마간의 돈을 주어서 자기가 죽인 것처럼 동생을 멀리 떠나게 하였다. 동생은 사나이에게 감사하며 눈물로 정든 고향을 떠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동생은 타향에서 갖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어 꿈에도 못 잊어하던 고향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 옛날의 착하기만 하던 동생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을 붙잡아서 치죄하려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고, 형의 소식을 염탐해 보았다. 그동안 형은 그 많던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알 거지가 되어 투전판으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더욱 패섬하게 생각한 그는 그 길로 광주부윤(廣州府尹)을 찾아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을 잡기 위해 고향집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가는 도중에 우연히 어느 맑은 샘물을 발견하고 잠시 목을 축이게 되었다.

그런데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에 엎드리려는 순간 그는 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주춤하였다. 그 얼굴은 10년 전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의 모습과 너무나 같았던 것이다.

비로소 그는 복수귀(復讐鬼)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인가를 깨달았다. 자기는 형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돌아섰다. 형을 용서키로 한 것이다.

그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샘물을 낙송정(落訟井)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송사(訟事)하는 자가 이 물을 마시면 재판에 지고 만다는 뜻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혼남(徐欣男)의 공로

서혼남(徐欣男, ? ~ 1667)은 천민이었지만 병자호란 때 입금을 남한산성 안으로 업어서 피난시키고 곤뽕포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다. 천민으로 기와 잇기와 대장장이, 장사꾼 등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청나라 군대에 포위 당해 성 안팎의 소식이 끊기자 전령을 자처하여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내외의 소식이 끊겨 체부(體府)에서 사람을 모았으나 응하는 자가 없었다. 서혼남이 자원하여 유서(諭書)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누덕누덕 기운 옷을 걸치고 유지(諭旨)를 찢어 그 차례를 표시해 노를 꼬아 옷과 바지를 얹어매고 봉두구면(蓬頭垢面)*에 손에는 깨어진 쪽박을 들고 성을 타고 내리가 적진에 들어가서는 일부러 병든 사람처럼 영금영금 기어다니며 구걸을 했다.

한 사람이 큰 황산(黃傘)을 받치고 첩관 위에 앉았는데 밑에는 숯을 피워서 데우니 편시 우두머리이다. 그 구걸하는 것을 가엾이 여겨 먹을 것을 주었더니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먹으며, 그 자리에서 똥을 누므로 적이 더욱 의심하지 않았다.

얼마를 무릎으로 나아가다가 적진에서 멀어진 후 일어나 달려 삼남(三南)과 강원도에 명을 전하고 돌아올 때도 또 전과 같이 하였다. 울타리를 넘어 성에 들어오자 적도 비로소 의심하여 진을 삼전포(三田浦)로 옮겼다.

이로부터 여러 차례 명을 전하러 자주 적진에 들어가 허실을 탐지하였다. 조정이 그 공을 훌륭히 여겨 친민 신분을 벗고 정2품 당상관인 훈련주부(訓練主簿)와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1667년 사망하여 광주군 중부면 김복리 병풍산에 묻혔는데 이후 후손들이 화장하여 묘비를 남한산성 역사관 앞으로 옮겨놓았다.²⁶⁾

*봉두구면(蓬頭峴面): 속칭업 호트리진 버리에 때묻은 언골



광주(廣州)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 예전에는 서울의 한강 남쪽 일대와 하남시, 성남시, 의왕, 안산, 이천, 여주, 남양주 일부 등 경기도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광주에 속했다.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현재까지 전혀 오는 성씨도 있고 사라져 버린 성씨도 있다.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李, 尹, 石, 韓, 安, 金, 池, 盧, 張, 朴' 씨 등이 있었다. 살피건대 광주에 옛날 '閻'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閻' 음은 臥億의 반절음으로 언음(諺音)으로는 '익' 이라 하며, 《증정편해(證正篇海)》에는 어열(魚列)의 반절로 발음을 '얼(擘)' 이라 하였고, 《자취보(字彙補)》에는 '門閻' 라 하였다.

《제성보(諸姓譜)》에는 광주에 복성(複姓)으로 석말(石抹)씨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는 전하는 바가 없다. 지금 광주의 산성에 석씨가 많이 사는데, 혹 그 후예로 석(石)자만을 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러 성 중에 오직 이, 안, 두 성이 경향에 가장 알려져 있다고 한다.²⁹⁾

29) 홍경모, 《증정난한자》

조선 최고의 가문, 광주(廣州)이씨

1

***** 둔촌 이집 이후로 광주이씨는 후손들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이어가면서 조선시대 최고의 가문으로 알려졌다.

김종직이 이르기를, 안동권씨(安東權氏)와 안동김씨(安東金氏), 성주이씨(星州李氏), 무송윤씨(茂松尹氏), 한산이씨(韓山李氏), 광주이씨(廣州李氏)는 대대로 의관(衣冠)을 이어 우리나라에서 으뜸간다” 하였다.³⁰

성현(成僣)이 쓴 《용재총화(龍齋叢話)》 제2권에는, 지금 문벌(門閥)이 번성하기로는 광주이씨(廣州李氏)가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성씨(成氏)만한 집안도 없다. 광주이씨는 둔촌(遁村) 이후로 점점 커졌으니 둔촌의 아들 지직(之直)은 참의(參議)였고, 참의는 아들이 셋인데 장손(長孫)은 사인(舍人)이었고, 인손(仁孫)은 우의정이었고, 예손(禮孫)은 관찰사였으며, 사인의 아들인 극규(克圭)는 지금 판결사(判決事)로 있다.

30) 임하필기 제21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우의정에게도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극배(克培)는 영의정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 극감(克堪)은 형조판서 광성군(廣城君), 극증(克增)은 광천군(廣川君), 극돈(克墩)은 이조판서 광원군, 극균(克均)은 지중추(知中樞)였으니, 모두 일품(一品)에 올랐는데, 이 네 아들은 공이 있어 군(君)으로 봉한 것이다.

광성군은 비록 일찍 죽었으나 그 아들 세좌(世佐)는 지금 광양군(廣陽君)이며, 문자(文字)·문손(文孫)도 높은 반열에 서서 서로 잇따라 끊이지 않았다.

광주이씨 시조 설화

1

***** 광주이씨는 신라 때 친원(漆原: 현재의 경남 함안)에서 일종의 부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로 하여 내려온 칠원성은 신라의 모든 성이 고려 왕건에게 항복한 뒤에도 마의태자(麻衣太子)만을 포으로 섬길 뿐 왕건에게는 굽힐 수 없다 하여 끝까지 항거하였으므로 크게 노한 왕건이 대군을 이끌고 친히 성을 함락시킨 뒤 이씨 성을 가진 인족들을 모두 체포하여 회안(淮安: 현재의 경기도 광주)지방 관헌들에게 노비로 삼도록 하였다.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광주지방 노비들 중에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대로 제주 있고 덕망 높다고 주위에 알려지면서 이를 동정한 관리들이 그들의 신분을 높여주어 고려 말경에 이르러서는 더러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

이들 중에 당(唐)이라는 이가 있어 고을 원님의 아전을 살고 있었는데 그 원님의 딸과 혼인을 맺어 그들 사이에서 대대로 제주 있고 덕망 높은 자손들이 번창하니 한음 이덕형 선생을 비롯하여 광주이씨의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의 후손들이다. 이당(李唐)이 주

인인 원님의 딸과 혼사를 맺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고려 말에 광주 고을의 원님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누런 용 한 마리가 자기 집 뜰에 있는 나무에 걸터앉아 있었다. 꿈을 깬 원님이 이상히 여겨 뜰에 나가 나무 위를 올려보니 자기의 아전인 당(唐)이 나뭇가지에 다리를 걸치고 잠을 자고 있었다. 평소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고 있던 터라 빛 날 머칠을 고민하다가 원님은 병어리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심하였다. 택일을 하고 혼수준비를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채단 끊는 사람이 가위를 잃어버리고 째째매고 있었다.

이때 병어리 신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져 “문틀 위에 가위가 있다”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매우 신기하게 여겨 원님에게 알렸고 원님은 용꿈의 신통함을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신랑신부가 혼례를 올리고 살면서 아들 다섯 형제를 두었는데 모두가 어려서부터 주위에 신통으로 소문이 났다.

이 아들 다섯이 다 같이 과거에 급제하였고 아전의 자식으로 오형제가 전부 과거에 급제한 사실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모두가 부러워하였다.

이 중 둘째가 유명한 둔촌(遁村) 이집(李集) 선생으로 고려 말 정몽주 등과 함께 높은 학분으로 이름을 날렸고, 그의 집이 있던 고을은 그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서울의 둔촌동이 되었다. 둔촌동에는 지금까지도 그가 살던 유적지와 그와 관련된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호송산(狐訟山) 전설

15

*****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광주이씨 시조할머니의 묘역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생원공(生員公) 이당(李唐)의 장인은 광주목사(廣州牧使)였는데 밝은 식견이 있었다. 여가가 있으면 신 한 켤레, 지팡이 하나로 따르는 사람도 없이 산수를 구경하고 돌아왔으며, 달밤이면 뒷동산에 올라 구경을 하고 남몰래 오래도록 탄식하고 내려오곤 하였다. 생원공은 그때에 통인으로 있으면서 간간이 그 뒤를 따라가서 그 분이 멈추어 선 곳을 살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목사공이 교체되어 떠나간 뒤에 고을에는 변괴가 있어 태수(太守)가 새로 오면 삼일만에 부인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이어서 태수가 안식구를 거느리고 오지 않으면 태수가 죽었다. 이 때문에 고을이 비어 마침내 고을 터를 옮기게 되었다. 그때에 생원공의 부인 인화이씨(仁華李氏)가 세상을 떠났는데, 하루는 생원공이 둔촌(遁村)을 불러 놓고 폐허가 된 고을의 뒷산에 묘를 쓸 만한 사유를 상세히 일러 주어 둔촌에서 어머니의 산소를 그곳에 모셨다. 그 후 12년에 큰 소송이 생겼는데 머리가 하얀 늙은이 셋이 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어찌

나 말을 잘하는지 바치 물이 흐르듯 하였으므로 당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묘를 파내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둔촌께서 외조 부인 목사공을 찾아가서 송사의 내막을 상세히 말씀드렸다.

그때에 목사공은 나이가 일백세에 가까웠는데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이 송사를 못 막으면 너의 땅이 못된다. 내가 그곳을 보아온 지 이미 오래이나 삼족구(三足狗) 세 마리를 얻지 못하여 도모하지 못하였다” 하므로, 둔촌께서 앞드려 말하기를 “저희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일찍이 발이 셋 밖에 없는 놈을 두 마리나 낳아 하도 이상하여 그대로 기르고 있습니다” 하니, 목사공이 말하기를 “그곳은 하늘이 너에게 준 땅이다. 내 집에서 삼족구 한 마리를 구했으나 나머지 두 마리를 구하지 못하여 한스럽게도 도모하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네가 세 마리를 구했으니 너의 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고 바로 개 한 마리를 내주면서 세 마리를 안고 송정(訟庭)으로 들어가 개를 풀어 놓으면 송사를 이길 도리가 있다고 하였다. 둔촌께서 하직하고 돌아와 개를 안고 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 세 마리를 풀어 놓으니 세 마리가 바로 뛰어나가 각각 한 사람씩을 물어 죽이니 노인 셋이 흰 여우 세 마리로 변하였고, 따라서 송사도 끝이 났다.

이 해에 목사공도 졸하였는데 임종하면서 둔촌더러 이르기를 “그 산은 세 번 개국 할 때마다 발복할 땅이니, 너의 집안 흥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들이 그 산을 일컬어 광이 호송산(廣李狐訟山)이라 불렀다. 즉 정림 근처요, 거천의 큰 길가인데 지금의 수리골 축좌가 이곳이다.

이상 기사는 《남원세적(南原世蹟)》에 상세히 나와 있다. 호산의 이야기는 휴징(休徵)이 소시에 감사(監司) 윤지경(尹知敬)에게서 처음 들었는데 《해동전기(海東傳記)》에 상세히 실려 있다.

명선공주와 명혜공주

15

***** 태평동의 봉국사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온다. 조선 제18대 현종 임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런 공주가 셋 있었으니 명선(明善)과 명혜(明惠), 그리고 명안(明安)공주이다.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최근에 역사드라마 <동이>의 주인공인 숙종 임금이 되었다.

그런데 현종 임금 무렵에는 마마(천연두)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했다. 현종 10년에는 천연두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서 사망자가 900명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려웠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얼굴이 곰보가 되고 미는 무서운 병이었다. 이 병에 걸리면 갑작스런 고열, 허약감, 오한이 두통 및 허리통증과 함께 나타나며, 때때로 심한 복통과 의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특유의 붉고 작은 반점 모양의 피부발진이 구강, 인두, 얼굴, 팔 등에 나타난 후 몸통과 다리로 퍼져 나가며 1~2일 이내에 물집으로 바뀌었다가 고름 물집으로 바뀐다. 고름 물집이 8~9일 정도 지나면 피부에 딱지가 생긴다. 회복되면서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 서서히 깊은 흉터가 남아

곰보라고 불리는 피부모양이 생긴다.

현종 14년(1673) 4월 27일에 동생인 명혜공주가 이 병에 걸려 9살의 나이에 죽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3개월 후인 8월 2일에는 언니인 명선공주도 14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다. 두 공주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혼례를 올리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석 달 만에 두 공주를 잃은 현종 임금은 매우 슬퍼하여 봉국사를 재로 짓고 두 공주의 영혼을 이 절 대광명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지금 봉국사 대광명전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은 두 공주의 영혼을 위로하듯 아름다운 연꽃무늬를 새겨 장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명선공주와 명혜공주가 태어났을 때의 땃줄을 담은 태실은 일제시대에 파주의 서삼릉 구역으로 옮겨져 쓸쓸하게 비바람을 맞고 있다.

사라져 버린 우리 고장의 역사기록

10

***** 김대문은 본래 신라귀족의 자제로, 신라 성덕왕(聖德王) 3년(704)에 한산주 도독이 되었고 전기 약간 권을 지었으며, 그의 《고승전(高僧傳)》, 《화랑세기(花郎世記)》, 《악본(樂本)》, 《한산기(漢山記)》 등이 고려 시대까지도 남아 있었다.³¹⁾

이 중 《한산기》가 바로 김대문이 한산주 도독으로 있을 때 쓴 우리 고장에 관한 역사와 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에서는 미모의 남자를 장식하여 이름을 화랑(花郎)이라 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행실과 의리를 본 다음 동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도의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시가와 음악으로 서로 기뻐하고, 또 산수간(山水間)을 찾아 놀며 즐기는데 먼 곳이라도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현좌(賢佐)와 충신(忠臣)이 여기서 솟아 나오고, 양장(良將 : 뛰어난 장수)과 용졸(勇卒 : 용감한 병사)이 여기

31) 삼국사기 권 제 66 열전 제 6

서 나온다”고 말하였다.³²⁾

판교에는 ‘화랑보’라는 지명이 있는데 신라 진흥왕 무렵에 화랑들이 활동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32) 삼국사기 권 제47 일진 제7 / 권 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 기록

이름을 고친 사람들

10

*****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집안 사람이 난초 꿈을 꾸는 징조를 보였다. 그래서 처음 이름을 몽란(夢蘭)이라 하였다가 후에 몽주(夢周)로 고친 것이다.

사간공(思簡公) 안성(安省)은 한쪽 눈이 조금 작아 처음 이름을 소목(小目)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조정에 벼슬하게 되어 임금의 명으로 두 글자를 합하여 이름을 성(省)이라 고쳤다.

안렴사(按廉使) 조건(趙狷)은 본명이 윤(胤)으로, 평양 관찰사 조준(趙浚)의 아우이다. 왕조를 혁명하는 즈음에 그 형에게 운며 간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자 달아나 송산(松山)에 이르러 이름을 건(狷)자로 고쳐 건(犬)이라는 부수를 쓰고 호를 송산(松山)이라 하였다. 대개 이름은 건마(犬馬)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뜻을 취하고, 호는 산이 움직이지 않고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 뜻을 쓴 것이었다. 조준은 그 아우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몰래 개국훈(開國勳)에 기록하여 억지로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하였다. 조건은 임종하면서 집안사람에게 훈계를 남겨 묘도(墓道)에 '고려(高麗) 안렴사(按廉使) 라고만 쓰고 신도(新

都)의 관작을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손들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한결같이 훈적(勳籍)대로 썼다. 그러자 비갈(碑碣)에 갑자기 천등번개가 치면서 비석 면의 관작을 쓴 부분에 내리쳐 ‘조공견지묘(趙公翁之墓)’ 다섯 글자만 남게 하였다.

문간공(文簡公) 유관(柳寬)은 처음 이름이 관(觀)이었는데 그 아들 계문(季聞)이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에 임명되자 관직명이 아버지의 이름을 범한다 하여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에 그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관(觀) 자를 관(寬) 자로 고치도록 명하면서 하교하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고쳤으니 재촉하여 빨리 부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사(靖社) 녹훈(錄勳) 때 인조가 하교하기를, “나는 이기축(李起築)과 어린 시절 함께 놀아 아명(兒名)을 부르는 데 익숙하다. 이번에 녹훈할 때도 그 아명으로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고 어필(御筆)로 써서 내렸다. 이기축은 자(字)가 희열(希說)이다. 대개 이기축은 소자(小字)가 기축(己丑)이었기 때문에 그 글자의 음이 서로 같은 것을 따른 것이다.³³⁾

둔촌 이집의 어릴 때 이름은 원령(元齡)이고, 자는 성로(成老), 호는 묵암자(墨岩子)였고, 은둔생활을 끝낸 후에는 《맹자》집의(集義)의 집(集) 자를 취하여 이름으로 삼고, 호연지기(浩然之氣)의 호연(浩然)을 취하여 자(字)로 삼았다. 둔촌의 뜻은 “신돈의 화를 피한 것이 ‘둔(遁)의 힘’ 이라 해서 둔촌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위협에서 나와서 위협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둔(遁)은 《맹자》의 지언(知言; 도리에 밝은 말) 중의 하나이다.

33)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8권 문헌지장원(文獻指掌綱). 이름을 취(諱)하다.

송언신(宋言愼)의 이름 이야기

15

송언신(宋言愼, 1542~161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여산(礪山), 자 과우(寡尤), 호 호봉(壺峰), 방암(放庵), 시호는 영양(榮襄)이다. 실학자인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그의 행장(行狀)에 의하면 그의 11세 때 이름은 허신(許愼)이었는데, '허(許)'는 할머니의 성씨를 따른 것으로, 뒤에 '허(許)'자 가운데 '오(午)'를 빼어 버리고 '언(言)'만 남겨 두어 언신(言愼)이 되었다고 한다. 선조께서 승하하시자 간신들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맘대로 하자 사골로 내려와 광주(廣州)의 반곡(盤谷)에 은둔하였다가 세상을 떠나니, 향년 71세였다.

선조가 직접 써서 송언신에게 남 모르게 보낸 편지 7건이 있는데, 이 중 '만력십삼년 십이월 십팔일 예조입안(萬曆十三年十二月十八日禮曹立案)'은 송언신에게 자식이 없어 10촌 형에게서 자식을 입양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문서이다. 그렇게 입양한 아들이 송준(宋駿)이다. 영정(影幀)은 지금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에 있는 영정각에 보존되어 있으며, 묘소는 성남시 중원구(中院區) 상대원동(上大院洞)에 있다가 여주로 이장하였다.

남효원(南孝元) 피살 사건

태평동에는 남효원(南孝元, 1454~1521)의 묘가 있고 비석의 머리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무늬가 새겨져 있다. 1799(기미년, 정조 23) 2월에 함경도 경원(慶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진국(李進國)이 남두극(南斗極)과의 목은 원한으로 인하여 그의 종조(從祖)인 남효원을 발로 차서 15일 만에 죽게 한 것이다.

《심리록(審理錄)》 제32권 기미년(1799) 2월 기록에 나오는 사건이다. 이 책에는 상처가 ‘흉당(胸膛=배와 가슴)이 청자색(靑紫色)이고 딱딱하게 굳었으며, 신낭(腎囊)이 부어올랐다’ 하고 사망원인을 ‘발에 차인 것이다’고 적었다. 함경도 현지의 보고서에는 이진국이 평소 남두극에게 쌓인 감정으로 남효원에게 분풀이를 한 것인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증인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여러 차례 검시를 하여 정절(情節)이 다 드러났다고 했다. 남두극(南斗極, 1601~1665)은 곧 정묘호란 때 안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남이흥 장군의 아들이다. 부친의 묘소와 함께 성남 태평동의 구 시청 자리에 묘소가 있었으나, 성남시 도시개발로 충남 당진으로 이장되었다.

소금장수가 백상루를 유람한 이야기

***** 평안도 안주성은 성남시와 깊은 인연이 있다.

정묘호란 때 안주성에서 적을 맞아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두 충신, 남이홍 장군과 이상안 장군의 순국 성지이기 때문이다.

안주에 백상루(百祥樓)라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데 이곳을 소금장수가 유람한 이야기가 권득기의 문집에 전해 온다.

권득기의 묘소가 분당구 금곡동에 있다.

안주 백상루는 관서지방의 명승이다. 만약 중국 사신이 오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공무로 지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 누각에 올라가 풍경을 감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런 상인이 소금을 싣고 가다가 이 누각을 지나게 되었다.

때는 겨울철로 아침 해가 아직 떠오르기 전이었다.

상인은 누각 아래 맑은 세워 놓고 백상루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저 보이는 것이라곤 긴 강에 깔린 얼음장과 넓은 들을 뒤덮은 눈뿐이었다. 구슬픈 바람은 휘휘 몰아오고 찬 기운은 뼈를 에는 듯 오싹해서 잠시도 머물 수 없었다.

상인은 “도대체 백상루가 아름답다고 한 게 누구야?”라고 탄식하며 자리를 떴다. 저 백상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누각이다.

하지만 이 상인은 제 철에 오지 않았으므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다. 그렇듯이 모든 사물에는 제각기 알맞은 때가 있으며 만약에 알맞은 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저 백상루의 경우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다.³⁴⁾

34) 권득기, 《晚竹集 拾遺》〈鹽商遊百祥樓記〉

신준미 집에서의 술자리

15

***** 윤선기(尹宜舉)가 말하기를, “동주(東洲) 성제원(成梯元)이 일찍이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과 함께 한림 신준미(申遵美, 1491~1562)를 방문하여 조촐한 술자리를 벌였다. 이때 노래를 잘 하는 한 남자가 와 있었으므로 그에게 노래를 시켰는데 미처 곡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동주가 서둘러 이를 중지시키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랐는데 동주가 말하기를, ‘소리가 너무 슬프고 목이 베이는 것을 보니 아마도 상고(喪故)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같이 서로 더불어 즐길 수가 없었다’ 하였다.

그 뒤에 들으니 그 남자의 어머니가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날 저녁에 부음이 왔었다고 한다” 하였다.³⁵⁾

신준미의 묘소는 금토동에 있다.

35) 위하필기 제16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7 예수교에 대한 정조 임금의 생각

***** 금릉 남공철이 정조 임금의 말을 기록한 가운데, 예수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정조 임금이 이르기를, “마테오 릿치(利瑪竇 : Matteo Ricci)가 이른바 야소교(耶穌教=예수교)를 부르짖어 사도(斯道 =유교의 도덕)를 쯤먹는 해충이 되었으나, 우리나라만은 예의(禮義)의 나라로서 사대부들이 공자와 맹자를 높이고 신봉하여 이단(異端)에 현혹되지 않았다. 근래에 와서 일종(一種)의 사학(邪學)이 그 설(說)에 부회(傳會)하여 가르침을 손상시키고 인륜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해치고 있는데, 그 화가 지극히 참혹하다. 그중에서도 그들의 이른바 제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은 더욱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어(論語)》에서 일컬은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신조(先祖)가 계신 듯이 하며 신(神)에게 제사 지낼 적에는 신이 계신 듯이 한다’는 말씀은 장차 무시해 버리겠다는 말인가? 이단을 물리치려면 정학(正學)을 붙들어 세우는 것보다 좋은 방도가 없으니, 이것이 오늘날 사대부들이 마땅히 두려워하며 힘써야 할 바이다” 라 하였다.³⁶⁾

36) 홍서전서 제165권 일득록(日得錄) 5

옛날에도 다이어트를 한 사람

21

실학자 이덕무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광주(廣州) 옛 고을의 민생(閔生)이란 사람은 양생(養生)하는 사람이었는데 늙어서 뼈만 앙상하되 마른 학(鶴)처럼 흰칠하였다. 자신의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에는 밥을 잘 먹어 창자가 터질 지경인데도 그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이 말하기를, 하루에 한 수저씩 줄이라고 하여 오랜 기간이 되니 나중엔 몇 수저만 먹어도 배고픈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나이 스물이 넘어서는 수련(修鍊)에 관한 서적을 읽었고 어떤 때는 아예 먹지도 않았다. 그러나 기가 허하면 보통 사람보다 병이 더 심했다. 그러므로 늘 몇 수저씩 먹는 외에 때로 기운이 부족하면 대추나 감을 몇 개 먹거나, 또 술 몇 잔 먹으면 병이 들지 않았다. 또한 도가(道家)의 양생법대로 몸과 수족을 구부리고 퍼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토해 내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학은 임맥(任脈)의 기운을 잘 조절하므로 한 번에 천리 길을 가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 나도 이것을 배웠다” 하였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쳤다고 한다.³⁷⁾

37) 청장관전서 제50권 이복구심서 3(의심구심3)

원경하(元景夏)의 천신(天神)문답

***** 판서(判書) 원경하(元景夏, 1698~1761)가 김상로의 탐욕스러움을 미워하여 일찍이 혼잣말을 하며 천신(天神)과 문답하듯이 하여 말했다.

“김상로가 저토록 뇌물을 탐하니 재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답하기를,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지” 하였다.

또 묻기를,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답하기를,

“호조(戶曹)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다.

또 묻기를, “분명 그러합니까?” 하고 답하기를,

“반드시 그러할 것이니라” 하였다.

당시에 이 말은 전해져서 우스갯거리가 되었는데, 후에 과연 그대로 되었다.

대체로 권세 있는 재상이 막대한 뇌물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공연히 돈과 뇌물을 요구하는 것은 김상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아내 역시 사나워서 전처의 자식을 매우 혹독하게 대하였고, 떠느리는 해산하였으나 먹지 못하여 죽게 했다. 그러자 아들은 이 일로 스스로 징계

하여 다시는 장가들지 않았다.

김상로의 누이동생의 딸이 매우 가난한 집에 시집갔는데 일찍이 김상로의 집안 잔치에 왔다가 머리 장식을 훔쳐 가지고 가서 자기 남편의 옷을 해 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김상로의 아내가 급히 쫓아와 그것을 빼앗아 버리자, 그녀는 시댁에 부끄러워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마침내 비림을 받았다.

김상로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이 우리 누이동생 집안을 망쳤소.”

김상로가 역모 사건으로 죄 값을 치르게 되어 처자가 모두 제주도에 유배되었으나, 아내만 풀려나 돌아오다가 북쪽 해안에 거의 닿을 무렵 회오리바람을 만나 끝내 바다에 빠져 죽었다.³⁹⁾

원경하의 묘소가 수정구 사송동에 있다.

39) 청성잡기(靑城雜記) 제3권, 성언(醒言)

7 의심을 하면 병이 된다

***** 의혹(疑惑)은 마음의 병을 만든다. 광주(廣州)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벽에 있던 조궁(雕弓)이 술잔에 비치는 것을 뱀인가 의심하여, 돌아와서 병이 되었는데, 뒤에 그곳에서 다시 술을 마시면서 비로 소환임을 알고 그 병이 끝나았다.

또, 어떤 중이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가 생 가지(生)를 밟아서 터뜨리고는 생명을 가진 동물로 착각하고 그 생각이 풀리지 아니한 채 잠이 들었다. 꿈에 어떤 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내 목숨 내놓아라.' 하므로 내일 명복을 빈어주겠다 약속하고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 그것은 곧 가지였다 한다. 의심이 해가 됨이 이와 같다.³⁹⁾

39) 《수양총서》

이륙(李陸)의 《청파극담》

1

***** 고성이씨 이륙(1438~1498)의 문집, 《청파극담》에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여 전한다.

조선 2대 정종 임금 때의 일이다. 한 환관(宦官=내시)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고 어느 해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나, 2월 그믐께였다.

우연히 동산에 들어갔더니 두서너 사람이 풀 더미 옆에서 복숭아를 주워서 먹고 있는데, 다가가서 보니 크고 붉은 복숭아가 진짜 구시원 서리 맞은 복숭아였다. 풀 더미를 헤치고 복숭아 수백 개를 얻어 상왕(정종)께 바쳤더니, 상왕은 크게 기뻐하여 곧 문소전(文昭殿, 태조의 사당)에 바쳤다.

또 태종의 처소에 보내어 아뢰기를, “다행히 선도(仙桃)를 얻었기에 감히 곁에 올립니다” 하니, 태종도 크게 기뻐하여 문소전에 올리라고 하였으나, 상왕이 이미 바쳤다고 하므로 그만두고, 옷을 벗어 복숭아를 바친 환관에게 내려주고, 곧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계엄(戒嚴)하게 하고, 상왕궁으로 행차하여 선도를 담아놓고 같이 완상(玩賞)하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밤중까지 즐겁게 놀았다.

다시 가을이 되어 그 복숭아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에, 상왕이 곁의 신하에게 명하여 그 위에 끈을 덮어두게 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봄에 열어보니, 복숭아가 다 썩어서 바침내 그 전의 복숭아처럼 살지고 아름답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떤 촌 농부는 성질이 포악하여 화가 나면 어미를 때리곤 하였다. 하루는 그 사람이 밭에 나가서 보리를 줍는데 그 날은 날씨가 아주 청명하였다가 갑자기 한 점의 먹구름이 중천에 일더니 곧 번개를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밭 가운데에다 벼락을 치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

곧 비가 개어가 보니 그 사람은 이미 박살났다.⁴⁰⁾

40) 이취(李取)의 《청파곡담(靑坡曲談)》

***** 지금의 성남시 분당동 건너편, 약수암 남쪽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이 두꺼비 능산이다. 이곳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이 마을에 아주 마음씨가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집안의 자식이라곤 이 처녀가 전부였기에 집안 일은 물론, 농사일까지 부모를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성실한 처녀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는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와서 밥 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녀가 저녁밥을 다 짓고 밥상을 차릴 때까지 두꺼비는 계속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처녀는 남은 밥 한 주먹을 두꺼비에게 주며 “내가 배가 고프니 모양이구나, 자 이 밥 좀 먹어 보렴” 하면서 두꺼비의 굶주린 배를 채워 주었다.

‘그동안 많은 집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처녀는 처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두꺼비는 그 처녀의 집을 찾아 다녔고, 그때마다 처녀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밥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 처녀는 드디어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동안 처녀가 베풀어 준 따뜻한 정성을 잊지 못한 두꺼비는 자신도 처녀가 시집가는 곳을 따라 갔다.

처녀가 시집을 간 집은 너무 가난하여 여기저기에 썩은 나무가 많았고, 지붕이 급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이었다.

이런 모습을 본 두꺼비는 이제야 자기도 그 처녀를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온갖 벌레들을 잡아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밤마다 두꺼비는 처녀가 자는 방을 지키며 떨어지는 벌레를 잡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는 아주 이상한 빛이 천장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그 빛에 의해 잡아먹힐 것만 같은 무서운 빛이었다. 두꺼비는 분명히 세 아씨를 잡아먹을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괴물에게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붉은 빛을 강하게 뿜어내기 시작했다. 한참동안 빛을 뿜어내던 괴물도 두꺼비의 강한 빛에 못이겨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이상한 괴물은 천년을 이 집에서 묵은 지네였다. 결국, 두꺼비의 힘으로 지네는 죽게 되었고 처녀는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두꺼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힘을 내뿜은 두꺼비는 그만 죽고 말았다.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처녀에 대한 은혜를 죽음으로 갚은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져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의 시신을 앞산에 묻어 주고 제사를 지내 주었으며, 그때부터 이 산의 이름이 <두껍능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⁴¹⁾

41) 상남문화원 홈페이지, 상남시사.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 온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 땅을 팠는데 암반 밑에서 두꺼비가 나와 삼밭골쪽으로 가 버렸다고 한다.

이곳은 본래 암반 위에 묘를 써야 하는데, 암반이 드러나서 두꺼비가 나갔으므로 쓸모없는 명당이 되어 집안이 망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¹²⁾

12) 분당의 땅이름 이야기, 토지공사·토지박물관

삼천병마골(三千兵馬谷)

***** 이진봉 서쪽으로 안말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자호란 때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 1583~1661)의 격전지로 유명하다. 충청도 관찰사였던 정세규는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구하러 올라오다 용인에서 패하였고, 남은 군졸을 이끌고 광주 땅인 지금의 성남지역으로 와서 다시 싸우다가 크게 패진하였다.

45일만에 조선의 굴복으로 호란이 끝난 후 어느 날 이매동(또는 서현동) 산골짜기에서 수많은 말뚝이 발견되었는데, 주인을 잃은 정세규 군졸의 말이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이곳의 지명이 돌마면(突馬面)이 되었고 말뚝이 발견된 곳이 삼천병마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 도촌동(島村洞)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도촌리(島村里)였는데 일명 용점촌으로 불리기도 했다. 도촌동에는 고성 이씨(固城李氏) 선대 중에 이원(李原)이라는 분의 묘를 모신 후에 계속 하여 양반가의 명성을 떨쳤는데 인조반정(仁祖反正) 당시 일등공신에 책록(冊錄)되었어야 할 이괄(李适)이 이등공신에 녹권(錄券)되자 공신 책록에 반감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장만(張滿)과 정충신(鄭忠信)에게 패하여 잡혀 죽었다.

조정에서는 용(龍)머리라는 곳에 묘를 썼던 그의 할아버지의 묘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라고 하여 의금부에서 나와서 이괄 할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니 묘에서 연결된 연못에서 물이 계속 나와 물을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를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스님이 양평에 어떤 곳에 가면 물길어 이곳으로 연결된 곳이 있으니 그곳을 막고 피야 물이 마른다고 하여 알려주는 대로 양평에 가보니 큰 물구멍이 있어서 그곳을 막고 와서 물을 퍼냈더니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였다.

물을 다 퍼내고 묘와 연못이 마른 후에 살펴보니 이괄 할아버지의 시

신은 없고 용의 모습이 완벽한 이무기가 발톱과 몸에 비단 자락과 비단실이 엉켜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을 치고 있어 죽였더니, 이무기의 비늘이 수년간을 흘러내렸다고 전해 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결국에는 이괄의 오대조인 좌의정을 지낸 이원(李原)의 묘소를 비롯하여 고조, 증조와 조부와 아버지의 묘를 파명당(破明堂)하여 부관참시하고 마을 주변 곳곳에 보초를 세우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여 섬처럼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여 섬마을로 불렀다는 설화가 있는 마을이다.

또 하나의 전설은 마을 양쪽으로 시내가 있어 풍수상으로 섬처럼 생겼다고 해서 섬마을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근세에 이르러 한자표기인 도촌리(島村里)로 불려온 마을이다.

- ◎ 뚝고개 : 율동과 경계를 이루는 산 122번지와 산 123번지의 산능선인데 병든 사람이나 그 가족이 정성껏 간절히 기도하면 천상의 선약(仙藥)을 다스리는 마고선녀(마고할미)가 영약을 주어 병이 완쾌되어 무병장수한다는 전설의 고개이다. 고개 위에는 두 곳에 옛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재래식 뒷간에서 볼 수 있는 바위덩어리가 있다.
- ◎ 불당골 : 능 안골 서쪽에 위치하고 율동의 불당골과 연결되어 있으며 율동에는 백제 침류왕(枕流王) 때에 불교가 들어온 후 침류왕이 임명한 열명의 스님 중 한 분이 율동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융성하여 인근마을로 퍼져 나갔는데 야탑동으로 많은 사암이 연결되었던 골짜기이다. 산 86번지와 87번지 일대의 골짜기인데 옛날부터 절들이 있었다고 전해 오는데 얼마 전까지도 논이나 밭에서 기와 조각이 출토되었던 곳이다.

성남도춘동 느티나무

1

중원구 도춘동 임야 3번지에 있는 느티나무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 온다. 고성이씨 용간공파 종중산 끝자락에 있는 이 나무는 도춘동 매화마을 아파트 4단지 뒤편의 비탈면에서 있다. 흘러 내린 흙 사이로 드러난 뿌리가 마치 바닥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줄기의 아랫부분 약 0.5m 부위에서부터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진 줄기는 다시 각각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가고 있으며, 두 굵은 줄기 사이에 가지 발달이 거의 없어 전체 모습은 아랫부분이 비고 굵은 줄기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나무의 껍질에 진한 녹색의 이끼가 있고, 대대적인 외과수술로 처리된 나무의 뒷면은 가지와 잎의 발달이 없으며 좌측의 굵은 줄기마저 지반의 경사 탓인지 앞으로 기울어 불안정해 보인다. 이 나무는 옛부터 죽은 가지라도 집에 가져가 사용하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고 하며 명절이나 제사 때는 꼭 고사를 지내 태평을 기원했던 마을의 수호목이다.

수령 400년, 높이 18m, 둘레 6.5m, 수관폭 20m이다.



하대원동 회화나무와 윤탁연(尹卓然)

***** 하대원동 자이 아파트 옆의 호야 경로당 마당에는 오래된 회화나무가 서 있다. 이 회화나무에는 윤탁연(尹卓然, 1538~1594)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 온다. 윤탁연의 본관은 칠원(漆原), 자 상중(尙中), 호 중호(重湖), 시호 헌민(憲敏)이다. 묘소는 하대원동에 있다가 양평으로 이장했다.

상대원동과 하대원동을 가로지르는 왕복 8차선의 둔촌대로를 따라 대원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면 자이 아파트 옆 주택가 안쪽에 있는 호야 경로당 마당을 지키고 있는 이 나무는 수령 250년, 높이 17m, 가슴높이 둘레 3.1m, 수관(樹冠) 폭 13m인데, 이곳은 원래 윤탁연의 선산으로, 나라에서 윤탁연의 아들 윤경원(尹慶元)에게 충신 현판이 내려져 자이를 기념하기 위해 심은 것이라 전해진다.

김약시(金若時)와 부전어동

10

고려의 명문세족 보리공신 광성군 김정(金鼎)은 아들 약채(若采), 약항(若恒), 약시(若時) 삼형제를 두었다. 장남 약채는 문과에 급제하여 좌사의대부로 조반의 옥사를 다스리고, 조선개국 후에는 관직에 나아가 대사헌,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차남 약항은 문과에 급제하여 주부가 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 염문계점사, 집의를 지냈고, 개국 후에는 대사성이 되고 평산군에 봉해졌다. 셋째 약시는 사마시와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직제학에 이르렀다.

음촌(陰村) 김약시는 태조 이성계와 동갑으로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그는 대과 소과를 태종과 나란히 합격했다. 이렇다면 김약시가 조선의 개국을 도와 현실과 타협했다라면 높은 벼슬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형과는 생각을 달리했다.

공양왕 4년(1392)에 고려가 망하자 약시는 망국의 한을 안고 송도(松都)를 떠나 부인과 함께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다. 망국의 신하가 무슨 체면으로 말을 타고 길을 떠나겠는가? 발이 부르토고 힘이 빠져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으나,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한강을 건너서 남한산성

남쪽 금광동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김약시 부부는 우선 급한 대로 나무를 엮어 만든 집에 풀을 뜯어 지붕을 만들고 겨우 비바람을 막고 살았다. 의관은 남루하고 행동은 슬픔에 젖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따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혹은 술이나 음식 등을 가져와 대접해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부전어동(不傳語洞)이라 하였다.

그는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슬피함이 얼굴에 나타나 사람들은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태조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광주 금광동에서 김약시를 찾아내었다. 태조는 원래의 관직을 주고 다시 억지로 벼슬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김약시는 “눈병을 앓아서 앞을 보지 못한다.” 핑계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태조는 김약시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대접을 더욱 후하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의 친필로 특별히 임금의 호인 ‘송헌(松軒)’ 두 글자를 써 주고, 성명방의 집 한 채를 하사하는 등 옛날의 교분을 생각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였는데 김약시는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김약시는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좋지 못한 시기에 태어나서 종묘사직(宗廟社稷)의 망함을 직접 보고도 죽지 못하고, 또 홀쭉 속세를 벗어나 멀리 숨지도 못하는 것은 선인(先人)의 무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거든 곧 여기에 장사하되 봉분도 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고, 다만 둥근 돌 두 개를 좌우에 놓아두어 망국의 천부(賤夫)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죽하다” 고 하였다. 그가 죽자 사손이 그 유언대로 하였다.

이렇게 망국신으로 두문불출하고 항상 고리를 생각하며 단대리 고개에 올라 송도를 향해 한을 달래곤 하였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멀리

하고 신골짜기에 숨어서 일편단심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으랴! 그래서 김약시에 관한 사적은 없고 다만 이야기로 구전될 뿐이다.

도암 이재는 “한결 같은 적심(赤心)은 금석을 꿰뚫기에 죽하고 천지를 통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성남시 단대동의 단대리(丹垞里) 고개는 김약시가 일편단심으로 고리를 생각하며 북망재배(北望再拜)하던 곳이다.

조선 현종 때에 8대손 승지 우형(宇亨)이 야대(夜對)를 당하여 유사에 대하여 언급하니, 왕이 재삼 찬탄하며, “너의 할아버지의 절조는 가히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고 하였다.

광주의 선비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음촌 같은 고상한 절개로서 아직까지 현양(顯揚)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수치이다” 하고 순조가 행차할 때에 소리 높여 청원하였다. 임금의 연유를 듣고 명하기를,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실시하라” 고 하였다. 그리하여 남공철이 시장(謚狀)을 지어 포상을 논의하고,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추증하고 충징(忠定)의 시호를 내렸다.

신구대학 자리에 있던 김약시의 묘는 1969년,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 공민산 앞으로 이장하였고,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되었다.

*야대(夜對): 밤에 임금에게 유교의 경전을 비롯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법도론 강의하고 토론하던 제도

여수동 마을 이름의 유래와 김유탉(金允濯)

***** 김유탉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順天), 병조참판(兵曹參判) 김사원(金嗣源)의 둘째 아들이다. 벼슬은 울진현령(蔚珍縣令)과 문천군수(文川郡守 : 중종 때), 합천군수(陝川郡守), 강릉부사(江陵府使)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 순절하였다.

여수동의 유래에 나오는 인물인데, 마을 앞의 개울이 유난히 맑고 깨끗하다 하여 논어(論語)의 한 대목인 금생여수(金生麗水)에서 여수(麗水)를 떼어다가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 오는 인물이다. 여수동은 일명 예술, 여수울이라고도 한다.

묘소는 여수동 산 28번지다.

금광동의 특산물이었던 금광초(金光草)

남한산성 남문 밖 세촌면(細村面) 금광리(金光里) 김씨(金氏)의 밭에서 나는 담배(煙茶)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로 일컫는다. 그래서 먼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모두 일컬어 '금광초'라 하였고, 지금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 모두가 그 이름을 빌려 쓴다.

호남의 상관초(上官草)는 금광초와 명성이 같은데, 상관면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진품이라고 한다. 상관면은 전북 전주(州)와 임실(任實) 사이에 있다.

산골짜기 50리가 병마(兵馬)를 숨길 만한 곳이어서 '만마동(萬馬洞)'이라 하였다. 그 골짜기 안의 밭에는 모두 오로지 담배만 심는다. 진안(鎭安)에서도 담배가 생산되는데 곧 그 여파(餘波)이다.

영남에는 신녕초(新寧草)가 있는데, 상관초와 비슷하지만 독이 있다. 수원(水原)의 홍초(紅草)는 금광초와 비슷하지만 품질이 못 미친다. 대체로 서쪽 것이 남쪽 것보다 낫다. 성천(成川)에는 담배밭이 강동(江東)·삼동(三登)의 경계까지 뻗어 있으니,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성천초(成川草)라 한다.

모두 강동과 삼등지방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그 가늘게 썰어 색깔이 나는 것은 성천 것이 더 낫다.⁴³⁾

금광동은 고려 말, 음촌 김약시가 와서 살면서부터 광산김씨의 터전이 되었다. 그래서 훗날 광산김씨가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금광리(金光里)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마을에 사는 김씨의 밭에서 나는 담배가 조선 최고의 명품 담배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금광초는 신선이 먹는 풀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43)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권 순일원(旬一編) 금광초(金光草)

***** 지금의 분당구청 뒤 통로골에서 울동의 새마을연수원으로 가다가 고갯길에 못미처 왼쪽편에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는 '붕어 반 물 반'이라는 민지 못할 소문 때문에 혹시나 하고 강태공들이 밀러오고 있다.

옛날에 저수지의 위에는 노장군이라는 농부의 집이 있었는데 천석군이나 되는 부자로 살았으며, 욕심만 부리다가 알기지로 망해 버린 전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노장군이라는 농부는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난했기에 글공부를 하지 못한 일자무식이었다. 하지만 심덕 하나는 모범이었고 기기에다 힘이 장사로 이름난 사람이라 그를 노장군이라 불렀다. 힘이 장사라는 덕분으로 어느 부잣집 며슴살이 10여 년만에 불쌍한 처녀에게 장가도 들고 초가집도 하나 지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그 집이 바로 저수지 뒤의 밭에 있었는데, 하루는 백발도사 한 분이 노장군집을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지라 노장군은 그 도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려 달라고 간청했다.

도사가 한참 노장군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당신의 집 옆에 있는 샘물 길을 집 뒤로 돌리서 집을 휘감고 흐르게 하면 천석군 부자가 될 터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느냐”라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귀담아 들은 노장군은 부랴부랴 도랑을 파고 물줄기를 집 뒤로 돌렸다. 그러자 그 다음 해부터 풍년이 들어 농사마다 풍작이고 밭을 사면 논이 되고 전답은 불 붙듯이 붙어, 이연 20여 년이 지나자 그 도사의 예인대로 천석군 부자가 되었다.

천석군 부자가 되고 보니 수십 명의 머슴을 거느리게 되고, 사랑방에는 지나가는 선비나 과객이 날마다 들끓어 대각의 명절을 방불케 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노장군은 무식하여 선비과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차츰 싫어지기 시작했다.

수십 명씩 찾아오는 선비과객의 침식을 제공하는 데는 많은 양식이 소모되기 때문에 방문객이 싫어질 만도 하였으나, 거부의 체면상 박대할 수도 없어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옛날의 백발도사가 나타났다. 노장군은 한량없이 반가웠다. 노장군은 백발도사를 붙들고 제발 과객이 좀 덜 오는 비책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도사가 하는 말이 “지금의 물줄기를 원상태로 다시 돌려라”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 무식하고 미련한 천석군 노장군은 도사가 말한 대로 집 뒤 물줄기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붐비던 선비과객의 출입도 줄어들고 흉년은 해마다 계속되어 가세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자 집안에는 우환이 들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으며, 머슴은 하나들 집을 나가는 패망의 징조가 보이고 수년간의 한발로 인하여 논은 밭이 되고 많은 전답은 짐차 황무지로 변하여 살림도 종말을 보게 되어 노장군은 무일푼의 알기지가 되고 말았다.

집안은 패망해도 노장군의 몸은 건강했기 때문에 팔십이 넘도록 일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 오고 있다.

노장군의 건강비결은 새마을연수원 넘어가는 고개 오른쪽에 약수가 있었는데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요즘도 저수지 뒤편 노장군의 집터에서는 천석군 부자 때 쓰던 사기와 청기와 조각이 출토된다고 한다.

복우물과 금베들

***** 성남시 진입로인 북정로 중간지점에서 좌측을 바라보면 상수도 정수장이 있는데, 그 뒤편 밭에서는 요즘도 기와조각과 도자기조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장산(靈長山) 중턱에는 자손이 끊어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된 지난날 고관들의 묘비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 주듯 여기 저기에서 눈에 띄고 있다.

그 중에는 연일정씨(延日鄭氏)라고 밝혀진 묘가 있는데 역시 대가 끊어져 외손봉사(外孫奉祀)를 받아온 사실과, 그의 사위가 윤경지(尹敬之, 홍천현감·원주진관 병마절제도위 역임)인데 경원대학교 건너편 양지마을에 묘비가 있고 비문에는 「無子有一女外孫奉祀」라고 기록되어 대를 이을 아들은 없고 딸 하나만 두어 대가 끊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端宗)을 영월(寧越)로 귀양 보내고 왕위에 오르자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과 충신들이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김질(金秩)의 고자질로 탄로되자 연루된 자들이 모조리 잡혀가 죽음을 당하던 때이다.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물론 외가, 처가까지 몰살시키
는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젊은 선비 정호(鄭澗)는 난을 피해 어린
자식들과 부인을 데리고 이곳 저곳을 숨어 다니다가 마침내 지금의 북
정동(福井洞) 정수장 뒤 산비탈에 당도하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기는 없고 깊은 산중이었다.

여러 날을 숨어 다니느라 허기지고 지친 몸이라 두 내외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平原
大君; 세조의 동생이며 세종대왕의 일곱째 아들로 그 중 가장 총명하
고 건강하여 세종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19세 때 병을 얻어
요절하자 지금의 수진초등학교 뒤편 양지쪽에 장사를 지냈었다)의 혼
령이 나타나 이르기를 “정호는 듣기라. 비록 나의 형(世祖)의 왕위찬
탈에 반대하여, 조카 단종(端宗)의 복위를 꾀하다 쫓기는 몸이 되었으
나 나라가 안정되면 사면(赦免)이 될 터이니 다른 곳으로 방황하지 말
고 이곳이 명당자리이니 터를 잡고 처자들과 잘 살도록 하여라.” 그리
고 두 가지를 당부하였는데 “다만 두 가지를 알려주마. 첫째는 영장산
꼭대기에 시신의 뼈가 묻혀서는 아니 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그 자리
에 깊은 샘을 파도록 하라. 그러면 10년의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복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대손손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이 번창하고
훌륭한 명문이 되리라” 하였다.

꿈에 놀라 켜 정호는 당장 그곳에다 움막을 짓고 밭을 일구며 우물
을 깊이 파기 시작하자 구슬 같은 샘물이 펄펄 쏟아졌다. 그리고 일구
어 놓은 밭은 눈으로 번하고 가뭄은 점차 번창했으며, 늦게나마 사면
(赦免)도 받게 되자 과거에도 응시하게 되어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
다.

정호의 부인 유씨는 길쌈 솜씨가 뛰어나 집안에는 사시사철 베풀 소

리가 풀일 날이 없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 세경(世卿)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 지방의 명문으로 가세가 대단하였다. 증손 경순(景鎔)도 돈영부 주부를 역임하였고 고손자인 정립도 급제하여 공조참판까지 지내는 역대명문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가보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정호의 아들인 세경이 한평생을 길쌈으로 가문을 일으킨 어머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금 베를 하나를 마련하여 어머님의 영전에 바쳤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임진왜란(壬辰倭亂),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정립이 선조의 명을 받아 일본(日本)의 도꾸가와 이에야스의 습위식에 사절로 가게 되었다.

이 틈에 떠돌이 머슴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종과 눈이 맞아 여종으로부터 이 집안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었다. 비밀인 즉, 영장산을 돌보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뼈가 산 정상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금 베들이 대대로 전해 오는 내력이었다. 그 머슴은 이웃마을의 몰락한 세도가에게 돈 몇 푼 받고 영장산의 비밀을 판아먹고 말았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146명의 동포를 데리고 돌아온 정립은 그 같은 사실을 알 리 없어 관직에만 충실했으며 딸 하나 낳고는 출생이 없고 가문도 기울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정립이 죽고 얼마 안 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나 오랑캐들이 이곳까지 들이닥쳐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仁祖)를 포위하고 살육을 일삼자 이 집 식구들도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정립의 부인은 금베를 판은 그대로 두고 떠날 수 없다 하여 밤중에 복우물 속에 집어넣었다.

기회만 노리던 머슴은 이 광경을 놓칠 리가 없었다.

모두 다 피난을 떠나자 머슴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집으로 돌아와서 금베튼을 건지내어 도망친 작정으로 복우물에 내려가는 순간 난데없이 '꽝' 하는 천둥과 함께 우물이 무너져 그는 죽고 말았다.

그 후 피난 갔던 정립의 부인마저 돌아오지 않았고, 이 집안은 폐허로 변해 버렸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금베튼을 찾기 위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된 적이 있었다고 진한다.

성부산(星浮山)의 유래

태평동 봉국사가 있는 산자락을 성부산(星浮山)이라고 한다.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뒤 백제 땅 여러 고을에 군사들을 주둔시켰는데 한산성에도 군사를 배치하였다. 서기 661년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산성을 고구려 군사들이 포위하였다.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과 말갈 장군 생해(生偕)가 이끄는 연합군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신라군을 공격했는데 40여일이나 공방이 계속되었다.

날췌고 용감한 공격군은 활 뿐 아니고, 돌을 쏘 날리는 도구인 포석(砲石)으로 성을 파괴하니, 절을 뜯어 임시로 기위가면서 성주 동타천(城主 冬陲川)을 비롯한 군사들과 주민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아 냈지만 화살은 동이 나고 먹을거리는 바닥이 났다.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병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건만 구원병은커녕 적군의 화살만 날아들었다.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부딪혀 남녀노소 모두 서로가 붙들고 울고불고할 뿐이었다. 무열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산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신하들도 모두 뽕죽한

수가 없어 머무적거리고만 있었다.

김유신이 아뢰기를 “일이 급하운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오니, 다만 신술(神術)로만 구할 수 있겠심더” 하였다. 이에 소두방산에 단(壇)을 설치하고 신술을 닦으니 갑자기 큰 항아리(大甕) 같은 불덩어리가 단 위에서 솟구쳐 올라 살뼉처럼 북쪽으로 날아갔다.

한편 한산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이찌할 바를 몰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홀연히 큰 불덩어리가 남쪽 하늘로부터 날아오더니 벼락과 같이 내리치면서 적의 포석기 30여 곳을 때려 부수고, 활과 화살, 방패 등을 모조리 부수었다. 적군은 모두 땅에 엎드려 죽은 듯이 있더니 한참만에 깨어 일어나 비실비실거리다가 부리나케 도망가 버렸다.

이 사건은 《삼국유사》 뿐만 아니고, 《삼국사기》에도 기록돼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날짜까지 6월 22일로 나와 있다.

또 하나의 성부산은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와 덕천리에 걸쳐 있는데 전설 속의 성부산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성남의 성부산일 가능성이 더 크다.

울동 '활터거리' 그 유래

***** 한명옥(韓明岳, 1567~1652)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 옥재(渾哉), 호 율헌(栗軒)이다.

1635년(인조 13) 경기방어사 겸 광주목사로 근무할 때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준다고 환곡의 창고를 숲내가에 세웠다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곡식이 적군에게 점령당하여 외교에 밝은 방어사가 적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모함을 받았으나, 많은 훈신(勳臣)들의 비호로 파직만 당하였다. 낙향하여 후학들에게 학문과 활쏘기를 가르쳤는데, 활을 쏘던 장소인 울동 산 6번지와 6-2번지 일대가 지금도 활터거리라고 불린다.

묘소는 성남시 분당구 울동(栗洞) 산 9-1번지에 있고, 경향각지(京鄕各地)에서도 보기 드문 '품자(品字) 형식' 을 갖추고 있다.

묘역과 비석, 상석, 망주석 등 석물의 양식이 특이하여 2009년 6월 25일, 성남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다.

탄천 이지직(李之直) 묘의 풍수지리

2

이지직(李之直, 1354~1419)은 둔촌 이집의 아들이다. 직제학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 때 이방원(태종)이 타고 있는 말고삐를 잡고 형제간의 싸움을 목숨을 걸고 말리다가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마침 이지직을 신뢰했던 이방원과 변계량이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로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탄천가에 은거하며 독서로 소일하는 한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제자들이 그를 탄천선생이라고 불렀다.

이장손(1390~1420)의 본관은 광주이고, 탄천 이지직의 장남이다. 30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묘자리를 살피는데 풍수를 보는 사람이 자리를 정하고는 좋은 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장자에게 나쁘다고 했다. 동생 이인손이 이곳에 장사지내지 말자고 만류했는데 이를 뿌리치고 안장하였다.

풍수지리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는 이듬해에 죽었고, 죽은 후에 아버지와 함께 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리 운곡서원에 배향되었다.

서울 안암동의 유래와 한계희(韓繼禧)

한계희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순(子順), 시호는 분정공이다. 세조 14년, 임금의 병세가 매우 급해지매 한계희(韓繼禧, 1423~1482)를 불렀더니 세자가 곁에 모시었다.

임금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평일에 조훈(祖訓)과 같은 조장(條章)을 지어 너에게 주려 했으나, 이제는 할 수 없으니 대략 그 요체만 들어 말하겠다. 첫째는 경천사신(敬天事神)이요, 둘째는 봉선사효(奉先思孝)요, 셋째는 절용애민(節用愛民)이니, 네가 이를 유의하여 나의 명을 허물지 말라” 하고는 곧 계희로 하여금 세자에게 마지막 부탁을 전하게 하고 곤룡포와 면류관을 가져다가 세자에게 내리고 그 이튿날에 승하하였다.⁴¹⁾

세종 임금이 장서각(藏書閣)을 세우고 중국 등 사방 각처에서 양서를 수집하여 비치하니 공이 빠짐없이 다 읽고 머릿속에 넣어 다니니 사람들이 탄복하고 당태종(唐太宗)의 비서 우세남(祕書 虞世南)과 같

41) 《사가집(四佳集)》〈한계희 비문(韓繼禧碑文)〉

다하여 세남비서(世南秘書)라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걸어 다니는 비서(秘書 : 국가에서 가장 아끼는 보배롭고 소중한 책 또는 비밀스러운 서류를 칭함)라고도 하였다.

1468년(예종 원년) 9월에 남이(南怡)가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제수 되었을 때, “남이(南怡)는 병권을 맡길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라는 충언을 하였다. 이에 남이를 의산군(宜山君) 겸 사복장(司僕將)으로 즉시 교체하게 하였다.

어느 때에는 한계회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세조가 손수 기도문(祈禱文)을 써서 빌었더니, 병이 나았으므로 불러 들어서 이르기를, “경의 병에 대하여 걱정이 깊으므로 심지어는 경의 성명마저 듣기가 싫더니 오늘 경을 만나 분 줄은 몰랐다” 하였다.

한계회는 명회(明滄)의 재종형으로서 여러 대의 명망과 부귀가 혁혁하였다.

그러나 홀로 지조가 있어서 봉록의 수입으로 종족 중에 외로운 자와 흠어미 된 이들을 돌봐 주었으므로 가세가 가난하여 조식을 거친 음식으로 때웠으며 늙어서 더욱 가난이 심했다. 형 계미가 민망히 여겨 때로 구휼하였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어느 날 명회의 집에서 문회(門會)를 열었는데 모두들 말하기를, “서평이 나이가 이미 들었는데도 생활이 너무 검소하고 차림새가 초라하여 보기 민망하니 어찌 조처할 방법을 생각지 않으리오” 하였더니 명회가 말하기를, “이건 나의 책임이오” 하고는 곧 지필을 가져다가 문권 한 부를 작성하되 친족으로 그 자리에 있던 이의 이름을 열거하고 위에는 공의 청덕(淸德)을 서술하고 다음에는 문중에서 그를 받들지 못했던 과오를 서술하여 곧 흥인문(興仁門) 밖 고암(波岩) 아래에 있는 벼논 옆섬지기를 마련해서 바쳤더니 공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명희 이하 친척이 모두 일어나 함께 절하며 찬성하니 형세가 중지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서 비로소 받았다.

그러나 공은 불안한 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취해서 부축받고서 밤에야 돌아왔다.⁴⁵⁾ 서울 안암동의 유래가 된 이야기이다.

45) <기재삼기>

임격정(林巨正)과 다래냉쿨

가

***** 상대원동 공단 뒤편 보통골에는 5백여 년 된 상수리나무가 있어 예전에는 동네사람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그 상수리나무 아래가 옛날 의적 임격정의 생활터전(소굴)이라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임격정(林巨正)은 조선 명종 때(1547~1567) 사람으로 양주 땅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감히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전국의 씨름판을 돌며 송아지란 송아지는 다 몰아오고 또한 활쏘기와 관 쓰기 대회 역시 일등은 임격정의 몫인데도 백정 출신이라 벼슬은커녕 항상 천대만 받고 살았다.

그 당시 척신들이 권력을 잡고 뇌물을 받아먹고 벼슬자리를 주었으니, 지방의 수령들은 뇌물로 준 돈의 본전을 챙기려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기가 일쑤이고, 만약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잡아다 감옥살이를 시키는 부패한 세상이었다. 임격정도 아버지가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관에 붙들려가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오는 것을 보고 울분을 삼키며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 비록 천민이라 벼슬은 못할지

라도 붙쌍하고 죄 없는 백성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의적단(義賊團)을 만들었다. 우선 뇌물을 거둬먹는 탐관오리들의 비릇을 바로 잡기로 하고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일대를 누비며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쌓아놓은 양곡창고를 모두 털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 같은 선행 때문에 백성들은 의적인 임격정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고, 임격정과 같은 패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숨겨주고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관가에서는 임격정을 잡기 위하여 경기도 일원의 지방수령들을 모두 무관으로 임명하고 포도관을 파견하여 임격정 체포에 혈안이 되었으나 신출귀몰한 임격정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역근이라는 포도관이 임격정의 부하 여럿을 잡아 죽였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격정은 개성 관아를 습격하여 이역근을 잡아 죽이고 말았다. 그 후로는 임격정이 나타날까 봐 떨고 있는 지방수령이 많았고, 임격정이 나타나 창고를 몽땅 털어 백성에게 나누어 줘도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도 못하였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짜 임격정이 전국에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 어디로 가나 임격정이라고만 하면 관리들도 벌벌 떨고 금은보화를 바쳤다. 이 같은 세월이 수년 동안 지나고 보니 나라에서 대대적인 임격정 토벌이 시작되어 지금의 상대원 보통굴의 다래덩굴 소굴을 떠나 황해도 땅 구월산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결국은 포도사인 남치근의 계략에 말려 임격정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 후 탐관오리들 때문에 임격정 같은 의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 조정에서는 관리채용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전한다.⁴⁰⁾

40) 임격정 이야기는 《병중실록》에 기록되어 있음.

진터 벌의 전설

1

***** 진터 벌은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보이는 광나루쪽 들판을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한 부인의 참혹한 일화가 서려 있다.

때는 인조(仁祖) 14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은 그 해 겨울 강화(江華)쪽으로 피난길을 떠나가려다가 오랑캐들이 이미 그 길을 막고 있다 는 급보에 집하자 남한산성으로 파천(播遷)하였다. 왕이 떠나 버린 장안은 더욱 크게 쓸망이고 저마다 피난을 떠나느라 아우성들이었다.

조정 벼슬아치들의 권속들도 남한산성으로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대부분이 부녀자들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일행이었는데 그 중에는 김승지 부인과 이참판 부인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일행은 광나루를 건너자마자 오랑캐의 장수인 용골대(龍骨大)가 거느린 적병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가장 두려움에 놀란 것은 부녀자들이었다. 드디어 적병들은 젊은 부녀자들만 별도로 가려내고 밤이 되자 저마다 한 멍씩 강제로 끌고 사라졌다. 이참판 부인은 용골대에게 끌려가고 김승지 부인

도 한 장수에게 끌려갔다. 그러나 김승지 부인은 이미 모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부인은 은장도로 적 장수의 가슴을 찔러 죽이고 그 장수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휘두른 칼에 맞아 자신도 죽음을 당했다. 이튿날 이 사실을 안 적장 용골대는 대로하여 김승지 부인의 시체를 토막 내어 한강에 버리게 하였다.

이와 반대로 용골대에게 끌려갔던 이참판 부인은 용골대의 품안에서 자진하여 추파를 던졌고, 전쟁이 끝나자 그의 첩이 되어 청(淸)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일찍이 그녀는 정승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약, 청나라 병사에게 끌려가 곱탈을 당한다면 자기는 욕을 당하기 전에 자결하고 말겠다고 큰소리 쳤었다. 이와 반대로 김승지 부인은 그 때를 당해 봐야 알겠노라고 하여 좌중의 지탄을 받았었는데 결과는 이렇듯 반대로 되고 만 것이다. 이래서 세상만사는 실로 말보다 그 실천이 어렵고 중요한 것이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 군사들도 물러가고 평온한 세상이 되자, 김승지 부인의 가혹한 죽음을 슬퍼하여 두고두고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경민(李景閔) 묘비 거북 받침의 내력

15

***** 이경민(李景閔, 1578~165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 여은(汝隱), 호 양촌(陽村). 고등동 산 37-1번지에 묘소가 있는데 비석의 받침돌이 매우 독특한 거북이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경민은 한참 공부할 시기인 15세 때 임진왜란(1592)을 만나 시기를 놓쳐 늦게서야 공부를 시작하여, 1613년(광해군 5)에 진사가 되고, 1617년(광해군 9)에는 인왕산 아래 성첩(城堞)과 담장 밖 집짓는 공사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1652년(효종 3) 7월 9일에 세상을 뜨자 고등동의 덕수이씨 선영 남쪽 기슭에 장사지내고, 누차 중적을 받아 의정부 좌의정에 이르렀다. 문장과 글씨가 능하여 비문과 묘지명은 도맡아 하였다.

이경민에게는 자녀가 13남 2녀로, 그 자손이 매우 번창했다. 그를 낳은 아버지는 이통(李通)인데 이적(李適)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이경민의 아버지가 휴곡현령(歙谷縣令) 재임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리고는 이경민을 불러 등을 긁게 하고는 “꿈에 다섯 마리의 거북이가 반송방(盤松坊)

옛 집터의 고목 아래에서 나오더니 순서대로 내 다섯 발가락을 삼켰단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발가락을 삼킨 거북 꼬리의 크고 작은 비늘이 차례로 이어지더니 온 집안에 가득 차는 게 아니더냐! 그래서 황홀한 나머지 깜짝 놀라 일어났단다. 내 듣자 하니 거북이는 자손을 상징한다는구나. 이를 통해 너희 형제 중에 네가 응당 커다란 경사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경민의 비석을 세울 때 비석의 받침을 특이하게 귀부(龜趺 : 거북이 모양의 받침들)를 사용하였는 바, 이는 성남 지역에서 이경민 묘소가 유일하다.⁴⁷⁾

47) 이경민묘갈(李景民墓碣)

이곤(李坤) 묘비에 새겨진 삼족오

15

***** 관교에 있는 연성군 이곤(李坤, 1462~1524)의 묘소에 있는 비석에는 귀중한 문양이 하나 새겨져 있다.

묘소는 분당구 관교동 산 25-1에 있는데, 비석의 머리 부분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한 삼족오(三足鳥) 무늬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묘비는 성남지역에서는 이곤의 묘가 유일하며, 전국적으로도 희귀하다. 또한 조선시대 삼족오가 있는 묘비 중 가장 연대가 이른 것이기도 하여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성남시 향토문화유적 제 6호로 지정이 되었다.

연성군 이곤의 본관은 연안이다. 연안이씨는 조선시대에 상신(相臣) 9명과, 대제학 7명, 호당(湖堂) 10명, 공신 11명, 장신(將臣) 4명, 문과 급제자 261명을 배출한 가문이고, 연성군 이곤은 증종반정 공신이다.

아탑동 상희공원 이야기

-이상희(李上熙) 대위의 살신정신

***** “추락…탈출하겠다…전방에 마을이…탈출불가…”

1991년 12월 13일, 전라도 광주 상공에서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 덕흥마을 옆에 추락했고, 조종사 이상희는 F5A 4번기와 함께 산화하였다. 이상희 대위는 민간인 피해를 막으려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민간인 피해가 없을 추락지점을 찾느라 탈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이 녹음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고 이상희 대위(당시 23세 · 1계급추서, 군번 75252)는 추돌직후 낙하산 탈출기회가 있었으나 기체가 민가를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다가 애기와 함께 산화한 것으로 밝혀져 군 내외에 큰 감동을 주었다.

이 대위는 사고 당일 하오 3시 1분께 F5A번기를 몰고 빨간 마후라를 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중사격 비행실습을 마치고 착륙하려던 중, 앞서 착륙을 시도하던 F5A 3번기와 공중추돌했다. 사고 직후 3번기에 타고 있던 교관 한호승(韓浩勝) 대위(당시 29세)는 낙하산으로 비상탈

춘, 목숨을 건졌으나 이 대위는 기체가 가옥이 밀집한 덕흥마을을 향해 급강하하자 민가가 없는 추락지점을 택하다 비상 탈출할 시간을 놓친 것이다.

덕흥마을 앞 미나리 밭에 추락, 산산조각이 난 기체에서 뒤늦게 찾아낸 녹음테이프에는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전방에 마을이 보인다. 탈출이 불가...”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대위가 외친 마지막 욕성이 녹음돼 있었다.

공중추돌에서 추락까지의 사고 순간을 지켜 본 이 마을 문구식(文龜植) 씨(65)는 “추돌한 비행기 중 한 대가 추락지점을 찾듯이 방향을 바꿨다”며 “만약 그대로 추락했다라면 덕흥마을 민가를 덮쳐 엄청난 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위가 애기와 함께 추락한 지점은 민가에서 불과 1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나리 밭이다.

당시 추락으로 파편이 튀어 이 마을 율형철 군(당시 11세·극락초교 4) 등 주민 3명이 중화상을 입고 가옥 4채의 울타리들이 부서지는 피해가 났으나 이 대위의 희생정신이 없었더라면 더 큰 참화가 빚어질 뻔하였다. 한편 한호승 대위의 비행기는 추돌 후 약 3km 떨어진 신창동 이정현씨 소유의 오리사육장에 추락하였으나 한호승 대위는 추락 직전 낙하산으로 탈출하였고, 오리 300여 마리가 때죽음을 당했다.⁴⁹⁾

이상희 대위의 고향은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이다. 성남시에 사는 아버지 이주열 씨(당시 61세·농업)와 어머니 이원순 씨(당시 53세)의 장남으로 2남 6녀 중 일곱째인 이 대위는 어릴 적부터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다. 항공대학 항공운항과를 졸업하고 학군 17기로 공군 소위로

49) 동아일보 1991-12-14 14면

임관, 조종사의 길에 들어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평소 침착하고 성실한 초등·중등·고등비행 훈련과정에서 줄곧 수석을 차지했던 이 대위의 순직 소식을 들은 동료 및 교관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전투조종사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다.

공군부대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 이 대위의 아버지는 “딸 여섯을 낳고 얻은 귀한 아들을 잃어 원망도 컸지만 민가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석을 지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젠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눈물을 감췄다.⁴⁹⁾

그 당시 국민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실었다.

‘살신성인’이란 말이 있다. 자기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이다. 《논어》의 위영공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지사인인 무구생이해인 유살신이성인(志士仁人 舞求生以畀仁 有殺身以成仁)’이라고 한 글귀가 나온다. 뜻이 있는 인사나 어진 사람은 목숨을 아껴 인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고 인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 또는 동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또 하나의 꽃다운 젊은이를 잃었다는 것은 여간 애석한 일이 아니다. 그의 넓은 우리 마음 속에 송고한 희생정신의 귀감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⁵⁰⁾

49) [한국일보] 1991-12-16 23면 1286자 사회 해설

50) [국민일보] 1991-12-17 02면 1055자 종합 권업, 논단

궁내동 샘터 이야기

1

***** 궁내동의 망재 아래 있는 옛 터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쪽이 되며 궁안과 백현동 새말의 사이가 된다.

이곳은 조선 초기 이홍객이라는 큰 부자가 살던 곳이라고 한다. 그는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므로 원성이 높았는데, 당시 정승 맹사성(1360~1438)에 의하여 처단되었다고 한다. 그가 모아둔 재물을 모두 이곳 샘터에 묻었으므로 인근 사람들이 재물을 찾기 위해 샘터를 파면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서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 후 백현동 새말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샘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며,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이 지방에 전해지고 있다. 그가 오리를 키웠다는 어래논(오리논 : 5마지기 논), 미나리를 심었다는 구레논(6마지기 논), 개에게 밥을 주기 위해 정작했다는 개논(7마지기 논) 등 구전되는 이야기가 많다. '샘'은 고어에서 '시+암'으로 '새다(루, 漏)'와 동근어로 보고 있다.

금단선사와 소년

***** 남한산성 동문 북쪽에 있는 장경사(長慶寺)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는 남한산성 안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금단선사라는 스님 한 분이 수도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금단선사는 우연히 한 소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소년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되어 매일같이 바둑을 두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소년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소년에게 대추와 꽃감을 달여서 먹이면 병이 낫는다고 알려주었다. 한여름인데도 소년은 대추와 꽃감을 구하겠다고 집을 나섰다.

금단선사는 어린 소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자신이 대추와 꽃감을 구하러 나서기로 하였다. 그는 소년에게 어머니를 잘 간호하라고 당부한 후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축지법(縮地法)을 써서 묘향산(妙香山)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사이 소년의 어머니는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금단선사가 꼭 일주일만에 꽃감과 대추를 구하여 돌아왔을 때는 소년의 모

숨도 보이지 않았다.

금단선사는 날마다 고개 위에 올라 소년을 기다렸으나 소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금단선사는 돌아오지 않는 소년을 못 잊는 한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고개 위의 바위 옆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바로 지금의 장경사(長慶寺)라는 것이다.

울동 서근배미(서근바미)

***** 울동의 분당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서근배미 마을에 전해 오는 이야기이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울리(栗里)로 불리웠다. 이곳은 당시 광주군 관내에서 밤의 명산지로 이름이 높았던 곳인데, 마을 뒤에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근배미' 또는 '서근바미'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나는 큰 밤알을 달았더니 무게가 무려 서근이나 나갔으므로 이 밤을 '삼근율(三斤栗)'이라 하였고, 이에 따라 뒷날 '서근배미'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혹은 이곳에서 밤이 많이 생산되므로 '밤이 짙을 만큼 명산지'라는 의미에서 '짙은 밤' → 서근 밤 → 서근바미가 된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마을은 고려 말기에 수절신인 류(柳)씨가 처음 세거하였고, 조선 성종 때 좌찬성을 지낸 서평군 한계희(1423~1482)의 묘를 분당저수지 위에 쓴 후 이 일대를 사패지(賜牌地)로 받아 그 후손인 청주한씨가 크게 번창하였으므로 '한씨촌(韓氏村)'이라고도 불렀다.

이매동과 헤매기골의 유래

12

***** 이매동의 유래는 300년 전 이무기가 승천하려다 횡방꾼에 의해 승천을 못해, 마을에 액운이 있어서 주민들이 위령제를 지내니 백발 도인이 나타나 마을을 용서하나 300년의 불모를 씌워 놓았으므로 마을 조상들의 액운을 푸는 동제로 전해 오고 있다.

현재 이매1동 소수의 원주민이 위령제를 대신해, 마을의 할아버지 나무와 할머니 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를 매년 음력 9월 3일이면 마을 최고 어른이 모시저고리를 입고 지내고 있다.

위치는 이매동 갯골에서 영장산 등산로 길로 500m 지점 전봇대 옆에 할머니 나무가 있으며, 맞은편 쪽 포스파크 빌라에서 영장산 등산로 500m 지점 우측 능선에 할아버지 나무가 있다.

이매동(二梅洞)은 풍수상의 매화낙지현(梅花落地穴)이라서 매화꽃이 떨어지면 매실(梅實)이 열리듯이 이곳에 사는 사람의 집집마다 가문의 영광이 찾아든다는 명당자리이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숲내를 막은 보(深)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농부가 한 아름드리 큰 고기를 잡아서 안고

나왔는데 그만 고기가 죽고 말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꿈에 죽은 고기가 나타나서 “나는 천년의 도를 닦아 곧 승천할 때를 기다렸는데 너희 마을 사람들 때문에 그만 억울하게 죽었으니 원통하여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죽은 고기의 아내가 매일 밤마다 울부짖어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뜻을 모아서 용이 못되고 죽은 이무기를 위하여 웅장하고 화려한 위령제를 지내주었더니 숲내에서 갑자기 크나큰 굉음과 함께 한 마리의 용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승천하는데, 제상(祭床) 주변은 온통 용이 토하는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꿈에 승천한 용이 백발노인으로 나타나 “위령제 덕분에 내가 승천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의 지극정성에 보답하는 뜻으로 너희들에게 식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300년 이전에는 큰 인물이 나지 못할 것이나 300년 후에는 큰 인물이 많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를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꿈 이야기를 하다가 위령제를 지낸 곳에 가서 보니 신기하게도 그 곳에는 예전에 없던 아름다운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기에 정성스럽게 가꾸었고 마을 이름도 이매(二梅) 마을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 온다. 실제로 이매리에는 이매수울(二梅樹鬱)이라는 방수림(防水林)이 있었다.

이매동 들방아골에는 헤메기굴이 있다. 물레방아골 댐 위 산 24번지에서 산 17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들이다.

옛날에 이주 잘 사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하도 많이 찾아오는 것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느날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가르침을 달라고 하니 스님은 야탑동 쪽의 산허리를 끊으면 된다고 하여 산허리를 끊었더니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손님이 끊기자 부자도 망해 버렸다.

부자는 옛날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이 골짜기를 해매고 다니다가 죽어서 헤매기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전설이 있는 골짜기이다.



판교원을 지은 조운홀(趙云億)

***** 조운홀(趙云億, 1332~1404)은 풍양조씨인데, 고려 말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낸 끝에 법총랑(法摠郎)을 맡았다가 물러나 상주 노음산(露陰山) 아래에 살았다.

신우(辛禰)에게 불리어 좌간의대부를 제수 받고, 이어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로 옮겼다. 광주의 고원강촌(古垣江村)에 퇴거하여 판교와 사평(沙平)의 두 원(院)을 고쳐 짓고, 스스로 원주(院主)라 칭하였다. 헤어진 옷과 짚신으로 일꾼들과 수고를 같이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가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임림(林廉)의 무리와 처자들이 멀리 귀양 가는 것을 보고 시를 짓기를 “점심때나 되어 사람을 불러 사립문을 열고 숲 속에 걸어가 이끼 낀 돌에 앉았네. 어제 밤 산중에서 풍우가 사납던지, 가득한 시냇물에 꽃잎 등등 떠 흘러 오네”라 하였다.

조선이 건국 되서 강릉부사를 시켰으나 그만 두고 광주별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검교정당문학(檢校政堂文學)을 봉하니 검교는 녹을 받는 법이 없다며 끝내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사람됨과 뜻을 세움이 기고(奇古)하고 얽매인테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곧장 행하고, 때에 휩쓸려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 죽음이 임박해 스스로 묘지를 지었다.

여기에 이르기를 “조운홀은 본래 풍양인으로 고려 태조의 신하이며 평장사 조익의 30대손이다. 공민왕 때 흥안군(興安君) 이인복(李仁復)의 문하에서 등제하여 내외직에 임하며 다섯 주의 인장을 찼고, 다섯 도의 감사를 해서 특별히 업적도 없지만, 또 쪼들려 폐를 끼치지도 않았다. 나이 73세에 광주 고원성에서 병으로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다. 일월(日月)로 주기(珠璣)를 삼고 청풍명월로 제수를 삼으리рода. 옛 양주(楊洲) 아차산 남쪽에 장사지내니 마사야(摩詞耶), 공자(孔子)의 행단(杏壇) 위와 석가(釋迦)의 쌍수(雙樹) 아래에 고금의 성현 어찌 홀로 남은 이 있던가? 그렇다 뜻밖이구나, 인생사 끝났도다”라고 하였다.



화랑모계(화랑모랭이 · 하랑모) 화랑보 · 화랑보들 · 화랑보개울

판교동과 삼평동 사이의 운중천 · 금토천이 합류하는 그 남쪽 산모퉁이를 하랑모, 화랑모계(계), 화랑모랭이라 하고 개울을 화랑보개울, 보를 화랑보, 그 들판을 화랑보들이라 한다.

《성남시사》에는 옛날 판교의 주막집 주모가 죽어서 이곳에 묻었으므로 화랑의 묘 부근이라는 뜻의 ‘화랑모이계’가 ‘화랑모계’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화랑이(花郎)’는 옷을 잘 차려 입고 노래와 춤을 전문으로 하는 놀이꾼이나 박수, 사내무당을 화랑이라 불렀으므로 그와 관련된 이름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묘로 인하여 화랑보, 화랑보들, 화랑보개울(운중천) 등의 이름이 생겼다.

신라의 ‘화랑’과 관련된 이름이나 유적은 주로 동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곳은 신라의 화랑과 관련된 이름이기보다는 조선시대의 ‘화랑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¹⁾

51) 본당의 땅이름 이야기

열녀, 도미(都彌) 부인

1

***** 아득한 옛날 백제시대의 일이다. 도미는 백제 사람으로 의리가 있고, 또 그 아내는 매우 아름답고 절개가 굳었다. 백제 개루왕(蓋婁王)이 도미 부부의 얘기를 듣고 시험해 보려고 도미를 불러, “여자들은 비록 정절이 있다 해도 그혹한 곳에서 유혹하면 모두 마음이 변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미는 “사람 마음은 모르지만 저의 아내는 죽어도 마음이 변할 여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왕은 곧 도미를 어떤 핑계로 집에 못 가게 붙잡아두고, 신하 하나를 시켜서 임금의 행차처럼 꾸며 도미의 집으로 가게 해 도미 부인에게 왕이 왔음을 알리고, “내가 오래 전부터 너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의 남편과 내기를 해 내가 이겨 너를 내 궁녀로 삼게 되었으니, 내일부터 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함께 동침하자고 했다.

도미 부인은 “왕명을 어찌 어기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명령을 따르겠으니 먼저 방안으로 드시라고 했다. 그리고 여자 종을 예쁘게 꾸며 들여 보내 함께 동침하게 했다.

개루왕이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도미를 죄로 얹어 두 눈을 뽑고 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 보내게 했다. 그리고 다시 도미 부인을 끌이와 험박하고는 강제로 음행하려 했다.

이때 도미 부인은 의젓하게 왕에게, “이제 남편도 죽었고 더구나 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월경으로 몸이 깨끗하지 못하니, 며칠 후 몸을 깨끗이 씻고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기꺼이 허락했다. 곧 도미 부인은 궁중을 빠져나와 강가에 왔는데 배가 없어서 하늘을 우리러 통곡하니 갑자기 배 한 척이 나타나므로, 이 배를 타고 천성도(泉城島)에 닿으니 거기에 남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이래서 부부가 함께 풀뿌리로 연명하고는 다시 배를 타고 고구려 땅으로 함께 달아나니, 고구려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 산산(蒜山) 아래에 살게 하였다. 거기서 이주민으로 일생을 마쳤다.

김약(金鑰) 형제의 효행

기

***** 돌마면의 효자 김약(金鑰, 1624~1699)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그 아버지가 과질에 걸려 고통스러워하자 급히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소생시켰다.

그 후 아버지가 또 10여 년간 종기를 앓게 되었는데, 진한 고름이 흘러 나오자 형 김호(金鎬)와 함께 두 형제가 번갈아가며 입으로 빨아내었다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형제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아내를 보러 집으로 온 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닭고기를 먹여준 효자, 권수(權授)

***** 권수(權授, 1665~?)는 1665년(현종 6)에 태어난 조선 중기의 효자이다. 효심이 지극했던 권수는 부친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비슬도 비리고 간호하였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져 사경을 헤맬 때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부친의 입에 흘려 넣을 정도로 대단한 효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좋은 음식을 일체 멀리하고 죽으로만 연명하였다. 그리고 슬퍼함이 너무 심하여 병이 들고 말았다. 이때 어머니가 꿈 속에 나타나 닭고기를 먹여주는 꿈을 꾸고 깨어나 보니 닭고기 냄새가 여전히 나는지라 통곡하며 이것은 자신의 효성이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여 한탄했다고 한다.

묘소가 수정구 금토동에 있다.

홍수원(洪睟元)의 효행

***** 홍수원(洪睟元, ? ~1637)은 남양홍씨이며 호는 건초(建初)이다. 병자호란 때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인 화포(花浦) 홍익환(洪翼漢)의 아들이라서 강화 출생이다.

성품이 효성스러워 부친이 악성증기로 병을 앓아 매우 위태로울 때 입으로 종기의 고름을 빨아내고 대변을 받아내는 등 온갖 정성으로 시병하였다.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군사가 강화성에 들이닥치자 게모인 허씨를 모시고 교동으로 피난하였으나 포구에서 적을 만나 위태롭게 되었다. 이때 게모를 가로막아 보호하려다가 적의 손에 피살되었다.

그 효행을 칭송하여 1683년(숙종 9)에 정려되었다.

묘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산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산이씨 묘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부인이 한산이씨 이확(李穫)의 딸이었기 때문이다.⁵²⁾

52) 성남인물지



열녀 남원 윤씨

***** 오백령(吳百齡)의 아들인 오횡(吳玆)은 윤형준(尹衡俊)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판서 윤돈(尹墩, 1551~1612)의 손녀이다. 오횡 부부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윤씨가 혼인하여 처음 시대 문에 들어서자 시부모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아름다운 녀느리이다” 하였다.

함께 산 지 몇 해 만에 오횡이 병이 나자, 윤씨는 밤낮으로 옷도 벗지 않은 채 지내면서 약을 자신이 직접 달였으며, 더러워진 의복을 만드시 자신이 빨았는데, 열 달 동안을 하루처럼 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윤씨는 다시 일이날 가망이 전혀 없음을 알고는 먼저 자결하고자 하였으나, 집안 사람들이 구해 주어 다시 소생하였다. 상을 마치고는 음식을 끓은 채 궤전(饋奠 : 죽은 사람에게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는 일)을 올리는 일 이외에는 신발을 신고 문지방 밖을 나서지 않았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는 더욱더 몸이 상하였는데, 손수 편지 두 통을 써서 봉해 두어 어머니와 시어머니께 영결을 고하고는 드디어 목숨을

끊었다. 편지에 후사를 잇는 일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내용이 너무 슬
팠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들 애통해 하면서 눈물을 흠뻑 흘렸다.”⁵³⁾

윤돈의 묘는 금토동 원오현에 있다.

53) 김상헌, 정음집 제36권, 묘표음기(墓表陰記) 15수(十五首), '수재(秀才) 오군 황(吳君璜)의 묘표
음기

이로(李潞)의 효행

이로(李潞)는 조선 후기의 효자.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희문(希文), 호조참관을 지낸 청파(靑坡) 이륙(李陸)의 12세손이며, 관찰사 이구(李逵)의 8세손이다. 이로는 부모를 섬길 때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정성을 다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묘살이를 지극히 한 효자이다.

당시 세도가에서 선영에 투장(偷葬: 몰래 장사 지냄)을 하였는데 문중에서 이를 알고도 후사가 두려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분개한 그는 한밤중에 세도가의 묘를 파내어 시신을 등에 메고 관가에 나가 선영에 도장(盜葬: 몰래 묻음)한 묘를 파헤친 것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벌을 받을 것이라며 항의하였다. 그의 정성과 효심에 감복한 관원들은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시신을 도장하였던 후손들에게 넘겨주어 이장하도록 조치하였다. 중원구 갈현동에 그의 묘가 있다.⁵⁴⁾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 잠자리를 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일찍감치 문안을 여쭙는다.

54) 성남인문지

***** 효자정은 남한산성의 북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우물인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오랜 옛날에 그 산성 북문 안 마을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정남'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정남은 자신의 능력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한편 극진히 아버지의 병환을 간호하였으나,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 없는 가난한 살림이다 보니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커다란 잉어 한 마리만 구해 고아 드리면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완쾌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남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잉어를 구하러 나섰다.

그러나 때는 마침 겨울이라 강물이 얼어 잉어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수많은 강을 모조리 헤매고 시장을 찾아봐도 끝내 잉어를 구할 수가 없었다. 정남은 잉어를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전망과 실의에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오던 도중 호젓한 산기슭의 바위 밑에서 아직도 얼지 않은 조그마한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남은 굶주림에 지친 배를 우물볼로 우선 허기를 채우고 아버지에게 드릴 잉어를 구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빌고 빌었다.

오랫동안 우물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다 무심코 우물을 들여다본 순간 정남은 깜짝 놀랐다. 우물 속에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금빛 비늘을 번쩍이며 놀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복하여 우물에 잉어를 보내준 것이었다. 정남은 기쁨에 넘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잉어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밤새도록 정성껏 고은 잉어국을 아버지께 드렸다. 잉어국을 먹은 아버지는 과연 나그네의 말대로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정남을 '하늘이 낳은 효자'라고 칭찬하고 다 같이 잉어를 내려준 하느님께 감사했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그 우물을 '효자 우물'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우물에 잠깐 멈추어 전설이 담긴 효자 우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기도 한다.

국청사의 우물에도 든촌 이집 선생의 효도 이야기가 전해 온다.

1. 특이한 짐승

옛날 이야기 속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전해 온다. 삼국시대의 성남 일대는 한산주라고 불리진 적이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원성왕 10년 7월에 한산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 숙종 21년(1695) 7월 13일 경기 광주에서 암말이 새끼를 낳았는데, 한 몸이 머리 둘이 달린 새끼를 낳았고, 숙종 36년(1710) 10월 13일에는 경기 광주부 민가에서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통은 하나이고, 머리가 하나이면서 주둥이가 둘이고, 앞뒤로 다리가 여덟 개에다 꼬리가 두 개였다.

2. 말박만한 우박이 떨어지다

고려 문종 18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다가 우박까지 쏟아져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하나도 없었다.

고려 인종 12년(1134) 5월 무인일에 지진이 있었고 핏빛의 붉은 비가 광주(廣州)에 내렸다. 그런가 하면 고려 우왕 11년에는 검단산의 도미사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와 집이 잠기고 떠내러가기도 했다.

성종 12년(1481) 5월 19일에는 우박(雨雹)이 광주(廣州)에 내렸는데, 작은 것은 탄환(彈丸)만 하였고, 큰 것은 계란만 하여, 보리를 망치고 벼를 죽이고 날아가던 새가 잡자기 죽었다.

그래서 임금에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이유를 자신의 허물이라고 했다. 옛날 임금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모두 임금의 정치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정치를 하는 데 잘못이 있어 사람을 쓰고 버리기를 거꾸로 하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등용되지 못하였는가? 간교하고 사악(邪惡)한 사람이 다 폐출(廢黜)되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사송(詞訟)에서 아직 청리(聽理)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형옥(刑獄)에서 원통하고 적체(積滯)된 것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 삼가고 황공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해서 하늘의 견책(譴責)에 보답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정부(政務)에 온당함을 잃은 것들을 내가 어찌 자세히 알겠는가? 그 중외(中外)의 대소신민(大小臣民)들로 하여금 각각 시정(時政)의 폐단을 진술(陳述)하게 하되, 숨기는 바가 있지 않게 하라” 하고, 또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 이창신(李昌臣)을 특별히 보내 우박이 곡식을 상하게 한 곳에 가서 살펴보게 했다.

연산군 9년(1503)에는 우박이 큰 것은 주발, 작은 것은 오리알 만한 것이 내려 곡식을 거의 다 상하게 했다.

중종 37년(1542) 음력 4월 1일에는 경기 지평(砥平)에 우박이 내렸으며, 광주(廣州)에 북풍이 심하게 불어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였다. 그 후 폭풍이 잇달아 불고 날을 질러 서리가 내렸다.

숙종 20년(1694) 8월 15일에는 천둥하고 번개하며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달걀 만하였다. 개성부(開城府)에도 우박이 내려 큰 것은 비둘기 알 만했고, 경기 광주(廣州) 등 22고을에도 천둥하고 번개하며 우박이 내려 큰 것은 주먹만 하므로 오리와 기러기 및 두꺼비·개구리 등 속이 많이 맞아 죽었다.

숙종 42년(1716) 4월 11일 경기 광주(廣州) 등 다섯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말뚱만 하여 다친 사람과 가축이 많고, 까막까치가 깔려 죽고, 나무가 꺾이고 뽑히고, 전답이 피폐하고 파손되었다. 양주(楊州)의 민가에서는 열세 살 먹은 아이가 우박에 맞아 곧 숨졌다. 경상도 안동(安東)·예천(醴泉)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거위 알만하여 까막까치가 많이 죽었다.

3. 조선시대에도 출산 장려를 하다

세종 18년 윤 6월 2일에는 한막급의 아내가 세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쌀과 콩 10석을 주었다.

성종 1년(1470) 3월 14일에 경기 광주 사람 김윤동(金潤同)의 아내가 세 아이를 낳으니 쌀·콩 아울러 10석을 내려 주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을 장려했던 옛날에는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을 관청에서 결혼시켜 주기도 했다.

성종 2년(1471) 2월 27일에는 광주에 사는 이계유(李季裕)의 딸 등, 궁핍하여 시집을 못가는 사람들에게 조정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었다.

효종 9년(1658) 6월 8일에도 광주의 여인이 한 번에 세 명의 사내 아이를 낳았으므로 전례에 따라 쌀을 주었다.

4. 을축년 대홍수(乙丑年大洪水)

조선 명종 1년(1546) 5월 21일부터 일주일 내내 내린 큰비로 광주와 강화가 피해를 입었다. 21일부터 일주일간 계속하여 큰비가 내려서 하천이 넘치고 비와 보리가 모두 손상되었다. 광주(廣州)지방에는 표류된 인가(人家)가 30여 채이고 침몰한 것이 50여 채였다.

1925년 을축년에 우리나라에는 네 차례의 큰 홍수가 났다. 그 중에 1차와 2차의 물 난리가 성남을 비롯한 한강 일대에 큰 피해를 주었다. 7월부터 9월 초에 걸친 호우피해로 인하여,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1억 300만원의 피해액을 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차 홍수는 7월 7일 대만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열대저기압)이 11일과 12일에 중부지방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빠져 나갔는데, 이 때문에 황해도 이남지방에 300~500mm의 호우가 내려 한강·금강·만경강·낙동강 등이 범람했다.

1차 홍수의 물이 채 충분히 빠져 나가기도 전인 7월 14일에 다시 대만부근에서 열대성저기압(태풍)이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의 황해 북부 근해를 지나가게 되어, 그 오른쪽 반지름에 들어간 임진강과 한강유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6~18일까지 계속 내린 비의 양은 한강과 임진강 분수령 부근에서 650mm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임진강과 한강이 대범람을 일으켰다. 18일 한강의 수위는 독섬 13.59m, 인도교 11.66m, 구 용산 12.74m로서 사상 최고기록을 남겼다. 게다가 영등포·용산의 제방이 넘쳐 강변 일대 3만여 정보의 땅이 침수되어 망망한 진흙바다를 이루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곳은 동부이촌동·독

섬·송파·잠실리·신천리·풍납리 등이었다.

이와 같이 4차례에 걸친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홍수로 전국에서 사망자 647명, 가옥유실 6,363호, 가옥붕괴 17,045호, 가옥침수 46,813호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실된 논이 32,183단보, 밭이 67,554단보 등으로 그 피해액은 무려 1억 300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당시의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해당하였으니까, 실로 엄청난 피해를 겪은 사상 최대의 대홍수였던 것이다.⁵⁵⁾

이 홍수로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5. 무서운 전염병

숙종 7년(1681) 8월 4일 경기도 광주 등 13고을에서 전염병 우역(牛疫)이 발생하여 2백여 마리의 소가 죽었다.

55) 출처: 비이비 백과사전

따스한 인정을 품은 도시 성남의 옛 이야기

***** 성남! 남한산성 남쪽의 따스한 도시 성남에는 오랜 역사와 함께 해 온 사람들이 풀어낸 이야기들이 전해 온다. 김동환의 시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아~ 급잔디 넓은 벌엔/ 호랑나비 떼/ 비둘발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라고 노래한 것처럼 도시화 이전의 성남에는 남한산성 자락과 청계산, 영장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를 탄천이 살포시 적시면서 흘러 내렸고, 그 위에는 호랑나비와 종달새들의 춤과 노래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소박한 삶 속에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들과 훈훈한 미담이 수도 없이 있었을 텐데, 도시화의 물결 속으로 그 이야기들은 하나둘 스며들어 사라져 가고 있다.

흔히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신화(神話)와 전설(傳說)을 비롯하여 민담(民譚), 민화(民話), 설화(說話), 일화(逸話), 동요(童謠) 등이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는 장르로 전해 오는 것이다. 여기서 동요(童謠)는 예전에 우리 조상 때에

는 어느 한 시대의 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통해서 사전에 정조가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백제시대 서동(馨童)이 지었다는 향가인 <서동요(馨童謠)>이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권2 <기이(紀異)-무왕(武王)> 기록에 서동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나중에는 인심을 얻어 국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서동은 백제 무왕의 어린 시절 이름인데, 어려서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 노래를 지어 아이들로 하여금 널리 부르게 하였는데,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이다. 내용은 서동과 신화는 서로 사랑하여 밤이면 남 몰래 둘이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다.

성남의 향토사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와 문화유산에 대한 고층과 연구 작업을 하면서 사라져 가는 옛 이야기를 총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 3월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했는데, 기존에 알려진 이야기 외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자료 수집을 하는 데에는 성남의 향토사 연구에 기반을 닦아온 선구자적인 이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밝힌다. 한춘섭 성남문화원장님의 향토사 발굴 전승을 위한 충효인물 연구, 선양 노력과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역대 연구위원들의 연구 성과 등이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다만,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을 했으나 아직도 조사되지 못한 문헌 기록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창곡동의 '세자궁 터'에 대한 증언(한동익 경기향토사연구소장)에 대한 보다 깊은 조사도 필요하고, 인접 지역에 대한 옛 이야기도 보완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근현대사에서도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도 시급한 실정이다. 시간이 하루하루 흐를수록 그 이야기들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매역 옆의 농업기술센터 정문 부근에 있는 <순명 의사 창의비(殉名義士倡義碑)>는 돌마면 주민들이 6.25사변 때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 의로운 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과 살아 남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비석이다. 작고 초라한 그 비석을 통해 이 땅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짐작하게 해주지만 보다 깊은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아무리 훌륭한 역사를 일구어 왔다고 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 역사는 영원히 잊혀지고 만다.

우리 성남시가 아주 짧은 세월 동안에 초고속으로 도시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성남의 정체성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반복하게 된 것도 기록의 별실과 기억의 상실이 원인이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서 성남의 옛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어, 더 좋은 자료집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남긴다. 한춘섭 원장님은 그 동안 평생 수집했던 자료들을 기꺼이 제공해 주셨고, 교정까지도 꼼꼼히 살펴 봐 주셨다. 그리고 경원대 최명숙 교수님도 교정에 참여해 주셨다. 표지 글씨와 진각 또한 필자가 하남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자미헌 박종희 선생님께서 한 교실에서 글씨를 배운 인연으로 한울 박영희님께서 선뜻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회로애락을 나누는 동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동안에 머리가 아프고 심신이 피로울 때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도촌동의 느티나무(쪽)와 모란시장에 장보러 왔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탄천의 반짝이는 물줄기 등 바람과 구름조차도 고마운 마음이다. 정녕 옛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와 큰 바위에도 신령스런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은 적이 있었으니, 역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성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 원고들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한 일이다. 성남시가 문화복지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향토사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희생과 땀방울이 있었으며, 도와주신 분들의 큰 뜻과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금석(金石)에 새기지는 못하지만 이 지면에나마 길이 새겨 두고자 한다.

2010년 늦은 가을에

윤종준 씀

▶ 편저자

한춘섭 / 시조시인, 국문학자, 한국폴리텍1대학 교수, 성남문화원장
윤종준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서천문화의집 관장

▶ 교정 · 교열

최명숙 / 문학박사, 소설가, 경원대학교 강사

성남의 이야기 - 설화 · 전설 · 민담 -

발행일 : 2010년 11월 30일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전화 : 031-756-1082
e-mail : culture1082@hanmail.net
homepage : <http://www.seongnamculture.or.kr>
인쇄처 : 한누리미디어
전화 : 02-379-4514

※ 이 책자는 성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음(비매출)



성남 이야기